



청소년을 위한 단재총서 2

옛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옛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옛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글쓴이 박정규 외

발행일 2011년 12월 31일

발행처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96 청주문화관 4층
Tel, 043)250-0180 Fax, 043)250-0181
www.danjae.com

©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본 책의 저작권은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에 있습니다.

비매품

옛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들어가는 글

겨울이 오기 전 밖에서 거실로 옮긴 제라늄이 긴 목의 꽃대를 피워올렸습니다.

꽃대는 해가 비치는 남쪽으로 고개를 숙여 해바라기를 합니다.

진리, 불변의 힘을 향하여 자신을 기울이는 것은 사람들과 작은 꽃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해 12월 중순,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단재 선생의 26년 망명시절을 돌아 보았습니다. 나라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다시 읽게 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방략을 제시하고 몸소 실천하던 선생의 족적을 찾아 바삐 돌아보았습니다.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눈빛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이들의 앞날도 따라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하는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유학자, 외교통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독립운동가, 언론인, 문필가, 역사학자, 무정부주의자 등으로 불립니다. 이런 이름들은 평생 삶의 족적입니다. 성균관 입교 전까지 조부에게서 한학을 배우고 조부의 주선으로 학부대신 신기선의 장서를 섭렵하기까지 그는 젊은 독서광이었습니다.

그가 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자의 길로 가는 큰 변화는 독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단재에게 독서란 세계로 통하는 절대적인 문이 됩니다.

물론 망명 환경 속에서 고구려 유적 답사라는 충격이 더해져 변화의 커다란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가 망명할 때, 그의 나이 30세 청년이었습니다. 독서를 통하여 세상을 재는 끈은 자(尺)를 만들고 그 자로 조선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통해서 실체를 확인했지요.

이번 여행을 통하여 함께했던 청소년들이 나뉘는 잣대를 만들어 왔을 것을 믿습니다. 자가 없었다면 만들어야 하고 가진 자(尺)는 더욱 정확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답사여행이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않습니다. 오래전 써 발표했던 - 단재선생 - 이리는 제목의 시 한수 적어 봅니다.

봄 하늘 산벚꽃 함박눈처럼 훑날리고
여름 장대비 눈처럼 비껴 내리네
가을 낙엽도 흩뿌려 눈발 같고
그리고 마침내 겨울 눈보라
휘순감옥 창 밖으로 눈 내린다
사철 빛나는 흰 바늘이다

윤 석 위 (단체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공동대표·시인)

09

단재의 생애

단재의 삶과 자취 박정규 • 10

신채호, 민중혁명 제창한 민족사학의 기수 이이화 • 34



49

제1회 단재청소년글짓기대회 수상작

단재 선생님을 따라가 보다 신희관 • 50

살이 썩어 흙이 되고 뼈는 굳어 돌 되어라 장동욱 • 56

61

제2회 단재청소년글짓기대회 수상작

진정한 친일청산을 위한 나의 목소리 우종수 • 62

역사의 수레는 앞으로만 진전한다 조우인 • 66

71

2010 단재해외유적답사기

- 청주 고교생 단재를 찾아 만주에 서다 이재홍 • 72
- 단재 발자취를 좇아간 나의 첫걸음 신희관 • 86
- 역사교사 꿈꾸는 고교생 첫 번째 꿈을 이루다 민경갑 • 110
- 피눈물 선연한 단재의 망명길 발자국 따라 허원 • 136

147

2011 단재해외유적답사기

- 가슴속에 올리는 그분의 흔적들 우종수 • 148
- 단심으로 민족을 느끼다 조우인 • 154
- 선생의 불꽃같은 열정과 나라사랑 신념을 나의 가슴에 박취영 • 202
- 단재의 발자취 따라 다롄에서 베이징까지 신용철 • 206





단재의 생애



박정규 인문학 박사
단재의 삶과 자취

이이화 역사학자
신채호, 민중혁명 제창한
민족사학의 기수

옛 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단재의 삶과 자취

박 정 규 전 제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학 박사

단재의 가계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고려 신씨로, 시조는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고 검교와 군 기감의 벼슬을 지낸 신성용이다. 그 윗사람들은 신라의 공족(公族)으로 여러 대에 걸쳐 고려에 살면서 호장(戶長)을 지내 왔기 때문에 고려신씨로 계승되어 왔다. 단재는 시조로부터는 26세 손이 되고, 조선조에 영의정을 지낸 신숙주에게는 18대 손이 된다.

연산군 무렵에 신숙주의 여덟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이 이곳 청주 상당산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신씨 집성촌을 이루며 살게 되자 산동신씨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현재도 청원군의 낭성면, 가덕면, 등지의 몇 동네에 고려 신씨 집성촌의 전통이 남아 있다.

이곳 산동신씨는 수백 년 동안 이곳에 살아오면서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고려 신씨 65명 가운데 32명이 이곳에서 배출되고 진사도 80여 명이나 나왔을 정도로 대표적인 양반 지안으로 변창하였다.

산동신씨에게도 수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728년 무신난(이인좌와 신천영의 난이라고 함)의 영향으로 30년 정거(停擧) 처분을 받아 입학이 불허되어 고려 신씨 문청3파(고천공파, 소안공파, 영성군파)가 한동안 문의향교의 청금록에서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이후 후손들의 문과 급제와 벼슬길에 오르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산동신씨의 당색이 남인이었던 탓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단재의 직계는 높은 벼슬과는 인연이 멀었다. 그의 16대조부터 12대조까지는 종3품에서 종6품에 이르는 벼슬에 있었으나 11대조부터 9대조까지는 족보상에조차 벼슬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단재의 5대조 할아버지 신두모와 고조 신상구는 관직에 나간 적이 없는 한미한 양반이었다. 증조 신명휴의 대에 이르러서야 침지 중추부사라는 벼슬이 증직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다.

신명휴의 동생 신국휴도 1843년에 문과 급제를 하여 관직에 나갔으며 단재의 할아버지 신성우도 1867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사간원 정언과 사헌부 장령의 벼슬을 거쳤다. 신성우의 형 신약우는 사마시에 합격하여 양반 가문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단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태어난 곳은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당시 충청도 문의현 동면 화산리)로 이곳은 고천군 자손의 집성촌이었다. 할아버지 신성우는

1867년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 이전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서울에 올라가 살고 있었다.

단재의 아버지 신광식은 외갓집 동네에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단재가 태어난 해에도 신성우는 여전히 관직에 있었으나 단재는 콩죽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집도 간신히 묘막을 얻어 살아야 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신광식은 단재가 세 살 무렵에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당시 충청도 청주군 산내이상면)로 이사 왔으며, 조부 신성우도 관직을 떠나자 바로 아들 신광식이 살고 있는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로 낙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재의 할아버지 신성우(1829~?)는 고종 4년(1867) 문과에 합격하고 그해에 승정원의 가주서로 임명되었고 1871년에는 정4품관인 사헌부의 장령으로 승진하였다. 사간원의 정6품관인 정언 벼슬을 거친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관찬 사료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1883년 6월 22일에 장령에 제수되는 기사가 일성록에 보이고 1885년 1월에 다시 장령으로 임명되나 그해 9월 27일 체직된다. 그 후 교체된 직위가 나타나지 않고 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관찬 사서에 그의 활동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낙향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우는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에서 신명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터 한학과 경서를 배우고 오랫동안 과거 시험 준비를 하였다. 그는 강직한 성

품으로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 한다. 성년이 되어 조선중기 유학자로 유명한 권이진(1667~1733)의 현손 권찬의 둘째 딸과 혼인을 한다. 산동신씨와 회덕현 산내면의 안동권씨(무수권씨라고 하였음)와는 혼인 관계가 매우 많았는데, 이에는 두 가문이 대과급제를 많이 한 양반집안이라는 점과 당색이 같은 남인이라는 점 등이 작용하였던 것 같다.

신광식은 부인 밀양박씨와의 사이에서 첫 아들 신재호를 낳았고, 서른두 살이 되어서 외가인 권씨 집성촌 도리미에서 둘째 아들 신채호(申采浩)를 낳았다. 형인 재호(1872~1899)는 순흥안씨와 결혼하여 살았다. 단재 나이 19세 때 항상 아버지처럼 동생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형 재호는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형님의 혈육으로 향란이라는 딸을 두었는데 단재가 서울에 살 때에도 함께 데리고 있었으며 중국 망명 시기 향란의 결혼문제와 관련하여 국내로 들어왔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혈연의 정을 끊기도 하였다.

단재는 16세가 되던 해에 지안에서 정해준 풍양조씨와 결혼을 하였으며 서울로 올라와 삼청동에 살면서 첫아들 관일을 낳았으나 우유에 체해 아들을 잃게 되었다.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얻은 아들이기에 그 슬픔은 매우 큰 충격이었다. 그 후 부인과 이혼을 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해외 망명을 결행한다.

중국 망명 중이던 1920년 단재는 박자혜와 두 번째 결혼을 하여 그 사이에 수범과 두범 두 아들을 낳았다. 박자혜는 1895년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수유리(현 서울 도봉구 수유리 화계유치원 자리)에서 태어나 1914년 숙명여자학교 기예과(2회)를 졸업하고, 1919년 3·1운동 당시 서울 조선총독부 부속병원(현 직심



▲ 1920년 단재와 박자혜 여사의 결혼 사진



▲ <동아일보> 박자혜 여사의 기사와 사진

자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소위 '간우회사건'을 주동한 인물이었다.

당시 박자혜는 베이징 연경대학 의예과에 재학중이었는데 단재와의 결혼은 이 회영의 부인 이은숙의 중매로 성사되었다. 박자혜는 연경대학에서 여대생 축구 팀을 구성하여 주장으로 활약할 만큼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1936년 단재가 휘순감옥에서 서거한 이후 둘째 아들 두범은 1942년 영양실 조로 사망하였고, 1944년 박자혜도 병사한다. 장남 수범은 북한에서 월남한 후 단재의 업적을 정리하는 작업에 온힘을 기울이다 1991년 5월 사망하였다.

탄생과 성장

단재는 1880년 12월 8일(음력 11월 7일)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도리미(충청도 회덕현 산내면 어남리 도리미)에서 가난한 선비 신광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단재 선생의 부모는 논마지기는 고사하고 밭조차 버젓한 것이 없었으니, 산간 밭을 개간하여 보리와 콩, 옥수수 농사를 지어 허기를 메우는 지경이었다. 그것도 보릿고개에는 남아있는 식량이 거의 없어 산나물을 캐어 죽을 쑤어 먹어야 했다.

단재의 아버지 외가가 있는 도리미 마을은 부근의 두 부락과 함께 어남리를 이루고 있는데, 계족산 봉우리들이 이어지는 사이의 삼태기 같은 깊은 골짜기에 군데군데 집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봉소골



▲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도리미에 있는 단재 생가



▲ 단재 선생 생가를 알리는 표지석

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새둥지 같은 깊은 산 속에 삼태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외딴 곳에 떨어진 마을의 전체 형편은 모두 비슷하였다. 가난한 살림 속에 성장한 터라 단재는 몸이 매우 허약하였으며, 병약하여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단재 이름은 원래 채호(采浩)라고 하였으나 성균관 입학 무렵부터 채호(案浩)라고 고쳐서 켄 채(采) 자 대신에 녹봉 채(案)로 바꾸어 써오다가 1910년경 부터는 옛 이름으로 환원하였다. 선생의 아호는 처음에 정몽주의 '일편단심가'를 흠모하여 '일편단생(一片丹生)이라고 하였다가 '단생' 또는 '단재'라고 썼다. 그 밖에 무애생(無涯生), 금현산인(錦頰山人), 검심(劍心) 등 여러 가지 아호와 필명이 있다.

단재는 3세 무렵에 원래 고향인 산동신씨들이 많이 모여 사는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충청도 청주목 산내이상면 귀래리 고드미)로 돌아 왔다. 이곳에 와서도 지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으나 고향 마을이기에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형편이 가난하기는 한가지였으나 선비 지안으로 자녀교육에 등한히 하지는 않았다. 형 재호 뿐만 아니라 어린 단재에게도 한문 공부를 시켰다.

서너 살 무렵에 사언고시로 이루어진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이어 계몽편, 명심보감, 고문진보 등 여러 한문책을 하나하나 습득해 나갔다. 공부 방법은 전체 문장을 외워 완벽하게 암송하고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으며 처음에는 아버지 신광식이 직접 가르쳤을 것이다.

어린 단재는 6살부터 할아버지 신성우가 낙향하여 새로 문을 연 서당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단재는 어려서부터 한시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였다. 이 무렵 할아버지 신성우가 단재에게 연 날리기를 두고 시를 짓되 연이란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지으라고 하자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고 한다.

높고 낮게 날림은 바람의 세고 약함에 있고 (高低風強弱)
멀고 가까이 날림은 실의 길고 짧음에 있네 (遠近絲長短)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시인으로서의 소질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또 할아버지가 씨레와 쟁기를 지고 논밭으로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은 한시를 지었다.

이른 아침에 씨레와 쟁기 지고 들로 나가네 (朝出負而氏)

논을 갈아 나가니 흙덩이가 많이도 일어나네 (論去地多起)

‘而’자는 씨레와 같이 생겼고, ‘氏’자는 쟁기와 같이 생겼으므로 ‘負而氏’라고 하였고 ‘論’자는 ‘畚’의 음역이고 ‘去’자는 ‘耕’의 음역으로 논을 간다는 표현을 이 같이 한 것이다. 그가 10세 때에는 조선시대 가장 발달된 한문 시가체로서 가장 박학을 요하는 행시(行詩)를 잘 지었다고 하니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뛰어났던가를 알 수 있다.

훗날 단재의 시학(詩學)을 말하면서 당시(唐詩) 수천 수를 늘 외고 있어 한시에 대해서 누가 지은 시든지 듣기만 하면 문득 기억하여 언제든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시가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7세에 통감을 배웠으며 13세 때에는 사서삼경과 같은 경서를 섭렵하여 통달하였다. 불과 13, 4세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볼 때 쓰던 문장인 공령문과 문장과 시부를 중요시하던 사장학이 매우 뛰어나 당시의 이름난 유학자도 단재의 학문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그 차이는 일보백보가 아니라 초연한 원거리였다고 평가 받고 있었다.

16세가 되던 해에 단재는 주위의 권유에 의하여 풍양조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을 하였다. 17세에는 집안 어른인 진사 신승구의 집에서 시 문답을 하였으며 인근 마을에 사는 용파 신흥구의 회갑을 맞이하여 형 재호와 함께 수연시를 지어 축하해 주기도 하였다. 18세에는 갑오경장 후 학부대신 법무대신 등을 두

루 거친 신기선의 목전에 있는 사저를 드나들면서 신구학문의 서적을 폭 넓게 접할 수 있었다. 신기선의 추천으로 1898년 가을에 성균관 경학과에 입학하였다.

성균관 경학과는 학생을 유생이라 불렀으며 유학경전에 밝은 기본 소양을 가지면서도 신학문, 시무, 경제에 능통한 인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수업연한은 3년이며 입학은 한성 거주자의 보증이 있어야 가능하였다. 교과목은 산술이나 만국지리 같은 신식 과목도 교습하였으나 전통적인 성리학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시험은 입학, 임시·정기·졸업 시험 등의 여러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성균관에 입교한 단재는 당시 성균관 관장 이종원의 총애를 받아 그에게서 “나를 아는 자는 오직 군 한 사람뿐이다(知我者 惟君一人)”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재능이 출중하였다. 성균관 재학시 김연성, 유인식, 조용은 등 다수의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유학자로 이름 높던 수당 이남규는 성균관 교수로 만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의 문하에 출입한 제자로 단재를 비롯하여 이장직, 강기선, 변영만 등이 있었고 특히 변영만은 단재가 언론계에 있을 때 거의 매일 만나 교류하던 친구로 꼽히고 있다.

당시 새로운 성균관 박사는 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어 서임한 후 하루 만에 의원면본관(依願免本官)이라고 하여 면직을 시켰다. 이를 관보에 게재해 주는 일

종의 명예직 구실이였다. 단재는 1905년 4월에 성균관 박사 시험에 통과하여 박사로서 서임된 점이나, 그 해 겨울에 발행된 공자의 행적과 제사 절차 등을 정리한 궤리지(關里誌)라는 주자학 색채가 짙은 책을 발간하는데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도 주자학을 신봉하는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국내에서의 활동

단재는 독립협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만민공동회가 절정을 이루던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당시 단재는 내무부 문서부 소속으로 일하였는데, 이 부서에는 이상재·신홍우·김규식 등이 함께 있었다. 독립협회의 운동이 힘차게 진행될수록 정부의 탄압도 심해져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단재도 검거되어 투옥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곧 석방은 되었지만 처음 경험한 독립협회의 운동은 그를 개화자강 사상에 눈뜨게 만들었다. 친구 서적을 취급하는 종로의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특유의 속독법인 한눈에 10줄의 문장을 읽는다는 일목십행(一目十行)의 방법으로 책장을 넘기듯이 읽어서 서점에 쌓인 많은 책을 섭렵할 수 있었다.

성균관 재학 때는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매일신문> 등이 일간으로 발행되던 시기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뉴스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식들도 매일 접할 수 있어 세계 정세의 변화와 국내 개혁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있

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간 서적들이 서울의 서점에서조차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일본과 중국에서 들어온 서적 가운데 단연 양계초의 저작물이 매우 인기가 높았으며 당시 국내에서는 개화 교과서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단체는 성균관을 마친 후 서울과 고향을 왕래하면서 애국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1901년 단체는 고향 근처 인차리에 신규식·신백우와 함께 문동학교를 세워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는 데 힘썼다. 1904년 경에는 신백우·신규식 등과 함께 향리에 가까운 묵정리에 산동학당고 신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는 1901년 2월에 성균관 생도 30명과 함께 최근의 법규가 예에 어긋나는 것이 많은 데 나라의 제도를 황제국의 법규로 바꿔 황제의 존엄을 보여 줄 것을 주장하는 ‘헌의서’를 증추원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1904년에는 이하영 등이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균관으로 다시 올라와 조소앙 등과 항일성토편을 작성하여 외부대신 이하영 등의 매국 음모를 규탄하였다.

1905년에 성균관 박사가 된 이후 <황성신문>의 사장이던 장지연의 권유로 <황성신문> 논설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단체가 <황성신문>에 관여한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황성신문>을 퇴사한 시점이 1907년 9월 발행인이 바뀌면서 이루어졌다.

<황성신문>에서의 단체 필치는 예리하고 강렬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한데



▲ 뛰어난 논설로 지식층에게 많은 인기를 끈 <황성신문>(皇城新聞)

모았다. 특히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언론계에서는 가장 먼저 신문 논설로 이를 소개하고 국민들이 널리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서 들여온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자는 운동인데 “담배를 끊어 국채를 갚자(斷烟報國債)”라는 제목의 논설을 황성신문(1907.2.25.)에 게재함으로써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06년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황성신문>의 주필로 재직하면서 거의 단독으로 논설을 도맡아 집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 관료 등 상류층을 주요 독자로 삼고 있던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문체를 채택하였으며 순한문에 토만 단 형식의 현토문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단재는 전통적인 성리학의 유학자에서 벗어나 서양의 새로운 문명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비밀결사체인 신민회의 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기호흥학회, 경제연구회 등 여러 단체에도 관여하여 이들 기관지에 논설을 기고하고 토론이나 회의에 참여하였다. 항일언론에 선봉에 섰던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텔(E. T. Bethell)이 발행한 신문이었으나 실무적인 업무는 창간 때부터 양기탁이 맡고 있었다.

그는 국채보상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일제 통감부는 근거도 없는 국채보상을 위해 모금한 돈을 횡령하였다고 체포하고 널리 알려 국채보상운동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영국인 베넬(E. T. Bethell)에 대한 탄압으로 영사재판에 제소하는 등 온갖 비열한 언론 탄압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재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기자로 초빙한 사람은 양기탁이었다. 단재는 1907년 11월 6일부터 출근하여 박은식을 대신하여 주필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5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주필을 맡으면서 격정적이지만 논리 정연한 논설들을 발표하고 사회등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만들어 친일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언론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 <대한매일신보>에 기고한 단재의 논설



▲ <대한매일신보> 한글

<대한매일신보>에서도 단재의 글들은 사회의 중요한 이야기거리였다. 그 옛날 나라를 구했던 영웅들을 다시 살려내 현재의 나라를 구하려 하였던 단재는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등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 모두는 서두에서부터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의 운명을 건져보려는 단재의 소망이 한껏 들어간 명문들이었다.



▲ 『을지문덕전』 표지



▲ 『을지문덕전』 칼라사진



▲ 『수군제일위인 이충무공전』

역사가로서, 문학가로서 다방면에 걸친 단재의 재능이 돋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단재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 「천희당시화」, 「소설가의 추세」 등을 발표하여 여러 분야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단재의 문장에는 힘이 넘치고 리듬이 있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논설에는 산문체의 문장에 시가를 삽입한 경우도 적지 않아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독자들의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단재는 1910년 5월27일자 신문에 「동국거결 최도통」이라는 소설 연재를 서둘러 마치고 같은 달 29일 신문에 「중상주의를 창도함」이라는 논설을 마지막으로 하여 국내에서의 활동을 접고 육로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망명을 한다.

국외에서의 활동

1910년 봄 신민회 간부들은 점점 심해지는 일제의 책동에 대하여 대응책을 논의하는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신민회는 어려워진 국내에서의 독립활동을 접고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서북간도를 비롯한 시베리아, 미주 등 국외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나아가 이들 지역에 동포들을 이주시켜 항일의 근거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1910년 4월 8일 단재는 안창호 등과 함께 해외 망명 길을 떠났으나, 단재는 도중에 뱃멀미가 심하여 일단 서울로 돌아온 후에 신문의 논설도 집필하고 살던 집도 처분하여 망명 준비를 차분히 하였다. 신민회 동지들의 중국 청도에서 만나자는 계획에 따라 안정복의 『동사강목』만을 들고 김지간과 국경을 넘어 신민회 회의가 열리는 칭다오(靑島)로 갔다. 향후 독립운동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회의였던 청도회의는 독립운동에 대한 점진론과 급진론이 대두된 회의였고, 따라서 여러 대안이 치열하게 맞선 회의였다.

그해 7월 일주일 동안 진행된 청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린성 밀산현에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모든 독립운동의 기지를 이곳에 두기로 한 것이었다. 단재는 이를 위해 밀산으로 이동하였으나, 이종호의 출자금과 여러 각처의 성금을 통하여 농토도 마련하고 무관학교도 세우려던 이들의 노력은 이종호의 포기로 결국 실패하고 망명인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단재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갔다. 그는 이듬해 1911년 6월 청년권업회의의 기관지 <대양보>의

주필로 선임되어 6월부터 13호까지 속간하였으나 9월 중순에 발행이 정지되었다.



▲ 단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주필로 발행한 <권업신문>

1912년 4월 22일 창간된 주간 <권업신문>의 주필로 논설 집필과 신문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 신문은 블라디보스톡과 여러 지방에 산재해 있는 교민들이 그들의 권익과 독립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순환글을 전용하여 석판인쇄로 제작되었다. 한인사회의 고질적인 파벌 다툼 등을 비판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논설과 기사를 통하여 교민 계몽에 앞장섰다. 몸을 돌보지 않는 활발한 활동은 단재의 건강이 매우 쇠약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보다 못해 상하이인 신규식이 단재를 불러들였다.

1913년 봄 단재는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북만주를 거쳐 중국 관내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그해 8월 19일 상하이에 도착하여 대중 몸의 기력을 회복한 단재는 신규식이 운영하던 동제사에서 잠시 머물면서, 신규식의 도움으로 박달학원을 개설하고 청년들을 가르쳤다. 박달학원은 단군의 얼을 살려 민족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단재의 의식으로부터 시작한 교육기관이었다. 이 학원의 강사로는 문일평·홍명희·조소앙·신규식 등이 초빙되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1914년 단재는 중국 망명 중 역사의식의 대전환을 맞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윤

세용·윤세복 형제 초청으로 그들이 서간도 환인현에 창설한 동창학교(東昌學校)의 교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창학교 국사 교재로 『조선사』를 집필하였다. 윤세복·신백우·김사·이길룡 등과 함께 백두산을 거쳐 만주를 돌아가는 대여행을 하였다. 백두산과 광개토태왕릉 등의 여행은 이후 단재에게 대고구려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귀중한 경험을 준다. 단재가 구상하던 고대사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서간도에서 활동하던 단재는 1915년 이회영의 권유로 베이징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주로 도서관의 책들을 이용하여 역사 연구를 계속하고 집필 활동을 펼쳤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베이징에서 약 4년간 체류하게 된다.

단재는 이상설·신규식·박은식·유동열·조성환·성낙형·이춘일 등과 함께 신한혁명단(新韓革命團)을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이 조직의 활동이 실효성이 없음을 알고 역사연구와 문학적인 창작에 몰두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1916년 봄에 단재는 베이징에서 중편소설 『꿈하늘』을 탈고하는데, 이 작품은 단재가 한놈의 입과 손을 빌려 나라의 독립운동전개를 상징적 수법으로 극화한 대표적 소설 가운데 하나이다.

단재는 이 기간 동안 대종교(大倥敎)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였는데, 대종교의 제1대 교주 나철이 구월산에서 일본 정부에 보내는 긴 글을 남기고 자결하자 그 비통한 심사를 「도제사언문(悼祭四言文)을 지어 나철의 영혼을 달랬다. 그후 단재는 제2대 교주 김교헌과도 함께 대종교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이 일에는 유근·박은식 등이 함께 하였다. 후일 단재의 『조선상고사』는 대종교의 교본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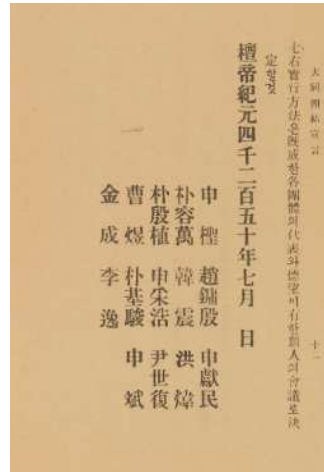
기도 하였다.

38세가 되던 1917년 아끼던 제자 김기수의 죽음과 조카 향란의 혼인 문제로 국내에 잠입하였다가 돌아온 단재는 그 후 베이징의 보타암에 기거하며 역사연구에 매진하였다. 7월에는 박은식, 신규식, 윤세복 등 14명과 함께 임시정부수립을 제창하는 「대동단결선언」에 참여한다. 이 무렵 벽초 홍명희는 남양군도에 서 3년간 방랑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였는데, 단재의 숙소를 자주 들르며 평생 동안의 남다른 우정을 나눴다.

베이징에서 신채호는 <중화보>, <북경일보>와 같은 우수한 중국신문에 논설을 기고하여 그 신문의 판매부수가 크게 늘어날 만큼 그의 논설 인기가 높았다 한다. 이 무렵 그의 생활은 중국신문에 집필하는 원고료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기고한 논설 중에 나온 오식을 이유로… 집필을 중단하였다. 그 이후 단재



▲ 「대동단결선언」 표지



▲ 「대동단결선언」 서명자 명단

는 돈을 위해 중국 신문에 기고한 것이 조선 사람의 지조를 깨뜨린 것 같다고 누우치곤 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 참여하였다. 임시의정원에서 단재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임되어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천거되자, 위임통치 문제를 들어 이를 적극 반대에 나섰다.

한편, 임시정부의 수립에도 적극 참여하였던 단재는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추대되자 위임통치를 미국에 건의한 경력을 들어 이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단재의 뜻과는 반대로 일이 성사되자 단재는 임정을 나와 임정을 비판하는 창조파의 맹장으로 활약한다. 또한, 임정이 발행하던 <독립신문>에 맞서 <신대한>을 창간하고 임정의 잘못된 노선을 비판하는 소위 '신대한사건'을 주동하게 된다.



▲ <신대한>(新大韓)

독립운동과 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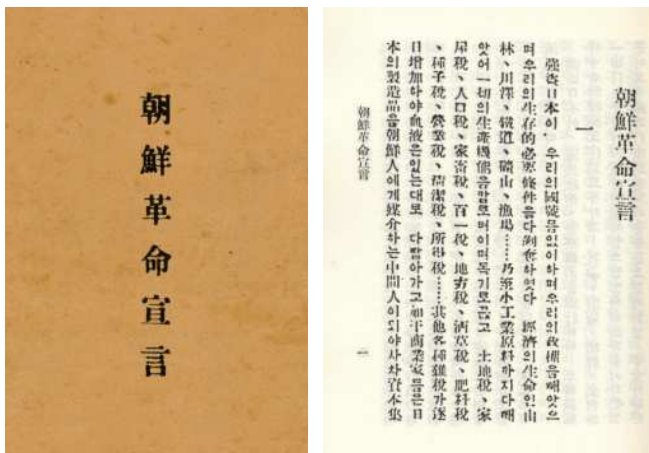
1919년 1월(음력 1918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대한의군부와 중광단(重光團)이 중심이 되어 국외의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의 명의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보통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독립선언에 단재도 주요 인물로 참여하였다. 이 선언서는 무력투쟁이 유일한 독립운동임을 선언하여 2·8독립선언이나 3·1독립선언과는 내용적으로 달랐다. 이 무렵 한진산과 함께 <진광시보>와 <앞재비>라는 잡지를 발행하였다.

1919년부터는 국내에서 발생한 3·1운동의 여파로 중국에 망명해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 통합된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단재는 임시의정원 중 한사람으로 참여하면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주장하였다.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임시정부의 초대 수반으로 이승만이 거론되자 단재는 그가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어,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단재의 뜻과는 달리 의정원회의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되자 단재는 의정원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임시정부내의 준비론과 외교론에 대한 성토에 나섰다.

그러는 동안에도 단재는 대동청년단(大同靑年黨)을 재건하여 그 단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였고, 대한독립청년단 단장, 신대한동맹단(新大韓同盟團) 부단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펴는 한편, 프랑스 조계 의영학교(義英學校) 교장이 되어 청년교육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임시정부와 맞섰던 신대한 사건을 계기로 상하이 임정과 결별한 단재는 1920년에 들어서면서 베이징으로 돌아와 항일운동에 매진한다. 이곳에서 박용만, 신숙 등 상하이임시정부 반대세력과 합작하여 군사통일운동을 일으켜 남북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군사단체의 통합과 혈전의 독립전쟁을 강조하는 독립운동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보합단(普合團) 조직에 참여하여 내임장(內任長)으로 추대되어 활동하는가 하면 독립운동의 행동대였던 '다물단'(多勿團)의 고문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다물단은 우당 이회영의 조카인 이규준이 몇몇 동지들과 만든 무장독립운동단체로, 다물은 조국의 광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다. 단재는 이 다물단의 조직과 선언문을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 단재가 집필한 「조선혁명선언」



▲ 신채호 선생이 수감됐던 감방은 아직 고증되지 않은 상태. 다만 정치범 수감동에 역사적인 「조선혁명선언」의 일부가 부착돼 있다.

그리고 1922년에는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에 고문으로 가입한 단재는 의열단 선언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다.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폭력투쟁으로 일관하는 의열단은 단재의 운동정신에도 부합하는 단체여서 단재는 흔쾌히 6천 4백여 자에 이르는 이 선언서를 작성하게 된다.

1924년 4월에 베이징에서 처음 결성된 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무정부주의 운동에 관심을 나타냈다. 단재가 관여하였던 통일전선체 신간회 운동이 무산되자 단재는 더욱 무정부주의 운동으로 경도된다. 1927년 남경에서 아시아 9개국 대표가 모여 수립한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 가입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대회 선언문까지 작성하였다,

이 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천운동에도 가담, 무정부주의 운동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공작금 마련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다. 결국 택한 방법은 외국위조지폐를 만들어 이를 폭탄제조소 설치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단재는 중국인 유병택이라는 가명으로 이 위폐를 교환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대만 기룡 우체국

에서 체포된다. 이른바 ‘외국위체변조사건’으로 2년 동안의 재판을 통하여 단재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죄수번호 411번을 달고 뒤순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였다.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하여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독서를 하였다. 노역을 나가면 잠시 쉬는 시간에도 책을 보거나 메모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면회 오는 친지나 동지들을 통하여 감옥에서 단재가 쓴 원고가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였다. 재중국 한국인 무정부주의자들은 <남화통신>을 통하여 민족전선의 필요성과 결성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선전하였는데 1936년 11월에 간행된 것에는 단재가 「민족전선을 위하여」와 「혁명동포에게」라는 유작시가 실린 것도 이러한 경로를 통한 것이었다.

형기를 3년 정도 앞두고 병이 악화된 단재는 결국 1936년 2월 21일 뇌일혈로 순국한다. 순국 이전에 병보석으로 감옥문을 나설 기회가 있었지만, 보증인인 한 사람이 친일파라는 이유로 단재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가 순국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여러 국내신문과 잡지들이 언론인, 역사학자, 독립운동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다 간 단재의 지조 높고 고결한 일생을 추모하여 특집으로 크게 보도하여 그를 기렸다.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압박과 설움을 받던 시기 내내 수많은 애국지사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살다 갔다. 그러나 단재 선생처럼 이론과 실천면에서 투철했던 지사는 드물었으며 특히, 일제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평생 지조의 의리를 지키며 몸소 실천하다 끝내 감옥에서 순국한 선열은 더욱 드물다.

신채호, 민중혁명 제창한 민족사학의 기수

이 이 화 역사학자

오늘날 국사 교과서 문제가 시끄럽다. 독재자를 미화하면서 이념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에 이어 요하문명론,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와 식민지 미화 등을 통해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한 역사인물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바로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1936)이다.

1936년 2월 21일, 북풍이 몰아치는 뤼순 감옥에서 그는 고난에 찬 독립투쟁의 일생을 마쳤다. 당시 그의 나이 스물일곱 살로 일제에 대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어 10년 실형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하다 옥중에서 순국한 것이다. 조국광복의 꿈을 안고 중국에 망명한 지 26년, 상하이와 베이징 그리고 만주 연해주 등지를 오가며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흔적을 더듬고 민족혼을 깨우치던 사학자요, 언론인이며 혁명가인 신채호는 결국 해방 조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그는 생전에 “내가 죽으면 시체가 왜놈들의 발끝에 채이지 않도록 화장하여 재를 바다에 뿌려 달라”고 했으나 유족들은 후손을 생각하여 국내에 묘소를 쓰기로 하고 뤼순에서 화장하여 유골을 고국으로 봉안해왔다. 그러나 정작 그는 민적(民籍, 식민지시대의 호적)이 없어서 매장허가를 얻지 못해 암장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처지였다. 그는 살아서 “곡하고 노래하기 그마저도 어려워라”고 한 단했지만 죽어서도 정작 묻힐 곳이 없는 형편이었다.

어쨌든 그의 묘소는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자리를 잡았다.



▲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단재 묘소

1970년대부터 신채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그의 저작도 전 집으로 출간되는 등 관심이 높아졌다. 변절과 투항으로 얼룩진 일제하 이 땅의 지식인들의 행적을 뒤돌아볼 때 비타협적 투쟁으로 일관해온 신채호의 생애는 우리에게 민족과 독립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한다.

많은 논설로써 독립투쟁 전개

신채호는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도림리(현재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성우(星雨)는 언관인 정언의 벼슬을 지냈으나, 그의 아버지 광식(光植)은 벼슬살이는 하지 않았고 집이 가난하여 어려운 살림을 꾸리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채호는 어릴 적에 학식이 넓은 할아버지에게서 한문을 배웠는데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한다.

한편 문의현(지금 청원군) 일대에는 고령 신씨인 신숙주의 후예들 수백 호가 집단부락을 이루며 살았다. 이들은 조선조의 토반(土班)으로서 재산으로나 신분으로나 행세깨나 하는 명문이었던 것이다. 조선 중기 대제학과 좌우정을 지낸 신용개(申用溉) 등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신채호가 자랄 무렵, 고령 신씨의 지안에는 그만한 또래의 재동들이 많았다. 뒤에 독립투사로 활약한 신규식(申圭植 : 상하이 임시정부 국무총리대리) 신건식(申健植 : 주중한국대사) 형제, 신석우(申錫雨 : 조선일보사 사장) 신백우(申

伯雨 : 서로군정서 참모) 등이 각기 꿈을 안고 면학에 열중했던 것이다. 신석우는 신채호의 족조(族祖), 신규식은 신채호의 족숙(族叔)뻘이 된다.



▲ 신규식(申圭植, 1880~1922)



▲ 신백우(申伯雨, 1897~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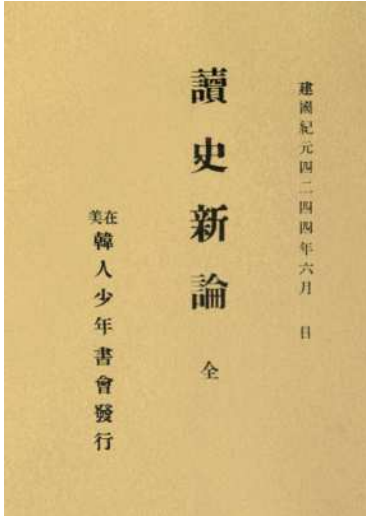
이랬든 그는 지안의 촉망을 한 몸에 받으며 한학공부에 열중하면서 과거시험을 준비하였다. 그의 할아버지의 소개로 18세 때 학부대신을 지낸 신기선(申箕善)의 사저를 드나들면서 많은 장서를 읽어 지식을 넓혔다.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채호는 스물세 살에 신기선의 소개로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이곳에서는 그는 변영만 유인식 등 유망한 청년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또 독립협회운동이나 뛰어들었다. 그 뒤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향리에서 신백우 신규식 등과 함께 신교육운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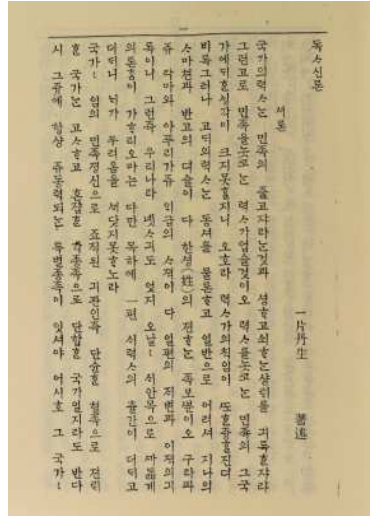
그는 26세 때 성균관 박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를테면 오늘날의 국립대학 교수가 된 셈이다. 그러나 그가 학생들을 가르칠 당시는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벼슬을 버리고 구국운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황성신문사에 들어갔다. 당시 <황성신문>은 <독립신문>의 후신으로 장지연·박은식 등의 지사가 일제침략에 항거하는 논설과 친일파를 매도하는 논설을 피를 토하듯 토해내고 있었다. 곧 이어 <황성신문>이 폐간되고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자 양기탁의 소개로 다시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는 이 두 신문에서 일반논설 외에 한국의 역사에 관한 글들도 썼다.

이 무렵 그에게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가 근무하는 곳인 통의동 쪽에서 자택이 있는 창덕궁 앞으로 퇴근할 적에 어김없이 종로5가나 청계천 일대에 널려 있는 헌 책방에 들렀다고 한다. 그는 책을 잡으면 거의 다 읽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때에 원급을 쓴 수건을 책방 못에 걸어놓고 책을 읽다가 그대로 놓고 가버렸다고 한다. 책방 주인이 미워서 모르는 체 했는데 끝내 돈을 쓴 수건을 찾아갈 줄 모르더라고 전했다. (신각휴의 증언)

그는 이 무렵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연구를 통해 민족구국운동을 벌이려는 목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역사논문에서 민족의 주체를 강조하고 봉건질서의 타파를 외쳤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자주성을 찾고 주체적인 활약을 부각시키면서 사대주의와 양반의식을 철저히 배격했다. 이 때 발표된 글로는 「일본의 3대 충노」를 비롯해 「독사신문」과 이순신 최영 을지문덕의 전기를 발표하였다. 그의 응혼한 문장과 힘찬 기상의 내용을 담아 청년 문사로 이름을 떨쳤다.



▲ 하와이에서 발행된 단행본 한글판 『독사신론』 앞지



▲ 한글판 『독사신론』 첫 페이지

또 그 자신이 양반 출신이었고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양반들을 죽이려는 19세기의 검계(劍契) 살주계(殺主契)와 같은 비밀결사활동을 사회변혁세력으로 보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곧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을 지배세력인 양반계층으로 보았고, 사대주의를 몰주체(沒主體)에서 나온 자기비하적 의식에서 태동한 것으로 보았다. 그의 민족사학자로서의 참모습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들에서부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신민회 조직과 국채보상운동과 청년학우회 등 단체에서 맹렬한 활동하였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활동

1910년,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자 그는 감연히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했다. 신채호는 그곳에서 독립지사들과 협력하여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해조신문> (海潮新聞)의 후신인 <대동공보>을 간행하는 데에 간여했다. 이어 동포들이 권업회(勸業會)를 조직하고 기관지인 <권업신문>을 발행하자 그 주필로 활동했다. 그러나 재정사정이 어렵고 또 언론에 대한 동포의 인식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아 이 신문발행은 여러 차례 결간(缺刊)을 거듭했다. 한 호마다 겨우 발행하는 처지였다.

이런 때인 1913년에 상하이에 먼저 자리 잡은 신규식·박은식으로부터 상하이에 와서 활동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상하이로 가서 신한청년단과 박달학원 등 여러 교민단체 또는 운동단체에서 청년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쳐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우리나라 상고사의 연구에도 열중했다.

이듬해 만주 봉천성 회인현으로 가서 동창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백두산의 등정, 광개토대왕비 답사,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그런 뒤 베이징으로 가서 새로운 활동을 벌였다. 더욱이 베이징 보타암에 주거지를 정하고 <북경일보> 등에 논설을 쓰기도 하고 대한독립청년단을 조직해 단장을 맡아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예전의 우리의 역사가 결코 퇴영적이 아니요, 고조선·고구려 등이 강

대한 중국에 맞서 영토를 확장하거나 지키며 살아온 역사적 사실을 통해 민족 사관을 정립하는 데에 온 정열을 쏟았던 것이다. 특히 그는 고대사 정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독립투쟁과 학문연구를 병행하면서 이국땅에서 10년쯤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동분서주했다. 이럴 즈음, 국내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났고 곧 이어 망명지사들이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는 임시정부 수립에 앞장서 임시정부창건위원회의 중심 멤버로 활약했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전원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독립투쟁의 구심체로 발족된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서로 망명정부의 주도권을 놓고 다툼질이 벌어졌고 심지어 임시정부의 정체(政體)를 놓고 공화파와 복辟파(復辟派)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기호파·서북파 따위의 파벌이 일어났고, 몇몇이 모이면 예전 조상의 줄을 대 당색을 따지거나 양반·상놈을 가리는 일 따위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신채호는 감연히 이런 행동에 성토를 벌였다. 특히 독선적이며 주도권 잡기에만 열중하는 임시정부의 대통령 이승만을 그는 규탄하고 나섰다. 그가 이승만을 규탄할 적에는 어쩌나 격렬했던지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도 과하다고 평할 정도였다고 한다.

임시정부가 제대로 단결되지 않자 그는 전원위원장 자리를 내던지고 언론활동을 다시 벌였다. 단재는 순 한글신문인 <천고>(天鼓)를 손수 발행하기도 하고, 우리 임시정부에서 간행하는 <독립신문>과 중국의 신문인 <중화일보>에 많은 논설을 써서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 1921년 베이징에서 발행한 순한문잡지 <천고>

그러나 임시정부의 관련 직책을 던지고는 <신대한>을 창간하여 주필을 맡아 <독립신문>의 온건노선에 맞서 격렬한 논조를 폈다.

그의 독립투쟁노선은 철저하게 폭력저항이었다. 그는 강한 일본침략세력과 맞서려면 파괴·암살 등의 방법을 통해 항쟁해야지, 외교 또는 문화운동이나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따위의 온건한 방법으로는 결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고 보았다. 그의 이런 투쟁노선 또는 독립혁명사상 은「조선혁명선언?」에서 잘 나타난다.

폭력적인 독립투쟁노선 선도

1923년에 들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지사들은 독립투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곧 일제의 고위 관리나 친일파들을 제거하는 폭력투쟁을 전개하여 독립투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했다. 이들은 임시정부와는 별도로 의열단을 만들어 텐진에 본부를 두고 중국에 널려 있는 한국인의 일본 밀정은 물론 도쿄의 침략의 원흉, 조선에 있는 총독부 관리 및 친일파에 대한 테러·암살을 행동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의열단은 그들의 강령과 행동목표의 취지 및 단원의 정신무장을 위해「조선혁명선언? 을 발표하기로 하고 그 선언서를 베이징에 있는 신채호에게 부탁했다. 신채호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혁명사상을 발표할 계기로 여겨 일대 대일선언서를 작성했다. 이것이 유명한「조선혁명선언? 이다. 그는 이 글에서 일본의 침략마수를 날날이 파헤쳤는데 그 시작은 이렇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토를 없앴으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았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깡그리 빼앗아갔다. …… 대다수 인민 곧 일반 농민들은 피땀을 흘리어 토지를 갈아 그 해 소득으로 한몸과 처자의 입에 풀칠할 거라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일본 강도에게 바쳐 그 살을 찌워 주는 영원한 마소가 될 뿐이요, 끝내는 그 마소의 생활도 못하게 일본 이민들의 유입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떨각밭이’ 등쌀에 우리 민족은 발디딜 땅이 없어 산으로 들로, 서간도로 북간도로, 시베리아의 황야로 몰리어가 아귀(餓鬼)부터 유귀(流鬼)가 될 뿐이며……

그는 이어 일본의 침략수법과 압제의 실상을 날낱이 지적하고 또 동양평화의 허구성을 파헤쳤다. 또 일본 식민통치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일련의 미온적 방법에 대해 비판을 했다.

첫째는 국제연맹의 도움 따위에 기대는 외교론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방법의 한계를 말하고, 둘째는 민족자본의 육성,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 신문 등을 통한 문화수준의 향상 따위의 방법으로 민족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준비론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신문 한두 개, 학교 몇 개, 군대 얼마로 대일항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막연하고도 기다릴 수 없는 세월이 될지 모르는 계획이라고 일갈했다. 그리하여 혁명의 수단을 통해서만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몰아낼지며, 강도 일본을 몰아내자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몰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라.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계획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분될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 떼면 우리가 일본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제일은 이족통치를 파괴하자 함이라…… (현대어로 고쳤음).

이 행동 목표에는 일본 천황의 암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일본 침략자들의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격렬하고 조리정연한 문장으로 일본에 대한 혁

명이론을 전개했다. 이 글은 의열단 단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따라서 1920년대 의열단의 무력항쟁이 눈부시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후 베이징대학 도서관에 출입하면서 고대사연구에 더욱 열중했다. 그의 논설들은 조선총독부의 유희정책에 따라 국내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통해 발표되어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1926년경 그는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에 가입해 있었다. 이것은 물론 그의 아나키스트로서의 의지보다도 독립투쟁의 일환으로 이 활동에 가담했던 것이다. 특히 그의 평론에는, 자유 평등 폭력 혁명을 찬양하는 논조들이 자주 나타났는데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은 탓일 것이다.

이런 활동이 끝내 일본 경찰에 발각되었고 그의 이름도 일본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체포자 명단에 올랐다. 일제 경찰은 그를 일급 불온 인물로 찍고 혈안이 되어 체포하려 하였던 것이다.

불귀객이 된 영원한 망명자

그는 1928년 무정부주의 동방연맹대회에 참석하는 등 아나키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해 타이완에서 일경에게 잡히는 몸이 되었다. 이 때 그는 외국위체위조사건(外國爲替僞造事件)의 연루자로 지목되었다. 어음이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쓴 것이다. 그의 신병은 다롄으로 이송되었다.

이에 모진 심문을 받은 끝에 그의 독립투쟁 경력이 모두 드러났고, 특히? 조선혁명선언? 의 작성자임도 밝혀졌다. 그는 10년형을 선고받아 뤼순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그는 옥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연구에 몰두하던 중 1936년 뇌일혈로 쓰러져 죽고 말았다.



▲ 단재가 10년 형을 받고 수용생활을 한 뤼순감옥

조국의 독립을 끝내 보지 못한 한 많은 생애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민족사학의 태두, 근대사학의 비조로 일컫는다. 적어도 실학자들의 역사의식을 계승하고 근대사학을 접목시켜 철저한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주체의 역사를 서술하기에 불 같은 정열을 기울였던 것이다. 망명지의 차가운 여관방에서도 그는 역사

책을 놓지 않았으며 감옥에서도 그의 연구열은 멈출 줄 몰랐다. 그의 역사서술은 기백이 넘쳤고, 압제를 일삼는 세력에 대해서는 칼보다 예리한 필치로 매도하였다.

그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다. 그는 평생 동안 고개를 쳐들고 얼굴을 씻었다고 한다. 세숫물이 가슴을 적셔도 아랑곳없이 평생 이를 어긴 일이 없다고 한다. “남자가 어찌 땅을 보고 세면을 하느냐”고 말했다. 또 나라 잃은 백성이 무슨 호적이 있느냐면서 호적을 아예 파 없애버렸다. 이런 기백이 바로 독립투쟁에서나 역사서술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오늘날 그가 뛰놀던 고향 땅은 비록 대청댐으로 일부 물에 잠겨 있지만, 그의 민족정신과 역사정신은 우리의 혼 속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또 후학들은 그의 역사정신을 본받아 민족사관의 정립에 열중하기도 한다. 민족의 역사는 바로 나라를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정신적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신채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그의 저작도 전집으로 출간되는 등 관심이 높아졌다. 이어 그를 기리는 많은 전기가 출간되기도 하고 단재상을 제정하여 민족사를 연구하거나 도움을 준 학자에게 수여하기도 하고(한길사), 그의 기념관을 옮긴 묘소 밑에 지어 유물을 전시하여 일반인의 발길을 끌기도 한다. 그의 호적도 우여곡절을 거쳐서 복원되었다.

그는 망명지의 감옥에서 죽었으나 그의 정신은 고국에서 우리들을 받은 것이다. 변절과 투항으로 얼룩진 일제하 이 땅의 지식인들의 행적을 뒤돌아볼 때 비



▲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단재기념관

타협적 투쟁으로 일관해온 신채호의 생애는 우리에게 민족과 독립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한다.

제1회
단재청소년
글짓기대회
수상작



논제 : 강제한일합방 100주년에
단재를 생각한다

신 희 관 청석고2
단재 선생님을 따라가 보다

장 동 욱 세광고2
살이 썩어 흙이 되고
뼈는 굳어 돌 되어라

옛 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단재 선생님을 따라가 보다

신 희 관 청석고2

한일합방 100주년 단재를 생각하며

나는 명절이 될 때마다 청원군 가덕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간다. 정갈하게 잔디를 덮으시고 기다리시는 할아버지를 찾아가노라면 가끔은, 후손이자 국민으로서 단재 신채호 선생과 이곳을 더 삼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

청원군 가덕은 예부터 고령 申(신) 가문이 많이 살았는데, 특히 단재 선생의 조부인 신성우가 일생을 보내고 단재 선생의 아버지 신광식이 유년을 보낸 곳이다. 1901년에는 단재가 직접 문동학교를 세우고 이곳에서 교육에 힘썼다. 지금

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신씨가 거주하고 있고 가문의 공동묘터가 자리 잡았다. 나의 고조부와 증조부, 조부도 모두 고령 신씨로 이곳에 잠들어 계시다. 일제아래에서 나라도 없는 서러움에 가난과 억압까지 만연했던 이 나라가 이렇듯, 오늘에 와서는 후손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한국의 땅으로 남아있게 된 것은 포기 없이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안주하지 않고 일생을 희생한 단재 신채호와 같은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일합방 100주년을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위에서 내 의지로 지탱하며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하며 단재 선생이 주신 업적과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범국민적 의지의 시작 - 민족사관

단재 신채호 선생은 패망한 나라의 국민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 역사의 우수성을 연구하셨다. 연구를 통해서 일제하 국민들에게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려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과 희망을 심어주려 하셨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부여와 고구려를 중심으로 광활한 대륙을 호령하던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국민들에게 드러내보였고 우리 역사 속에서 외세 침입으로부터 이겨낸 영웅의 전기를 쓰셨다. <대한매일신보>, <해조신문>, <권업신문>, <대양보> 등 많은 신문사에 이런 연구에 관한 글을 쓰셔서 민중들에게 알리는 일을 소홀히 하시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단재의 연구 결과는 일부 독립운동단체의 지침이나 교본이 되기

에 이르렀다. 단군을 모시는 대중교는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한 종교 중 하나인데, 단재의 『조선상고사』를 교본으로 채택하여 필히 가르쳤다고 한다.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은 단재로부터 「조선혁명선언」을 받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각종 독립단체에서 단재의 연구를 토대로 삼은 것을 보면, 단재의 연구가 우리 민족에게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독립의지를 불태우게 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단재의 역사사관은 광복을 위한 원동력에 이바지한 것이고 그 자체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단재의 연구를 현대에 와서 국수주의적, 자문화중심적인 면이 있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던 조국을 살리기 위해 애국심과 자긍심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재의 연구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적인 시대에 적합한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단재가 민족사관을 만들고 교육한 업적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중흥의 시초가 되는 즉, 독립을 향한 범국민적 의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을 향한 극한 - 무정부주의

단재는 이승만을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이 죽일 놈” 이라고 비판하며, 이승만의 임시정부 대통령 취임에 반대하나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남은 평생을 임시정부와 등을 돌린다. 그 후 무정부주의

를 주장하며 새로운 독립운동이념의 노선을 앞장서는데, 당시 단재를 포함하여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이념의 차이로 분립했기에 독립을 위한 민족의 역량이 약화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뜻이 맞지 않는 임시정부와의 결별에서 단재가 임시정부의 구성을 반대하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단재는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분립하는 것을 보며 시급한 광복 과제를 해결할 강경한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재의 무정부주의는 정부구성반대주의라기보다는 일제의 지배로부터의 대한 국민의 해방의 한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단재의 무정부주의의 이러한 면모를 볼 수 있는 단체가 앞서 언급한 의열단이다. 의열단은 단재로부터 강령을 제시받은 단체로써, 정체되어 있던 독립투쟁을 일제요인 암살과 일제기관 파괴와 같은 강경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후에 단재가 독립의 역량이 한데 모아지는 시기가 왔을 때, 신간회에 가입하여 단합된 투쟁역량을 발휘한 것을 보면 무정부주의는 단재의 독립을 향한 강렬한 염원이 담긴 방법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재 선생을 통해서

1910년 국가의 수치로부터 벌써 100년이 지났다. 100년 동안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我(아)와 非我(비아)의 투쟁을 해왔고, 더불어 화해하고 단합하는 뜻 깊은 역사도 이룩해왔다. 단재를 포함한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을 대가로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민지 현실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는 물려받은 주권과 교훈이 헛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문제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 국민들의 열정과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국민의 사회참여의식 부족 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활동하셨다. 무정부주의, 민족사관 모두 애국심에서 시작된 강렬한 참여의식의 결과물들이다. 국민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참여의식으로 빛을 내며 뛰어 들어가야 한다. 모두가 자신을 내어서 사회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라, 민족, 역사를 사랑하는 일을 장려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단재 선생이 그 어려운 시절을, 그 어려운 고난에서 민족을 해방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두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한 데에 있었다.

우리도 마땅히 좋은 선례를 받아 이어가야 한다. 단재 선생님이 『을지문덕전』 등 민족 영웅들의 전기를 편찬한 것처럼 우리도 독립 운동가들을 포함한 민족의 위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느끼도록 하자. 지금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국사와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더 알게 해야 한다.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능력을 공동체에게 헌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국난을 마주하였을 때 해결 여부는 신채호 선생처럼 헌신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온 국민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는 애국심에 달려 있다.

살이 썩어 흙이 되고 뼈는 굳어 돌 되어라

장 동 욱 세광고2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사과담화를 발표하였다. 한일강제합방이었음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술국치 100년만의 역사적 일이었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떠올랐다. 2년 전, 우연히 선생님이 내게로 찾아오셨다. 대아(大我)를 위해 소아(小我)를 버리고 스스로 대아(大我)가 되어 불멸의 존재인 민족의 혼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분이 진로와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한 민족의 후예를 찾아와 굽직한 길을 안내해주고 가셨다.

2년 전 여름 방학, 서울에 살고 있는 친척 형이 전화를 해서 자신의 친구 중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이 있는데 신채호 선생의 사당과 묘소가 있는 고드미

마을을 견학하고 싶으니 길안내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선생님의 사당이 가까운 인근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나를 형은 청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동행을 원하고 있었다. 외국인이라는 말에 그동안 갈고닦은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의욕과 함께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불안감으로 맘이 두근거렸다. 한국 학생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안내하겠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도서관에 가서 관련 도서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양이 엄청났다. 적당히 한 꾸러미로 간추려 책상 위에 책을 쌓아놓고 조금씩 선생님의 흔적을 더듬어갔다.

선생님은 항일언론인, 계몽사상가, 민족사학자, 독립운동가, 문학자, 혁명가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특히 근대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위대한 역사학자이셨다. 불안한 시기에 태어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에서 활약하시고 대한매 일신보 등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기울이시는 등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다가,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자 중국으로 망명하시어 행동하는 혁명적 민족주의를 보이셨다. 만주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옛 유적지를 돌아 보고 역사연구에 박차를 가해 역사를 새로 쓰셨다. 성균관 박사이셨지만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유학을 비판하고 왕조중심의 사관이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 또한 비판하셨다. 대신 민족주체사관을 제시하여 한국의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의 시발점이 되셨다.

선생님은 비타협적이고 무력에 의한 절대독립론을 주장하셨고 『독사신론』에서는 종래의 사대적인 역사관을 벗어나 단군에서 부여·고구려로 계승되었다는 새로운 인식체계를 여셨고, 신라의 국선(國仙)이 고구려의 선인(仙人)과 통하며

이는 묘청, 정지상 등의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이 된 낭가사상이라고 주장하셨다.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파악하셨다. 무정부주의 잡지 <탈환>을 발간하고, 혁명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 등을 출간하셨다. 상하이임시정부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셨지만 이승만과 맞지 않아 사퇴하고, <독립신문>과 맞서기도 하며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무정부주의운동'에 투신하여 활동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1936년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셨다.

며칠 동안 눈이 아프게 선생님의 업적을 살펴보다가 그 모든 활동의 밑바닥엔 오직 민족의 자주독립과 주체성 확립이란 하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항일의식을 고취하고자 민족과 민중을 세웠고 최영, 을지문덕, 이순신 등 영웅을 살려내고 역사를 재해석하셨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 그리하여 선생님은 필멸인 '자신'을 버리고 불멸의 '민족'의 혼에 영원히 살아계시게 되셨다.

연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될 때 형이 왔다. 놀랍게도 외국인은 서양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였고, 선생님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일본사람이 왜 선생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다. 사당을 둘러보며 일본 유학생이 말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주체사상의 웅대한 기상을 지닌 그가 존경스럽다. 그를 배우고 싶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민족은 왜 그 분을 무국적자로 두고 있나?" 그의 물음에 형과 나는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었고 자존심이 상하였다. 형이 떠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선생님의 강인한 혼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소아(小我)

가 아니라 대아(大我)를 위해서 살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뒤 2009년, 선생님의 국적이 회복되시고 후손들의 호적도 정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그리고 강제한일합병 100년,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탄생 13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총리가 사과를 하였다. 선생님의 시「너의 것」이 생각났다. “살이 썩어 흙이 되고 뼈는 굳어 돌 되어라. 님 나라에 보태지게.” 선생님의 살과 뼈가 보태어진 우리 민족은 독립을 하였다.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에서 비아(非我)가 물러간 것이다. 그런데 아(我)가 둘로 나뉘어져 한쪽은 비아(非我)가 되어버렸다. 그 한쪽이 비아(非我)에서 다시 아(我)가 되는 날까지,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자신을 버려 민족의 혼이 된 선생님의 고결한 기상은 우리 민족과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다.



▲ 청주예술의전당 앞 단재 동상

제2회
단재청소년
글짓기대회
수상작



논제 : 해방 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친일청산에 대해 평하고
논하시오

우종수 청원고2
진정한 친일청산을 위한
나의 목소리

조우인 오성중3
역사의 수레는 앞으로만 진전한다

옛 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고등부 단재상

진정한 친일청산을 위한 나의 목소리

우종수 청원고2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그대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소.”

위임통치론을 주장했던 이승만에게 신채호가 말했던 일침이었다. 단재 신채호는 외국에 의지하려는 세력중 친일파를 가장 경계하였다. 그는 친일세력이 한민족을 일본에게 넘기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친일청산이었다.

그러나 독립 이후 6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친일청산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덤 속에 단재 선생은 분명 통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단재 정신의 강한 정의감으로 거듭나 진정한 의미의 친일청산을 이루기 위한 소견을 말하

고 싶다. 그것은 친일의 잘못을 따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민중과 친일파의 잘못을 밝히려는 후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광복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이루었던 친일청산은 피상적이었다.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친일청산은 반드시 해야 됐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를 묵인했었다.

이승만 정부는 나라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암암리에 일본에 부역했던 인사들을 등용한 것이다. 요직을 차지한 친일세력은 권력을 잡은 후 기득권을 유지하며 보수화 되어갔다. 반민특위를 저지하기 위해 친일세력은 반공을 외치며 친일을 청산하려는 세력들을 억눌렀다. 1970년 이후 그들은 경제개발로 나서며 친일정책을 주도했다. 이처럼 초기 친일세력들은 반공세력과 경제개발의 역군을 자칭하며 변모해 왔다. 그리고 지난 과오를 두둔함으로써 친일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일청산의 미해결은 썩은 고름이 되어 현재도 친일청산을 둘러싼 혼란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일본에 의한 근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중등교과서에 친일청산을 위한 노력들을 누락시켜, 친일적인 역사를 세우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하여 몇몇 친일파의 후손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친일 청산을 두고 한국 안에서 반목과 갈등을 겪는데 과연 일본에게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나는 친일청산을 위해서는 우선 민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일

본의 역사적 잘못과 친일의 부당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TV,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저번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은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과거 친일을 반성하고 모두 합심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친일의 부당함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친일청산을 위해서는 친일의 부당함을 알고, 잘못의 반성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친일의 후손들이 스스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려는 노력을 보았다. 사회는 친일행적이 있다고 그들이 언제까지나 과거를 감추려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후손들 중에는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려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친일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조부가 친일파라고 고백한 사람이 출연한 적이 있었다. 그는 조상의 잘못을 용감하게 언론에 밝히고 앞으로 보상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나는 친일의 후손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를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좋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일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조상의 친일 행적을 시인할 때, 맹목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친일청산을 위한 발판을 쌓고 단재가 원했던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역사학자는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나에게 '과거를 반성할 줄 안다면, 우리가 원하고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단재는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쳤다. 천일청산을 위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친일은 경계하는 민중들과 지난 친일의 흔적을 갖고 있는 후손들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앞으로 시시비비의 논쟁에서 벗어나 한마음이 되어 일본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소망해 본다.

역사의 수레는 앞으로만 진전한다

조 우 인 오성중3

독일의 역사철학자 헤겔은 역사를 일컬어 '세계정신의 진보'라 하였다. 원시적인 억압 상태에서 갈수록 더 자유롭고 성숙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인류정신이 세계정신이 나아가는 길을 헤겔은 역사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헤겔이 '결코 뒤로 가는 일이 없다'고 단언했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너무나도 빨리 여행하는 기이한 변고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11월 10일경 교육부에서는 내년도부터 국사 교과서에 '친일청산'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역사학계의 비판을 불러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현재 한국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교과부의 발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지난 36년간의 역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식민 지배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국혼의 수레 바퀴를 흔들고 역행시키는 일을 현재 교과부가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 곳곳에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잔재가 깊게 스며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하게 교과부의 ‘수레바퀴 흔들기’에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질화된 일제의 잔재를 없애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한민족이 공식적으로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래 친일세력을 청산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이승만 정권 당시의 ‘반민특위’부터 참여 정부의 ‘과거사청산’까지. 그러나 수차례 있어왔던 친일청산의 시도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거나 어정쩡하게 끝나고 말았으니, 한국사회에는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를 위해 넘어서야 할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였고 이를 뛰어넘는 시도가 하나같이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주체정신의 결여였다. 다른 강대국들에게 의존하여 살아남으려는 태도는 국가의 주체성을 훼손시켰고, 이러한 상황에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역사의식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만 매달린 것 역시 문제였다. 친일파 출신의 자본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36년간의 고통을 경제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넘

기는 동안 친일청산이라는 말은 이미 많은 이들과 국가의 머릿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이념 프레임에로의 매몰 역시 문제였다. '반공'에 모든 것을 투여하는 상황에서 '공산당'만 아니면 친일세력도 자연스레 '같은 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서로 이어져있는 이 거대한 벽들과 격변의 시대상황 속에서 친일청산의 가치는 깊숙한 곳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 속에서 끓어왔던 상처들이 이제와 터지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뒤늦게나마 거대한 벽을 넘어 친일청산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이루어 내는 것, 이를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금 진전토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길은 지난 우리 역사에 대한 성찰 속에서 찾아야만 한다.

잃어버린 주체의식을 찾는 일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길이다. 과거의 피해의식과 약소주의에서 벗어나 상대에 관계없이 늘 주체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지닐 때 안으로도 끈고 올바른 형상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의지 역시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과거 수차례의 친일청산 시도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시도에 머무른 점이기 때문이다.

그 방편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틀을 통해 접근하여야만 한다.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깊숙히 뿌리내린 친일의 잔재는 일방향적 시도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친일청산의 시도들은 단편적 접근만을 시도했기에 수많은 친일세력의 일부를 다루는데 그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위해서는 대아(大我)와 소아(小我)의 분별이 확실해야 한다. 표상적이고 외면적 행위만을 논박할 때 그 속 깊숙하게 뿌리내린 더 큰 문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에 대한 반성은 성찰적 행위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시간 친일청산을 등한시하고 외면하여 오늘날 그 곪은 상처가 터져 나오고 있음을 볼 때, 이제 친일청산을 위한 행동을 더 늦출 수는 없다. 역사의 수레는 앞으로만 전진한다는 것을, 결코 역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 시간은 그 무엇도 기다려 주지 않는다.



▲ 1919년 상하이 망명시기의 단재 신채호·신석우·신규식과 함께(왼쪽부터)

2010 단재 해외유적답사기



이 재 흥 청석고2
청주 고교생
단재를 찾아 만주에 서다

신 희 관 청석고2
단재 발자취를 쫓아간 나의 첫걸음

민 경 갑 운호고2
역사교사 꿈꾸는 고교생
첫 번째 꿈을 이루다

허 원
서원대학교 한국교육자료박물관 관장
피눈물 선연한 단재의
망명길 발자국 따라

옛 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청주 고교생 단재를 찾아 만주에 서다

이재홍 (청석고2, 제4회 단재역사퀴즈대회 단재상 수상)

1일 | 뤼순의 차가운 감방 앞에서

12월 19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탐방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모여 인천공항에서 다롄(大連) 행 비행기에 탑승하니 설레었다. 해외여행, 특히 해외로 가는 학술여행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륙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롄에 도착하였다. 날씨는 예상보다 따뜻했다. 다롄이 해안에 근접한 도시이기에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

첫 경유지는 바로 뤼순(旅順) 감옥.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게 잡혀 고



▲ 다롄공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있는 답사 단원들

통받고 생을 마감한 곳이다. 단장인 허원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감옥 내부를 관람했다. 그곳에는 안중근 의사의 독방도 있었고 사형집행소, 독립운동가 기념관도 있었다. 감방 내부를 자세히 보니 참 비좁고 추워보였다.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씁쓸했다. 전시해놓은 장비들을 보니 수많은 무자비한 고문이 가해진 것으로 보였다. 과연 주권 없는 민족에게 인권이란 것은 소용없는 것일까?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한평생 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야말로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장본인들이다.

뤼순 감옥을 관람한 후 우리는 근처의 단재 선생 화장터 추정지를 보고 숙소가 있는 단동(丹銅)으로 향했다. 단동까지는 4시간 정도가 걸린 듯하다. 숙소 하나 가는데 4시간이라니 정말 중국이 크다고 느꼈다.

2일 고구려를 지우는 동북공정

단둥은 압록강변에 위치한 도시로 북한과 맞닿아 있다. 안개가 끼 잘 안보였지만 중조우의철교, 즉 중국과 북한의 우의를 다진다는 압록강 철교 옆에서니 기분이 묘했다. 이 날 우리가 갈 곳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지안(集安)이었다. 단둥에서 지안까지는 거리가 상당해서 긴 이동시간이 소요되었다.

아침에 출발해 늦은 점심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단둥에서는 안개 때문에 안 보이던 북한이 지안에서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렇게나 가까운데 60여 년간 맘대로 갈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니 성곽, 궁궐 잔해같은 것들이 보였다. 산성은 외곽의 성



▲ 안개 낀 압록강 철교 앞에서

벽이 뚫렸을 때의 최후 항전을 목적으로 세운 방어용 요새다. 산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보존되어 있었다. 산성을 벗어나 간 곳은 장군총. 바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묻힌 곳이다. 워낙 도굴이 쉬운 구조라서 안의 유물은 남아있는 게 없고 무덤 주위의 누름돌마저 누군가가 하나 훔쳐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자국의 역사가 아니라지만 좀 너무한다 생각했다.

장군총을 떠나 도착한 곳은 바로 광개토대왕릉비. 이곳에서는 삼엄한 경비로 이동하는데 경비원이 따라 붙고 내부에서는 감시카메라가 항상 작동한다. 내부 사진촬영은 일체 금지. 외부에서도 감시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다른 문화재와 달리 왜 이토록 지나치게 까다로운 간섭을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개토대왕릉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중국은 현재 국가 단위의 다민족 통합, 북한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등을 이유로 동북공정을 실행하고 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사의 대표라고 할 만하다. 그런 인물을 한국인들이 기리고 연구한다면 곧 고구려 전체를 기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을 광개토대왕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곧 고구려에게서 떼어놓는 것과 같다. 중국인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의 자취를 마음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니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기 짝이 없다. 고구려사는 독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통화(通化)로 향했다.

3일 평생 잊지 못할 겨울 백두산

이 날은 그 전과는 다르게 두툼한 옷을 입었다. 백두산에 가는 날이었다. 단단히 무장하고 통화를 떠나 백두산 근처의 작은 마을 송강하진으로 이동했다. 송강하에 도착하여 식사한 후 조금 더 가니 장백산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장백산은 백두산을 뜻하는 중국지명이다. 입구를 지나니 눈이 쌓인 울창한 자작나무,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었다. 중간 지점까지 셔틀버스를 타면서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였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식생의 수가 적어지고 위로 곧게 뻗으며 자라던 나무들도 강한 바람에 못 이겨 허리를 굽혔다. 숲을 벗어나니 탁 트인 풍경으로 백두산의 하얀 머리 부분이 보였다. 멀리서만 봐도 영험한 기운이 느껴졌다.

중간 지점에 도착하여 스노우모빌을 타고 천지에 올랐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고 경사도가 가팔라져서 마침내 정상에서는



▲ 평생 잊지 못할 백두산 천지

걸기가 힘들었다. 모빌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니 얼어붙은 천지가 보였다. 내 생애에 그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TV, 책에서만 보던 아니 오히려 그런 곳에도 나와있지 않던 쾌청한 날씨의 얼어붙은 천지를 보니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천지를 바라보던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오로지 광경을 보는 데 열중했다. 그야말로 진풍경이었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릴만 했다. 정상은 얼마나 춥고 바람이 거센지 바람 모양으로 눈이 쌓여 독특한 지면구조가 만들어졌다. 단체사진을 찍은 뒤 다시 중간 지점으로 내려왔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이 날 내가 본 장관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천지 조망은 끝났지만 아직 백두산에는 볼거리가 남아 있었다. 중간지점에 있는 금강대협곡이다. 나무다리를 지나 얼마간 걸어가다 보니 엄청나게 깊은 계곡이 나타났다. 금강대협곡이 나타난 것이다. 자연이 만든 함정은 거대했다. 기이한 모양의 암석도 아름다움을 더했다. 대협곡을 조망한 뒤 우리는 다시 송강하진의 숙소로 향했다.

선과 함께 싸운 동북항일연군

4일 쯤의 일정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 송강하진에서 통화로 다시 돌아와 양정우 능원과 동북항일연군기념관을 찾았다. 양정우는 동북인민혁명군의 중국인 열사로 중국인들에게 항일운동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인물이다. 동북항일연군은 30년대에 중국공산당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과 연합하여 결성한 항일



▲ 동북항일연군의 대장이었던 양정우의 묘소를 성역화한 양정우능원

운동단체로 북동지방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양정우능원은 개장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고 동북항일연군기념관만 관람했다. 보면서 중국인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일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항일 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했구나하고 생각했다. 한때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민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해 보니 기념관 안에서 절로 경건해졌다.

기념관을 관람한 후 베이징(北京)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선양(瀋陽)시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만주족 자치 신빈현에 위치한 청조 영릉에 들렀다. 청영릉은 청의 시조 누르하치의 6대조 조상까지 모셔놓은 거대한 능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일정에 없던 것이라 교수님만 들어가셔서 둘러보고 오셨다. 신빈현을 지나서 또 몇 시간이 걸려 마침내 선양에 도착했다.

선양은 지금까지 본 도시들 중에 가장 큰 도시였다. 이곳에서 베이징행 기차를 탔다. 중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기차에는 보통 침대칸이 있다. 6인실과 4인실로 구분되는데 6인실은 조금 부유한 중국사람, 4인실은 당 간부나 해외여행사에서 주로 사용한다. 보통 중국사람들은 좌석에 앉아서 가거나 심지어 서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것을 들으니 우리가 정말 편하게 여행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9시에 출발한 기차는 밤새도록 달려 다음날 아침 7시경 도착할 예정이었다. 침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차에서의 밤을 보냈다.

5일 이덕남 여사와 함께 베이징의 자취를 찾아

7시 30분에 기차가 멈추고 드디어 베이징(北京)역에 도착하였다. 베이징에서 새로운 가이드를 만난 후 이동하였다. 이동하며 본 베이징시의 모습은 정말 서울과 흡사하였다. 중국이 이렇게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13억의 가장 많은 인구에 세계에서 3번째로 땅이 넓은 국가인 중국. 이러한 타고난 발전 조건을 갖춘 나라가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 아래 세대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로 테마관광을 오고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종속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베이징에 온 우리에게 한가지 희소식이 있었다. 바로 베이징에 거주하시는 단재 선생의 며느님이신 이덕남 여사께서 진스팡지예를 직접 안내하고 설명해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이덕남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유명언론의 기자들조차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여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단번에 승낙하셨다고 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이 힘써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여사님의 생각인 것이다.

진스팡지예에 들르기 전에 먼저 베이징대를 답사했다. 13억 인구 중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는 곳. 정말 대단한 대학이다. 베이징대는 근처의 경관과는 판이하게 고층 건물이 거의 없었다. 건물 하나하나가 다 문화재처럼 아담하고



▲ 단재 신재호 선생이 신혼생활을 하고 집필활동을 벌였던 베이징의 후통

수려한 경관을 뿔뿔히 찢었다. 베이징대를 답사한 후 우리는 단재 선생께서 신혼 생활을 하셨던 진스팡지로 갔다. 현재 진스팡지에는 과거의 골목이 우거진 아담한 마을이 아닌 대규모의 금융 중심지로 변모해 있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개발을 하면서 주변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때문에 전에 탐사를 오셨던 선생님조차 위치를 모르셨는데 다행히도 여사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셔서 잘 찾을 수 있었다. 진스팡지를 찾은 후 바로 옆에 있는 보타암에도 가보기로 했다.

보타암은 단재 선생이 베이징에 계실 때 기거했던 곳이다. 보타암 추정지는 나선형의 골목이 둘러싼 마을 주변이었다. 워낙 미로 같아서 한참을 찾아다녔다. 이왕 온김에 다른 운동가분의 고택도 둘러보려고 했지만 위치를 찾지 못했다.

진스팡지를 떠나 고루로 향했다. 고루에 도착하고 여사님은 택으로 돌아

가셨다. 고루는 25개의 북을 위치시켜놓은 누각으로 아침이 되면 북소리로 아침을 알린다. 그 옆에는 종루가 있는데 종루에서 치는 종은 저녁을 알린다. 고루는 단재 선생께서 천고라는 잡지를 발행할 때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곳이다. 고루에 올라가보니 정말 베이징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지금은 고층 건물로 가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계북을 쳤을 것이다. 그 때문에 아편전쟁 당시 연합군이 북을 찢어버렸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인들은 찢어진 북을 보면서 제국주의의 침략을 상기하고 있다. 치욕스런 과거라도 제대로 기억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역할일 것이다. 단재 선생도 이런 맥락에서 역사를 강조하셨을 것이다.

고루를 떠나 우리는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만리장성으로 갔다. 만리장성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성곽이다. 길이가 5,000여km, 가이드의 말로는 그 성을 쌓는데 벽돌 한 장에 사람 한 명씩 죽어나갔다고 하니 이것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이 정도로 지독하게 성을 쌓을 정도면 당시 북방유목민족에 대한 한족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도 상상이 간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만리장성은 세계7대 불가사의에 오르면서 중국의 대표적 건축물이 되었다. 나는 무리하지 않고 4번째 봉화대까지만 올라갔다. 그것을 오르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다. 만리장성 종주는 극한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도전해 볼만 하다. 만리장성에서 내려온 뒤 식사를 하고 숙소로 갔다.

6일 천안문 자금성의 위엄에 놀라다

어느 새 중국 역사 탐방의 마지막 날이 왔다. 짐을 챙기고 호텔을 나와 베이징 시의 가장 큰 광장인 천안문광장으로 갔다. 천안문광장은 문화대혁명 때 천안문사태로 유명해진 곳이다.



▲ 추운 날씨에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자금성의 태화전

천안문광장을 중심으로 북쪽에 자금성, 남쪽에 마오쩌둥기념관과 혁명영웅기념비, 서쪽으로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격인 인민대회당, 동쪽으로는 중국 역사박물관이 있다. 천안문은 가로 880m, 세로 500m의 거대한 광장으로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광장이 워낙 트인데다가 우리가 방문한 날

의 날씨가 유독 추운 날이어서 장갑을 끼도 손이 시리고 모자를 써도 머리가 차가웠다. 입은 부르트고 다물어지지 않았다. 체감온도는 정말 백두산보다 추웠다. 추워서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자금성으로 들어갔다.

자금성은 규모부터 상상을 초월했다. 말그대로 하늘같은 황제가 사는 곳. 갓 태어난 아이가 하루에 방 하나씩 옮기면서 자면 27살이 되어서야 모든 방에서 잘 수 있다니 더 이상의 설명이 무색할 만큼 거대했다. 자금성은 남북 순서로 우문-태화문-태화전-중화전-보화전-건청궁-교태전-곤녕궁-이화원식으로 되어 있고, 문동무서라 하여 동쪽에 문화전, 서쪽에 무영전 등이 자리잡고 있다. 건물은 주로 자색으로 되어 있다. 자색은 황제의 색이다. 하늘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규모의 자신감이라면 당시 중국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대문격인 우문을 지나 태화문을 지나면 태화전이 나온다. 태화전은 황제가 일을 하던 곳으로 우문이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다면 태화문, 태화전, 중화전은 흙의 형상을 한다. 태화전에는 나무가 없는데 이는 나무가 흙을 먹기 때문에 흙을 상징하는 태화전에 들이지 않는 게 첫째 이유고, 황제가 주된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 나무를 심으면 자객이 숨을 수 있다는 게 둘째 이유라 하였다.

태화전을 지나면 황제의 휴식처였던 중화전이 나온다. 이곳에서 신하들과 면담을 했다고 한다. 그 뒤에 있는 보화전은 행사를 치르던 곳이었다. 이제 외궁을 지나 내궁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황제의 침실이었던 건청궁이었다. 건청궁 27개 침실에는 자객을 혼란스럽게 하기위해 각 방에 모두 황제의 신발을 놓았다 하니 황제도 여간 어려운 노릇이 아닌 것 같았다.

건청궁을 지나면 황후가 머물던 교태전이 나온다. 그 뒤의 서난각은 제를 올리고 동난각은 황제와 황후가 신방을 차리던 곳이었다. 곤녕궁까지 지나면 딱딱한 벽돌만 있던 풍경이 사라지고 식물원처럼 나무가 우거진 곳이 등장한다.

자금성의 후원인 이화원인데 이곳에서 적게는 3,000명 많게는 1만 명의 궁녀들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태를 부리던 곳이라 한다. 황제의 데이트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이화원을 지나니 드디어 출구인 신무문이 보였다. 2시간여의 자금성 관람이 끝난 것이다.

자금성은 너무 넓은데다가 날씨까지 추웠다. 가이드의 설명을 이를 악물고 들었다. 어찌되었든 6일간의 탐방 일정이 끝난 것이다. 식사를 한 후 베이징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그 후/ 세계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자

6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했다. 역시나 한국은 따뜻했다. 해외로 나가보면 정말 고향 생각, 집 생각이 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버스를 타고 청주로 가면서 팀원들과 여행후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내가 느낀 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여러 우리나라 유적들을 탐사하면서 책으로만 보던 것을 몸으로 느끼니 더 잘 이해가 되었고, 새로운 느낌이었다.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다.

둘째는,

중국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 앞서서도 서술했지만 정말 우리부터 정신차리지 않으면 중국은 물론이고 치열한 세계화에 도태되어 험한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힘껏 키워 놓은 이 나라를 우리 세대에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한국 내에서만이 아닌 좀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단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나서는 이 탐사에서 단순히 단재 선생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생긴 듯한 기분이다. 한 번의 탐사가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여행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우리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적인 여행을 했다고 집행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다.

다음에도 계속 알찬 여행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재의 발자취를 쫓아간 나의 첫걸음

신 희 관 (청석고2, 제1회 단재청소년글짓기대회 고등부 단재상 수상)

단재가 행했던 민족과 나라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본받고 기리기 위해 떠났던 이번 답사는 내게 그 이상의 의미였다. 조국의 밖에서 놀랍게도 더 큰 조국의 품과 가능성을 찾아간 여행이었고, 한반도의 반(半)에서 분립하는 민족을 벗어나 화합했던 기억을 간직한 웅장한 민족을 학습하는 것이었으며, 대륙에 광활하게 뻗어서 용맹한 기상을 떨치던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번 '경험'은 내 배움의 인생 18년을 통틀어 배운 것보다도 더욱 많이 배우고,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이번 여정을 전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은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래서 이

번 답사가 내게 무척이나 소중하다. 후에 더 많은 후배들 혹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행운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쓴다.

대륙 위 단재의 발자취 앞에 서다

중국은 한반도와 가깝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여행 경비가 저렴하여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녀갔을 것이다. 그리하여 개개인마다 배우고 즐기고 깨달은 것이 있을 테다. 하지만 단언컨대, 학생으로서 이번 답사처럼 국민다운 국민이 되게 하는 여정은 없다고 생각한다. 눈이 스치는 곳마다 배움이었고, 느끼는 것마다 강한 울림이었다. 단재의 발자취를 따라나선 답사였지만, 단재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나아가는 대륙에서의 행보는 다른 목적의 탐방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놀랍게도 단재 선생님의 발자취 위에서는 단재 선생님뿐만 아니라 세계 강대국 중국을 마주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참여할 의지와 용기가 샘솟았다.

아직 전문도 좁고 경험도 많이 해보지 못한 학생으로서 감히 이러한 것들을 논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전문도 좁고 경험도 많이 해보지 못한 학생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눈에는 느껴지지 않는 시시콜콜한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흐르고, 어른들은 감흥 없이 지나치는 지식들이 우리에게만 가슴 벅찬 놀라움으로 전해져 길이길이 새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회는 필히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입시경쟁에 치여 교과서나 인터

넷, 동영상 강의로만 역사와 세상을 접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아는 우리 학생들은 사실, 아는 것이 없는 것임을 이번 여정으로 알게 되었다.

보다 큰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당장의 공부에 급급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가슴 벅찬 진통과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는 문제점이 다 사상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배우는 지식의 질과 양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더 중요하다.

단체 선생님께서 민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괴로워할 때, 을지문덕이나 이태리 삼걸전과 같은 위인전을 쓰신 이유도 국민들에게 의지와 자극을 주기 위함이었다. 의지나 자극 같이 모호하고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정신적인 것들이 결국은 핏박받는 민족이 광복을 이뤄내기까지 견뎌내게 하는 굳은 신념이었으며 결국에는 광복을 이뤄낼 수 있게 한 사상이었다.

이렇듯 배우는 학생이나 교육하는 어른들에게는 개개인마다의 목표와 사상이 필요하다. 단체 답사에서는 단체 선생님과 우리 근대사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함께 가슴 벅찬 의지와 삶의 목적을 함께 키울수 있었다. 다롄(大連), 뤼순(旅順)감옥, 통화(通化)시의 양정우능원, 국내성 터, 압록강을 건학하며 아무렇게나 중국에 의해서 조작되고 얼룩지는 고구려사와 유적을 실제로 듣고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북방의 추운 날씨와 그 힘들고 황량한 타향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을 보고 배우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의지를 가졌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독립운동가 및 민족의 후손으로서 민족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삶의 목표를 설정했다. 즉 단재의 발자취가 곧 독립운동의 치절한 한 걸음 한 걸음이고, 웅장한 조국의 옛 고향을 찾아 눈보라를 헤쳐나간 고난인 것이기에 학생일지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해보고 이를 위한 꿈을 꾸어보는 시간이 된 것이다.



▲ ① 답사단이 신채호, 안중근, 이회영 등의 우국지사들이 수감됐던 뤼순감옥을 둘러보고 있다. ② 뤼순감옥에 있는 안내판에 뤼순감옥의 국제전사들에 대한 특별전이 열린다고 소개돼 있다. ③ 답사는 신채호 선생이 불꽃같은 삶을 마감한 다롄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다롄공항.

단재 답사가 이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살아 있는 단재 선생님을 덕분이다. 각자 자신의 직업이 있는 분들이 단재 선생님을 포함한 민족 열사들과 옛 역사를 알려주고자 참여하셔서 본인들이 오직 단재 선생님과 같은 열정과 마음으로 동행하시며 학생들을 보살피 주셨다. 단재선생님의 뜻을 전해주고 배움의 길을 폭넓게 터 주셨다. 오히려 단재 선생님과 같은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을 키우고 이어가고자 하는 이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단재 선생님보다도 위대한 것 같다.

특히 김성운 감독님이 기억에 남는다. 여행이 편하고 유쾌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게 앞장서셨다. 우리가 이번 답사에서 주체적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게 많이 자극해 주시기도 하셨다. 넓은 대륙을 이동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수동적으로 변하기 쉬운 일정이었지만 감독님께서서는 우리가 되도록 즐기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알아가기를 바라셨다. 학생 일동 모두가 선생님의 배려 덕분에 더욱 성숙한 답사가 될 수 있었다. 학교와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교수님과 감독님, 많은 선생님과 다른 학교 친구들을 포함한 좋은 인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 깊다.

광활하고 웅장했던 옛 기억을 찾아

베이징에서 단재 선생님의 떠남을 모시고 이동하던 중에 단재님의 고구려 유

적 및 백두산을 답사 일화를 잠깐 듣게 되었다. 며느리 이덕남 여사께서 허원 교수님과 그 때의 일화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교과서나 다른 도서에도 찾을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라 바로 노트를 꺼내 뒷좌석에서 받아 적었다.

며느님에 따르면 예전에 단재 선생님께서는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고 민족 영산인 백두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백두산 등정을 결행하셨다고 한다. 당시에는 곰이나 호랑이 같은 짐승들이 많아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험한 길이어서 사람들을 한 달 전부터 모아서 오르셨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가는 길에 수레를 얻어 타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야 했다고 한다. 며느님을 뵈게 된 것이 답사 5일째로, 이미 고구려 유적 답사와 백두산 답사는 답사 2,3일째에 마친 상태였다.

유적을 답사하던 당시에는 북방의 추운 기후와 눈과 광활한 이동거리에 잠깐 힘들어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 나로서는 단재 선생님의 우리 역사를 향한 탐구심과 의지에 경외감을 느꼈다. 예전에는 잘 뚫린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차량과 같은 교통수단도 없었을 텐데 우리 역사상 가장 광활했던 고구려를 답사하고자 한 단재 선생님이 새삼 존경스러웠다.

고구려 유적 답사는 앞서 말했듯이 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로운 답사는 아니었다. 압록강 강변을 따라 지안(集安)으로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점심 때에 국내 성터에 도착하여 장수왕릉(옛이름 장군총)과 광개토대왕비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어둑어둑하고 석탄재 섞인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어진다. 이 지역에서는 석탄이 많아 석탄으로 난방을 해서 저녁 무렵에는 석탄 냄새와 매연이 자욱하게 가라앉는다.



▲ 광개토대왕비는 동북공정 이후 보호각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떠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눈에 담으면서 학습하여 자극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고구려 유적의 웅장함과 우리 민족의 기개를 느끼기보다는 찬란한 옛 과거가 얼룩져가는 현실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중국 정부에서는 광개토대왕비와 장수왕릉 지역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이곳을 정비하였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다.

호태왕비(광개토대왕비)에는 누각이 씌워져 있는데, 현지 경비원들이 누각 안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어떠한 자료도 기록하는 것을 용인해주지 않았다. 또 동북공정 문제를 비롯하여 한국과 중국 정부가 마찰이 있었던 관계로 장수왕릉 석실의 출입도 금하고 있었다.

조선족 3세인 가이드 주용 선생님에 따르면 고구려 유적지가 분포하는 지안에서 한글로 적혀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고구려 역사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을 펼치고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중국 정부에 붙잡혀 심문을 받고, 가이드의 경우에는 영원히 지안에서 추방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면서, 우리 민족과 고구려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세계 강대국 중국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면서도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어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픈 어린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더욱 비통할 일들은 고구려 유적 답사에 서는 흔했다. 우선 국내성 터가 매우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 이곳이 국내 성터인 줄 모를 시절에는 성터에 있는 돌들을 건축자재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성안에는 상가들과 거주시설들이 많았는데 이런 건물들과 도로 사이에도 옛 성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이는 돌 벽이나 기둥 따위가 보였다.

고구려 유적을 처음 접하는 학생인 내가 보기에 명백히 고구려 유적과 같이 보이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건물로 인해 침범당하고 파괴되어 있었다. 이 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전되어 있었을까.



▲ 국내성은 성곽이 일부 남아있음에도 도시개발로 훼손됐다.

또 장수왕릉을 사방에서 받치고 있는 약 10여 톤의 큰 받침돌 중 하나를 최근 도둑맞았다고 한다. 그 돌을 어떻게 남몰래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기 까지하다. 고구려 유적 중에 동양의 피라미드라 부르는 장수왕릉이나 후자는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규모가 큰 유적들은 모두 중국 정부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유적 'AAAA' 등급이 매겨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찜찜하고 썩 기쁜 일은 아니었다. 이제 와 어찌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이긴 해도 번영했던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나와 같은 학생들이 분발하여 더욱 눈부신 문화와 경제의 조국을 일궈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

한반도의 반(半)을 마주하며

첫째 날 인천에서 출발하여 다롄시에 도착한 뒤 뤼순을 답사한 후에 줄곧 달

려 밤이 돼서야 신의주를 마주하고 있는 단둥시에 도착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을 볼 생각으로 설레었지만 당일날과 심지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단둥에서는 그 가까운 신의주를 육안으로 볼 수 없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휘황찬란한 단둥의 네온사인만 번쩍였을 뿐, 저 건너편 안개에 싸인 신의주는 어두움 그 자체였다.

가이드 주용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현지 중국인이 북한을 들어가는 것은 의외로 매우 쉽다고 한다. 중국의 국적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따위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 정도는 여행하듯이 쉽게 다녀올 수 있다. 그래서인지 김정일이 건너 오는 단둥의 철교 및 압록강 강변에서는 현지 중국인이 북한의 화폐를 팔고 있었다. 답사 2일째까지 압록강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화폐보다도 더 선명한 북한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하얗게 눈 내린 벌판과 높다란 산 밑에는 몇 안 되는 초가집이 있었고 인적이 뜸하고 생기 없어 보였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크고 어지럽게 지어져 있는 건물들과 대조되어 더욱 처량해보였다. 내가 본 북한을 묘사하자면 이것이 전부이지만 내게 있어서 압록강과 북녘 땅은 어떤 볼거리보다 더욱 눈길이 오래가고 온갖 정서를 갖게 했다. 거의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압록강변을 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동했으면서도 국내성 터에서 본 압록강과 단둥에서 본 압록강과 버스에서 타고 도로에서 본 모든 압록강의 모습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색다른 모습이었고 귀한 모습이었다. 그 너머에 있는 한반도 북녘의 땅은 말할 것도 없이 압록강만큼이나 오묘한 기분을 갖게 했다. 돌아와 카메라를 보니 다른 어떤 사진보다도 압록강과 그 너머 북녘 땅에 대한 사진이 꽤 많았다. 작은



▲ 압록강 변에서 바라본 북녘 땅.

화면에 담긴 모습은 보잘 것 없는 평범함 그 자체였지만 그 당시 내가 얼마나 그 광경에 몰입했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앞서 묘사했던 것처럼 한반도 북녘 땅의 모습과 압록강은 평범하다면 매우 평범한 모습이다. 하지만 TV로, 뉴스로, 교과서로 보아와 내 속에 쌓여있던 북한에 대한 막연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이했다. 매체들로 접했던 북녘의 모습은 한반도의 반쪽이 아니라, 민족의 반쪽이 아니라 이상한 무엇이었다.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마찬가지로만 여겨졌었다. 그런데 마주하고 보니, 착잡하고 애착이 갔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신기함도 느껴지고 이따금씩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는 무언가 해주고 싶고 말 한마디 나누고도 싶었다. 서

로 통할 순 없어도, TV로 볼 때 처럼 막연한 것은 마찬가지로이긴 해도, 눈에 담기는 그 큰 북녘 땅과 압록 땅과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가족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한민족, 한민족이라더니 정말 한 민족인가 보다.

아무래도 옛 고구려의 땅 위에서 봐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 그리고 피 흘리며 한 나라를 위해 죽어간 독립열사들의 흔적 위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북쪽이라 더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위임통치와 분리 선거를 주장했던 이승만의 발자취가 아닌 붉은 한 생애를 오롯이 한민족을 위해 바친 단재의 발자취 위에서 바라보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답사하는 동안 연평도 해전에 대한 뉴스가 현지 중국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것처럼. 지금은 한 민족이 두 국가가 되어 힘을 겨루고 있지만 이것이 통일을 모색하는 긴 과정 중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목하는 것을 별 것 아닌 것처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마냥 햇볕을 쬐어주는 것도 안 되고 마냥 싸울 수도 없다. 이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조선족, 아니 우린 한민족

이번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몰랐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

도 스스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깨달음은 조선족에 대한 것이다. 나는 조선족들이 우리 역사와 한글을 배우며 뿌리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라고 한다. 한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요즘 조선족들은 한국과 자신들의 연관성을 예전만큼은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고 물으면 조선 사람이라고 답했다면, 요즘에는 중국 사람이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조선족 3세 가이드인 주용 선생님에 따르면,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나서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 변방의 소수 민족 역사로 편입되어 상당히 축소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역사 교육에서부터 뺏치는 세심한 접근과 우리 정부의 무관심이 젊은 조선족들에게 '나는 중국인이다'라는 대답을 하게 한다고 주용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

중국에 분포하는 소수민족 중에 티베트나 조선족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티베트는 해외에 망명정부가 있고 조선족은 그 뿌리와 역사가 한국에 있으므로 최근에 와서 중국 정부에서 더 신경을 쓴다고한다. 허원 교수님과 주용 선생님이 말씀 해주시기를 예전에는 조선족 자치의 고위 담당자들이 조선족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한족 사람들을 많이 배정하고 자치주 내에서도 한족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다가 문화를 잃고 흡수된 것처럼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곧 많은 한족들에게 섞여서 뿌리를 잃고 동화될 것 같다.

사실 그 곳에 사는 분들로서 동화되는것이 더 유익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선족의 대부분이 일제강점 아래서 핍박을 피해오거나 독립운동을 하러 오셨던 분들의 후손들이다. 민족의 측면이나, 광복을 위해 힘쓰셨던 분들의 후손으로서 측면을 보았을 때 나라가 어떤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다.

친일과 문제는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은폐되어 그 후손들이 덕을 입고 있고, 반대로 민족열사들의 후손들이나 그 분들의 이름이 제대로 빛나고 있지 않는 면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있는 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압력 때문에 힘들다면 이 분들을 조국으로 들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을 알아보니 이 분들이 조국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 역시 주용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조선족으로서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족들이 탈북자로 위장하여 남한에 들어가는 것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오면 집도 주고 일자리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조선족들이 이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한다.

주용 선생님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여럿 있어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남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짜 탈북한 사람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서 탄로가 나 대부분 실패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조금씩이라도 점점 그분들을 조국의 품으로 들이는 것이 올

바르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조국을 잊게 되어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

거대한 중국은 50여 개의 그 많은 민족들을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족, 고려족을 포함한 해외 동포들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통합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비통하다. 8도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움을 벌이고 대립하는데, 하기는 해외동포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각종 출신과 지역을 따지는 사회풍조는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재중동포라고 부릅시다”

나는 정치와 민족을 지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장남에 가까운 학생이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다. 단재 선생을 비롯한 옛 민족열사들은 구국이라는 절대적 목표 아래 화합하시다가도 대립, 비판, 투쟁을 불사하셨지만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는 민족의 실리 혹은 절대적 사상이나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즉 사회 전체를 위한 절대적 목표가 없다. 나라를 이끌 사상적 대립이 아니라 이익 대 이익의 대립이다. 방송 매체에서 지도자들이 자기 지역 출신, 자기 학벌 출신들을 챙기는 것을 보도해도 어떤 파장도 없다. 왜냐하면 공공연한 사실로 국민들이 이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무감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지역주의를 어떻게 용납하고 있는가.

하여튼 국내에서도 여력이 없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해외 동포들을 위해 조국과의 연결을 유지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규모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들 중에도 신경 쓸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조선족의 명칭 문제가 있다. 베이징에서 만난 조선족 2세 가이드인 전봉웅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조선족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재일동포, 재미동포 부르듯이 우리를 재중 동포라고 부르세요.” 맞는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의 단일한 민족이라는 뜻에서 한민족이라고 부르면서, 재중동포에게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이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닌 현대에 와서는 존재하지 않는 소수민족이 되어 버린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명명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다. 이분들에게는 우리끼리 한민족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테다. 교과서와 방송매체를 통해서 조선족이 아닌 재중동포로 이름을 달리하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재중동포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중도포 및 해외의 동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중국을 답사하면서 단재 선생님의 정신적인 발자취들을 답는 데에는 나름대로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단재 선생 생전에 세상에 찍혀진 발자국들은 매우 희미해졌다. 답사 1일째에 찾아갔던 뤼순감옥은 잘 보관되어 있었던 편이지만 뤼순의 단재 선생 화장터나 베이징의 단재 선생이 집필하시고 신혼 생활을 하셨던 진스팡지에, 차오떠우와 같은 후퉁(거리)은 없어지거나 아주 일부만 남아있었다. 베이징에서도 작년까지는 단재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하나 올해 우리

가 답사했을 때에는 큰 증권회사가 서 있거나 재개발이 되어 없어져 있었다. 뤼순 감옥에서 조금 떨어진 단재 선생님의 화장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고층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세계 강대국으로서 워낙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옛 모습을 찾기란 힘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독립열사의 흔적과 후진국으로서 중국의 옛 모습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웅장한 역사의 중국 문화까지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답사 5일과 6일 베이징에서는 자금성과 만리장성, 베이징대를 견학하는 등 급변하는 현대의 중국 속에서 더욱 멋지게 빛나는 전통을 볼 수 있었다.

베이징대는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세계 유명한 대학으로 최근에는 바로 부근에 위치한 칭화대(淸華大)에게 추격당하고 있다. 이미 몇몇 학과에서는 추월당했다고하나, 어찌하였든 두 대학 모두 인재들이 모이는 명문대이다. 학생 두 명의 안내를 받아 베이징대를 견학하였는데, 예전 중국의 고궁의 흔적이 남아있어



▲ 천안문 광장에서 답사단원들과 함께(오른쪽에서 두번째)

굉장히 멋스럽다. 만리장성과 자금성도 마찬가지로 멋스러웠다. 중국의 거의 모든 게 그렇듯이, 일단 그 규모에 놀란다. 우리의 경복궁과 화성의 아름다움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다. 엄청난 위세와 크기에 압도당했다. 천안문 광장을 포함해서 볼거리만큼은 정말 많은 곳이었다.

이런 유명한 곳들도 볼만했지만, 중국에서 들른 도시 하나하나와 들은 것들 모두 변화하는 중국을 마주할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 다롄에서는 중국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중국은 내륙이 워낙 넓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를 못보고 죽는 중국 사람들도 많고, 해산물도 굉장히 비싼 편이다. 처음 우리가 들렀던 다롄 지역은 삼면이 바다인 랴오둥 반도에 위치하여 중국에서도 특색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다롄은 러시아와 일본이 차례로 점령했던 도시로 중국 근대의 산업을 이끌었었다. 철도가 잘 나 있다. 산을 깎아서 만든 도시라서 다른 중국에서처럼 자전거가 흔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국인인 나의 기준에는 그래도 많은 자전거를 볼 수 있었다. 버스 차창 너머로 이따금씩 한무리의 자전거가 지나갔으니 말이다.

뤄순은 원래 다롄과 하나의 도시였는데 최근 분리되었다고 한다. 단둥은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고 관광객들도 있는 편이라서 호텔과 식당이 굉장히 밀집해 있다. 단둥의 밤은 정말 휘황찬란했다. 국내성 터가 있는 지안(集安)은 단둥이나 다롄, 선양에 비해서는 낙후되어 있는 곳이다. 지안성은 단둥, 다롄, 송강하, 통화와 함께 중국의 동북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재중동포들을 간간히 만나 볼 수 있다.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도 있어서 된장찌개와 김치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다.

백두산 아래에 있는 송강하 지역의 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중국의 물기를 만나볼 수 있었다. 중국의 오기 전에는 조금의 돈만 쓰면 굉장히 많은 것을 사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나 중국의 물기는 예상 외로 굉장히 비싸다. 전 봉용 베이징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중국인 스스로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중국 물가라고 한다. 그런데 송강하에서는 물가가 싼 편이었다. 한국에서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중소도시에서 시골로 들어갈수록 물이나, 작은 소매물품의 물가가 비싸지는데 중국은 반대였다. 물이나 과자, 식료품 등의 소매물품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송강하에서 물은 1위안으로 200원 정도이다. 반대로 베이징에서는 더 작은 물이 5배 가격인 5위안 1,000원에 팔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동북지역이 낙후되고 사람도 없는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규모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다렌은 중국에서 중소도시에 분류되는데 인구 600만으로 우리나라 여느 광역시보다 크다. 또 웬만한 중국 도시의 건물들은 상당히 크고 높다. 동북지역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이동하기 위해 선양에 들렀



▲ 추운 겨울 백두산을 스노우모빌로 오른 이번 중국담사는 우리들에게 각별한 경험이었다.

는데, 선양은 우리가 들른 동북지역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교통난이 서울보다 심하다. 거기다가 중국인들은 역주행부터 끼어들기 등 교통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혼잡했다. 베이징은 듣고 알아왔던 대로 정말 세계적인 도시였다.

햇불 같은 삶을 사신 단재

단재 선생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뒷산에 묻히지 않고 화장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수감 당시에도 보석을 해주겠다는 것을 친일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굳이 수감되신 분이다. 또 어떤 것에도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며 세안도 허리를 곧추세우고 하셨던 단재 선생은 이미 남파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보낸 분이다. 죽음을 불사하는 그분의 숭고한 그 정신을 깊이 좇아야 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차디찬 감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단명하신 그분의 생애를 생각하면 소중한 지도자를 너무 일찍이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단재 선생의 생애를 살펴보면 단재 선생의 강경한 진보적 태도는 단 하나도 민족에 보탬이 되지 않은 것이 없고 죽음을 불사하는 그 태도야말로 어둠에 갇힌 민족을 위한 희생의 촛불이었다.

짧은 생애로 민족을 비추셨던 그분께 잘 어울리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분에게는 촛불보다 햇불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짧은 생애였지만 누

구보다 존경스러운 그 인생은 강렬하게 남아 후세에도 귀감이 되어 길이길이 이어질 행적이었다.

적어도 우리 답사단은 그 정신을 이해하고자 이 길을 걸었으니 햇불을 이어받
고자 이 길을 걸은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번 답사를 통해 이해한 단재
선생님은 이렇다.

깡도를 뚫는데 있어 아무리 많은 폭죽도 다이내마이트를 대신할 수 없듯이 단
재 선생은 우리 민족에게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구국을 위한
자신의 신념에 반대되거나 때가 낀 것이 있다면 극에 다다른 강경한 입장을 보
이셨던 신채호 선생. 강경한 결단을 내리는 신채호 선생은 위기를 향하여 내달
는 민족의 행보에 스스로 경종이 되어 울었다. 기울어지는 구국의 운명에 스스
로 가장 먼 곳에 자리 잡은 외로운 무게 추가 되어 중심을 잡아주셨다.

위임 통치를 건의한 이승만이 수장으로 있었던 임시정부 시절, 정부 조직에 회
의를 느껴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며 임시정부를 떠나셨던 단재 선생의 결정은 '이
승만의 임정'을 와해하는 분위기에 일조하여 그 후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이 임정
을 탈퇴하여 후에 새로운 임정이 세워지는데 공헌하였다. 그 분이 저 멀리까지
혼자 떨어져 앉은 무게 추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다른 민족열사들은 정신을 차
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초강경적인 노선만을 고집하셨던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와 민
주주의와의 갈등이 구국 운동의 큰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 조화를 이뤄내는 단체

인 신간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셔서 민족의 역량을 끌어올리셨던 경력도 있다. 역사에서 주목받는 김구 선생님과 같은 많은 애국지사들이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신채호 선생의 죽음과 고립을 불사하는 강경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고집불통의 완고한 비타협주의자도 아니다. 광복이라는 절대적 이상을 향한 굳은 신념을 간직한 선비였다. 내게 있어 그 신념이 고집불통이나 완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은 모두 광복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 분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타협하셨고, 다른 사상의 사람들과도 함께 고심할 줄 아는 그런 분이였다. 현대에 와서도 그런 태도는 필요하다.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다른 구성원들을 위한 그런 신념은 모두가 가져야 한다.

단재의 발자취 속에서 단재를 찾는 이번 여정에서 나는 단재 선생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다. 눈으로 마주한 것보다도 더욱 선명하게 그 분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책장을 넘기며 알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나침반이 되어줄 참된 단재 선생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모셔진 단재 선생은 단 한 분의 민족 열사가 아니다. 황소고집의 사상가도 아니다. 여러 애국지사 분들의 가르침과 그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과 의지이다.

마음으로 단재를 만나다

단지 자기중심적인 협소한 사랑이 아니다. 김구 선생께서 우리나라가 번영하여 세계문화를 꽃피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번영이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하는 그런 번영이다. 금방 타 버릴 촛불 같은 의지가 아니라 후세에 넘겨줄 횃불같은 의지를 가졌다.

후에 꼭 큰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횃불을 나눠주고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게 나라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그저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갖고 싶었던 무지한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이런 큰 일들을 입에 담을 수 있게 한 용기는 이번 답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이고, 그 분들이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재중동포 3세 가이드 주용 선생님을 통해 비로소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다. 그저 멋진 가이드와 정을 쌓았을 뿐이지만, 그 분을 뵈는 것만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 따뜻한 정과 인연을 잊지 못해 나중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해외에 뿔쳐있는 동포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허원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동행한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 많은 것을 듣고 훌륭한 설명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느껴지는 그 분들의 열의는 단재 선생님 못지않은 민족을 향한 사랑이었다.



▲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의 베이징 답사를 안내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님. 얼마 전 집에 침입한 정신이상자가 사다리로 복부를 가격해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신 상태에서 학생 들이 온다는 말에 따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러 나오셨다. 게다가 위암을 겪었고 연세도 많으셔서 더욱더 힘든 상태였음에도 추운 날씨를 견디셨다. 그 분이 말씀해주시는 단재 선생의 일화와 사건에서 단재 선생 못지않은 역사 지식의 깊이와 애족적인 가치관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여행을 떠날 때에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를 만났다고 좋아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좋은 경험을 자주하게 될 것 같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고, 좋은 취지로 떠난 이번 답사가 나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생각의 폭도 넓혀주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공부가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지만, 반대로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 열심히 하여 남에게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겠다.

역사교사 꿈꾸는 고교생 첫 번째 꿈을 이루다

민 경 갑 (운호고2, 제5회 단재역사퀴즈대회 단재상 수상)

대한민국이 일제강점 아래 놓여있던 1936년 2월 21일 새벽 4시. 독립투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명 높았던 감옥 중 하나인 '휘순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제와 맞서 싸운 위대한 '민족의 큰 스승' 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위대한 스승의 성함은 '단재 신채호' 언론인, 역사학자, 문학인, 사상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오로지 '민족과 국가의 독립'을 위해 죽는 그 순간까지 일제와 의 끝없는 '투쟁의 길'을 걸어오신 분께서 해방된 조국이 아닌 이국의 차디찬 감방의 시멘트 바닥에서 뇌졸중으로 숨을 거두신 것이다.

일제의 식민사관에 저항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역사 속의 영

응들이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쓰셨고, 만주에 흠어져 있는 고구려의 유적들을 몸소 답사하며 고구려와 발해, 나아가 고조선의 역사까지 한 민족의 고대사를 연구하셨다.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시던 ‘아나키스트’이자 글 하나로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신 선생께서는 항일운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이셨지만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박사가 거론되자 단재께서는 미국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그를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그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라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셨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탈퇴하신 뒤 임시정부의 활동을 비판하는 ‘신대한’이라는 신문을 만드셨으나 임시정부 추종자들의 방해 공작을 받으셨다. 이 때 생긴 이승만과의 악연은 단재께서 돌아가신 뒤인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까지 이어졌는데,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정부가 단재의 고대사 연구 관련 자료와 저서들은 단재가 생전에 ‘무정부주의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보는 것조차 금지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길에 오른 대부분의 독립투사들이 국적을 회복한 상황 속에서도 단재 선생님의 국적은 2009년에서야 겨우 회복될 수 있었다. 이것보다 더욱 더 심한 것은 단재의 숭고한 정신이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의 수모는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단재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는 단재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선생의 정신을 잇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바로 ‘단재 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이다.

‘단체문화예술제전’의 식전 행사이자 최근 4회째인 ‘단체역사퀴즈대회’에 3번째로 참가한 나에게 있어서 단체는 더 이상 역사책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 평소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역사 교사를 꿈꿔온 나에게 있어서 단체 선생님은 가장 존경하는 사학자들 중 한 분이셨다. 처음으로 참가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무렵, 그러나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다음해에도 도전했으나 역시나 탈락. 그리고 어느덧 3회째 참가라 생각하니 ‘이번에도 떨어질 수는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본선, 아니, 결선까지 가자’라는 생각을 하며 대회에 참가했다.

약 400여 명의 인원 속에서 본선 진출자 100명을 OX퀴즈 형식으로 선발하는 예선전에서 우연히 만난 청석고 역사동아리 친구들과 합심(?)하여 본선을 통과하고 본선에서도 대체로 아는 문제가 출제되어 막힘없이 잘 나가던 도중, ‘조선 혁명선언’과 관련된 문제에서 결선의 문턱을 앞두고 아쉽게 떨어지고 말았다. 올해 거둔 수확은’ 본선에 진출한 것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뒤로한 채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윤리 선생님의 추천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단체해외유적 답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난생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에 놀라기도 했지만 책에서나 보던 단체 선생님의 발자취와 고구려의 유적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며 제대로 잠도 안 올 지경이었다. 그렇게 흥분되는 마음을 접어두고, 기말이 끝나고 난 12월 19일 새벽 5시. 함께 가는 친구들과 형, 누나들. 그리고 우리 일행을 이끌어주실 서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님이 시자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이신 ‘허 윈’ 교수님과 함께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외유적답사를 떠났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1시간을 날아간 끝에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다렌’이었다. 그 곳에서 만난 첫 번째 가이드인 ‘주용’ 형님은 여행을 다녀온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개그맨 이수근을 떠올리게 하는 외모와 특유의 ‘ㄹ’자 발음은 주용 형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였다. 그렇게 주용 형과 함께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뤼순감옥’을 향해 출발했다.

1880년대 청 왕조가 북쪽 해안에 포대를 건설하면서 작은 어촌에서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한 다렌시는 청일전쟁 이후 1898년, 삼국 간섭의 대상으로서 관동주(다렌, 뤼순 등)를 조차한 러시아가 동청철도의 종착역을 마련해 ‘다리니(멀다는 뜻의 러시아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뤼순에 주둔 중인 함대와 요새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파리’를 모델로 삼은 항구 도시로 성장한 다렌 내에서는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관동주 곳곳에서 러시아인을 몰아내자는 중국인들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고, 이들을 제압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1902년, 러시아는 뤼순에 형무소를 건설하고 중국인들을 가두기 시작한다. 이것이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형무소 중 하나인 뤼순감옥의 시작이었다. 나중인 1907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이 뤼순을 점령한 이후, 뤼순감옥은 러시아가 처음 지은 규모에서 지금 형태와 규모로 확장되었다.

총면적 약 26,000㎡, 275개의 다양한 감방, 2,000여 명의 죄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뤼순감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감옥의 영화 촬영팀이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랐지만 영화촬영 장소에서의 관람은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거친 후에 드디어 악명 높은 형무소의 안으로 들어 설 수 있었다.

양측 벽면으로 붙어있는 감방이 달린감옥의 내부로 들어서니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다. 여기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그랬다. 그러다 얼마 뒤 나는 역사적인 한 장소 앞에 도착했다. 바로 1909년 10월 16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께서 수감되었던 감방에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감방과는 그 모습이



▲ 안중근 의사가 수감됐던 감방. 안 의사의 의거는 국제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우도 남달랐지만 결국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사형에 처해졌다.

달랐다.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안 의사께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간수실’ 옆에 따로 감방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이 안에서 자신의 자서전과 자신의 거사 이유를 적은 그 유명한 ‘동양평화론’, 그리고 무려 100여 편 이상의 서예작품을 남기셨다니 새삼 놀랍고 존경스러웠다. 재판에 참석한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일제의 만행에 의해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못하시고 ‘사형’이 결정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신 의사의 태도에 일본인들마저도 경외감을 금치 못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욱 그런 심정이 들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신 안의사의 감방 앞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목념’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치가 떨어지는 일제의 만행

이동하면서 당시에 사용된 전화와 형벌도구, 일본인들이 자신의 신을 모시는 제단, 심지어 ‘고문실’도 보았지만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소는 역시 ‘사형집행실’이었다. 들어서기 전부터 가장 심한 위압감을 뿜어대는 사형집행실 앞에서 잠시 멈췄했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가 보았다. 답사를 오기 전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나온 사형집행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의 교수대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낡고 부서져 가는 커다란 나무통이 있었다. 잠시 설명을 듣기 위해 고개를 들어보니 교수대의 옆에 있는 유리상자

안에도 같은 통이 들어있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안에 '내용물'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나중에 그 내용물을 살펴보니 끔찍하게도 사람의 해골이 웅크린 자세로 흙먼지와 함께 들어있었다.

주용 형의 설명은 더욱 무시무시하고 잔인했다. 교수형이 집행된 사형수의 시신이 밧줄에 매달리면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무 몽둥이로 시신을 마구 때린다. 시신을 나무통 안에 웅크린 자세로 넣기 위해서 시체가 뻗뻗하게 굳기 전에 미리 두들겨 패 시체를 '부드러운'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죽은 사람에게 그런 심한 짓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 내용은 더욱 잔인했다. 시체가 담긴 통을 죄수들을 동원하여 뒷산에 암매장을 한 것이다.

다행히도 안중근 의사는 그런 몹쓸 짓을 당하지 않고 미리 짜 맞추어진 관에 온전하게 안치되었다고는 하지만 감옥 내부에 수감된 수많은 죄수들이 이런 운명을 겪어야했다는 생각을 하니 숙연해졌다.

사형집행실 다음으로 들어간 모형 전시관에서 본 사형집행 후 매장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감옥에 갇히면서 얼굴을 익혔을 죄수들이 한 사람은 사형 집행을 당한 시체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묻기 위해 동원된 신세가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 일본인들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집행실의 모습부터 이곳까지 오면서 일제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그렇게 치솟은 분노를 잠시 삭이고 마지막으로 간 곳은 중국과 한국의 단체



▲ 통 안에 구겨 넣어 암매장한 현장을 재현했다. 안에 들어있는 해골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 고문실. 당시 사용된 '형벌도구'가 그대로 전시되고 있어 웬지 모르게 무서웠다.

들이 협력해서 만든 '항일운동 국제지사기념관'이었다. 안중근 의사와 단재 신채호,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심지어는 영국과 미국, 러시아 등 아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일본군에 포로로 잡힌 이들이었는데 일제에 대항한 사람들이 아시아 외에도 이렇게나 많았다니 놀라웠다. 이들을 알기 전까지는 워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중국인이나 한국인뿐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일 운동가 전시관에서 가장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두 명의 항일 운동가들의 사연은 충격적이었다. 한인 애국단 소속의 요원이었던 두 사람은 관동군 총사령관과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총재를 암살하기 위해 폭탄 테러를 준비

하던 도중 사전 발각되어 수감되었으나, 1945년 패망 직전의 상태에 놓인 일본 군이 두 사람을 살해한 이야기는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그 밖에 일제의 사악한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수많은 장소에서 활약하시다 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고결한 영혼을 지닌 수많은 국제지사 분들에 대한 묵념과 경의를 뒤로 한 채 우리 일행은 뒤편 감옥을 떠나 다음 목적지인 단둥시로 이동했다.

압록강 철교는 한겨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개가 자욱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분위기의 철교는 더욱 신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저 안개 너머에 북한의 신의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만 리나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같은 조상과 같은 피를 가진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현실이 아프게 느껴졌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철교를 통해 신의주에서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슴 속에 품은 채 다음 장소인 지안(集安)을 향해 이동했다. 중간에 멈춘 곳에서 도로 표지판을 보니 놀라웠다. 이틀째 여정 동안 무려 '702km'를 이동한 것이었다. 역시 대륙이 넓긴 넓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머나먼 길을 따라 이동하는 길에는 여러 풍경이 펼쳐졌다. 눈으로 뒤덮인 산들과 시골 마을의 모습은 다롄이나 단둥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완전 '극과 극'의 풍경이 펼쳐지고있었다. 바쁘게 거리를 오고가

는 사람들이 있던 도시와는 다르게 사람들도 뜸하고 건물들도 허름해 보였다. 그렇게 시골 마을과 눈 덮인 숲과 산들을 넘어 우리 일행은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있던 지안에 도착했다.

지안에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역시 국내성 성벽이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했지만 옛 고구려의 수도다운 웅장함이 아직까지도 느껴졌다.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국내성의 성벽을 보게 되었다는 말로 설명하지 못할 감격이 섞여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고구려의 수도였을 당시의 국내성을 떠올리니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했다.

성벽 위에서 국내성을 지키던 병사들, 성안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성문 밖에서 위풍당당하게 개선행진을 하며 들어오는 고구려 군사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적들의 침략이 있을 경우 항쟁을 위해 사용되었던 고구려 '제2의 수도' 와도 같은 곳, 바로 환도산성이었다.



▲ 환도산성 입구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중국의 국가급유류경구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는 표석이 서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의해 만주에 있는 고구려 유적들은 하나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아닌 '중국'의 유산들이지만, 문화유산으로서 고구려 유적들이 지닌 가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성 성터 다음으로 간 환도산성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상태였다.

협준한 산세, 한때 저 산 위에 고구려의 성벽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쳐들어가는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하니 상당히 공략하기가 까다로운 구조였다. 정문의 역할을 하는 남문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협준한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운제(사다리차)나 발석기(투석기) 같은 공성병기를 이용한 대규모 공격은 엄두도 낼 수 없어 보였다. 물론 고구려 역사 속에서 환도산성까지 위태로웠던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1,000년이 넘는 지금 와서 봐도 환도산성은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였다.

고분 7만기, 도굴로 대부분 훼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국내성 성터와는 다르게 환도산성 성터의 성벽들은 내부가 드러난 곳이 꽤 있어서 고구려 성벽 건축 양식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겉면에는 개의 이빨과도 같은 모양을 가진 돌이라는 뜻의 '견치석'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내부에는 자갈과 흙을 섞어 단단히 다져 넣었다. 산지 같은 협준한 지형에는 돌을 쌓아 기반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성

벽을 쌓아 올렸고, 성벽의 아래 부분에는 비가 올 경우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수구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높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고구려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여전히 성벽 밖으로 뿔어져 나오는 듯 했다.

환도산성으로 가는 길에는 성벽뿐만이 아니라 다른 볼거리들도 많았다. 우선, 주변에 장군총과 모양이 유사한 수많은 무덤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설명에 따르면 그런 거대한 무덤들이 예전에는 무려 7만여 기 이상 존재했었지만 고구려유적이 있는 장소로 이주해 온 중국인들이 일대를 개척해나가면서 고구려의 무덤 돌들을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내부에 수장된 유물들을 도굴하여 팔아 돈을 벌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구려 멸망 이후 방치된 무덤들을 보물을 노린 사람들에 의한 1차 도굴에 이어진 2차 도



▲ 환도산성은 정문의 역할을 하는 남문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험준한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운제나 발석거 같은 공성병기를 이용한 대규모 공격은 엄두도 낼 수 없어 보였다.



▲ 한때 장군총으로 알려졌던 장수왕릉. 그 거대한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거대한 무덤에서 발산되는 사람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언가에 의해 나도 모르게 경외감마저 들었다.

굴이었을 뿐이다. 또 3차 도굴을 거치면서 고구려 고분군의 숫자는 1만 5천여기로 줄어들고 말았다. 숫자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분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여기도 어 정도인데 과연 장군총은 어떤 기운을 발산하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다음으로 우리들이 간 곳은 장군총이었다.

장군총은 지금은 장수왕릉으로 알려져 있는데, 드디어 실물로 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이동하는 내내 들뜬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거대한 무덤에서 발산되는 사람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언가에 의해 나도 모르게 경외감마저 들었다. 교수님이나 같이 답사에 간 형들의 설명에 의하면 광개토대왕릉이 장군총보다 더욱 거대한 규모였다고 하니 '전성

기 시절의 고구려의 국력이 그만큼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상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무덤의 정상부에 예전에는 난간과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답사를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상부에 난간과 지붕까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정상부에 가보면 21개의 흠이 있고, 기와도 발견되었는데, 그 흠과 기와가 바로 예전에 난간과 지붕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고구려의 위용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북공정에 둘러싸인 호태왕비

하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장군총의 주위에는 무덤 돌들이 빠져나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호분석'이 1방면 당 3개씩 총 12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뒤편에는 호분석이 2개밖에 자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호분석이 없으면 무덤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그만큼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장군총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고 없어진 호분석을 대체할만한 다른 돌을 대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함부로 돌을 가져다놓을 수도 없었다. 장군총의 위태로운 모습을 뒤로 한 채 이동한 곳은 고구려 문화유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인 광개토대왕비였다.

개인적으로는 ‘환서대백제시대’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대단했던 백제 근초고왕 시절 백제와의 전쟁 중에 고구려는 극심한 위기를 겪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연의 대군을 상대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한강유역의 이점을 살려 난데없이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한 백제가 남쪽에서 대방지역을 놓고 자신들과 싸움을 시작하여 자신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이 백제와의 전투 중 전사했다. 또 북으로는 중국, 남으로는 백제와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다.

소수림왕 이후 고국양왕 시절부터 서서히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고구려를 눈부신 전성기로 이끈 위대한 왕.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드넓은 영토를 정복한 정복왕. 그 위대한 태왕의 무덤 앞에 자리를 잡은 광개토태왕비(호태왕비)를 보러 가는 과정은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았다. 우선 중국정부에 의해 문화재 관리인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사진 한 장도 마음대로 촬영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심지어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더니 사진기를 뺏어 확인을 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한동안 약간은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한 끝에 사진촬영을 허가받았지만 그것도 밖에서의 촬영이었다. 내부에서는 촬영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 호태왕비의 자세한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한 편으로는 불만스럽기도 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왜 이렇게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호태왕비의 보존에 있었는데, 그 배경이 상당히 길었다.

여진족이 누르하치 아래에 하나로 통일되면서 세워진 후금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국호를 ‘칭’으로 바꾸면서 만주 지역은 청나라의 성지와도 같은 장소가 되었다. 이로 인해 만주지역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들은 깊은 숲 속에 파묻히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호태왕비도 걸 표면에 이끼가 가득 피어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비의 내용을 알기 위해 호태왕비의 곁에 ‘말뚝’을 바른 다음 불을 질러 태워버린 것이다!

광개토대왕이 앞에 서있는 듯

태왕릉비에 가해진 2차 충격은 탁본이었다. 비문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시행한 탁본으로 인해 2차 손상이 가해져 사진기 플래시 라이트에 의해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내부에서의 촬영은 금지한 것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태왕릉비가 고초를 겪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오래 전 TV와 인터넷을 통해 본 녹아내리는 고구려 사신도가 떠올랐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한 편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고구려의 문화유적에 관심을 기울였다더라면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재의 훼손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도 했지만 호태왕비 역시 장군총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박력 있는 모습을 자랑했다. 비록 도착한 시간이 해질 무렵이라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거대한 크기의 비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 앞에 태양이 서 계신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 중국정부에 의해 문화재관리인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사진 한 장도 마음대로 촬영할 수가 없었던 광개토대왕비. 그나마 유리로 된 보호각 밖에서 촬영이 허용됐다.

높이는 6.39m, 너비는 1.38~2.00m의 크기를 자랑하는 비석의 4면에는 각각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 비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제1면 1행~6행)은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추모대왕(동명성왕으로 잘못 알려져 있음)부터 광개토대왕까지 역대 왕들의 세계(世系)와 광개토대왕의 행장(行狀)을 기록해 놓았고, 둘째 부분(제1면 7행~3면 8행)에는 광개토대왕 때 이루어진 정복활동과 영토관리(만주 정복, 백제 정벌, 신라 구원, 동부여 및 숙신 정벌)에 대한 내용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해 놓았다.

비문의 기록에 따르면, 태왕은 64개 성과 1,400개 촌을 차지하였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영역을 차지한 셈이다. 셋째 부분(제3면 8행~4면 9행)은 능을 관리하는 수묘인(守墓人) 연호(煙戶)의 숫자와 차출방식, 수묘인의 매매금지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덤의 일대에 거주하면서 무덤을 도굴하려는 도굴꾼들로부터 무덤을 지키고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가장 궁금했던 '신묘년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호태왕비를 나오고 나서 찾아간 광개토대왕릉은 사진을 찍기도 힘들었다.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태우는 석탄 연기와 어두워진 하늘로 인해 사진 촬영 자체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대왕릉은 제대로 된 사진이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 사진을 한 장도 찍지 못한 허탈한 심정을 마침 하늘에 떠오른 달을 보며 위로한 채 2일째 일정은 그렇게 끝이 났다.

3일째 일정은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날, 백두산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

는 백두산. 사진으로만 보던 천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다니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었다. 최근 들어 대폭발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는 불안한 산이기도 한 백두산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폭설로 인해 절반 가까이 눈 속에 파묻힌 숲에 제설 차량이 확보해 놓은 길을 따라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한 끝에 우리는 백두산 입구에 도착했다. 거기서 또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내부로 들어갔는데, 창밖을 통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백두산의 위엄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꼭대기가 만년설로 뒤덮인 거대한 높이의 산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사뭇 긴장되었다. 걸어서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중간지점에 도착하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이동 수단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노우모빌’이었다. 엄청난 속도로 우리들을 천지까지 태워다 준 스노우모빌. 천지까지 힘 하나 안 들이고 올라간 놀라운 추억을 남겨준 고마운 녀석들이다.



▲ 천지에 오르기 전 답사단원들과 기념촬영(왼쪽에서 첫번째)

폭설로 인해 등산로가 묻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스노우모빌을 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는 코스가 처음으로 개장한 코스라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 아마도 걸어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이었겠지만, 설원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환호성을 지르고싶을 정도였으니 오죽할까. 2명이 한 조가 되어 스노우모빌을 타고 올라갔는데,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속도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했다.

다행히도 우리가 올라갔을 때 천지의 날씨는 상당히 맑았다. 백두산의 날씨는 번덕이 심해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날씨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는 흐린 날씨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화창한 날씨라서 보는 나 또한 기분이 상쾌해졌다. 단재께서도 이 곳 천지에 오르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단재께서는 이곳에서 과연 어떤 심정이셨을지 궁금했다.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민족의 현실을 걱정하셨을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한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며 독립의 포부를 다졌을까? 내려오는 동안에도 놀라운 경치를 보여준 백두산을 뒤로 하고 우리들이 도착한 곳은 백두산이 화산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금강 대협곡이었다. 백두산이 대폭발(신생대 3기 말~4기 초)을 일으키면서 개마고원 등 다양한 용암대지와 함께 형성된 금강 대협곡은 그야말로 백두산이 만들어낸 그랜드캐년과도 같은 웅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뿅뿅하게 늘어진 침엽수림과 깎아내린 듯한 협곡, 그리고 까마득한 아래에 흘러가는 강줄기와 강을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까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장관'이었다.

‘자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이란 말은 천지와 대협곡을 두고 이른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크기 또한 엄청났다. 아직 해가 떠 있을 오후 4시 정도에 도착한 대협곡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가고 있었다. 숲이나 산이 다른 곳보다 해가 더욱 빨리 진다는 것은 책이나 TV 다큐멘터리를 통해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왔던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하루 일정의 대부분을 이 ‘거대한 예술품’으로 가득한 ‘대자연의 미술관’에서 보낸 뒤 우리는 3번째 날의 일정을 끝마쳤다.

중략(백두산에서 베이징까지의 이동 과정은 원고 분량이 많아 생략함.)

베이징 단재 흔적 개발로 사라져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이자 현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여태까지 거쳐 온 도시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갈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0차선’ 도로에,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서울보다 몇 배는 많은 것 같았다. 5일차 일정과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일정을 보내는 베이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마지막 일정 당시에 본 ‘자금성’이나 5일차 일정 당시에 갔었던 ‘만리장성’도 있었지만, ‘진스팡지에’와 ‘차오편우후통’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 두 곳을 답사할 때에는 단재 선생의 며느님이신 이덕남 여사께서 특별히 함



▲ 특별히 답사단과 함께하신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가운데)와 답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허원' 교수님(오른쪽).

께 하셨습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이신 여사께서는 악화된 몸 상태 때문에 평소 답사단이 와도 잘 나오시지 않으셨다는데, 학생들이 온다고 하니 특별히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덕남 여사와 함께 우리들은 단재께서 베이징에 처음 도착하셨을 무렵 우당 이회영 선생 가족들과 거주하셨던 '진스광지에'와, '박자혜' 여사와 함께 신선 생활을 지내셨던 집이 있는 '차오편우후통'을 찾아 베이징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백담사 앞에서 내려 두 장소를 찾아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한 우리 일행.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스광지와 차오편우후통의 흔적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2007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역사적인 후통을 제외하고 넓고 노후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된 급속한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진스광지에마저 거대한 빌딩들 속에 모습을 감추고 만 것이다.



▲ 진스광지에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는 증권회사 건물로 보이는 이 빌딩이 들어서 있다. 중국은 역사적인 후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후통을 재개발하고 있다.

진스광지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들어선 것은 거대한 증권회사로 보이는 빌딩이었는데, 그 주변에서 다른 건물의 흔적을 찾는 것은 힘들어보였다. 하는 수 없이 차오떠우후통과 따헤이후 후통을 찾아 이동하였지만 그 두 장소도 마찬가지로 찾기가 어려웠다.

주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골목이 많이 바뀌어 여사님이 기억하시는 위치와 우리들이 아는 장소와도 일치하는 곳을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허탈

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여사님과 함께한 뜻 깊은 시간이었기에 허탈감은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마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여사님과의 짧지만 굵은 소중한 시간은 오래도록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 다음날인 마지막 일정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베이징의 심장인 '천안문 광장'과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자금성'이었다. 당시 베이징의 기온이 역대 최저의 기온이었을 뿐만 아니라, 칼바람까지 몰아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뉴스에 매번 나오는 그 거대한 광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추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리고 광장으로 가는 길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름 아닌 '사령관 동지' 사건. 광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던 기념품 판매 가게에서 인민군 모자를 구입하신 아저씨 한 분께서 완벽한 '싱크로울'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신 사건으로 지금 사진으로 보아도 절로 입가에 미소가 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는 사령관 동지와 함께 천안문 광장을 지나 중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자금성을 향해 걸어 나갔다.

명 왕조 영락제 때 건립된 거대한 궁궐인 자금성은 그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었다. 궁의 외성의 정문인 천안문을 시작으로 내성 정문인 '오문'까지만 해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였는데, 그 내부인 태화문 일대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경복궁의 '근정전'에 해당하는 '태화전'은 말 그대로 거대하고 웅장했다. 과연 황제의 궁전이라는 말에 걸맞은 규모였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 왕조 당시 건륭제가 만든 황위 계승자 확인 방식이었다. 황제에게는 부인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많았다. 특히 아들들은 다음 황위를 놓고 끊임없이 싸웠다. 이를 염려한 건륭제는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창안하기에 이르는데, 우선 차기 황위 계승자의 이름을 2개의 두루마리에 적는다. 그 중 하나는 황제가 항상 몸속에 들고 다니며 다른 하나는 황제의 일상생활 장소인 '건청궁'에 있는 '정대광명(正大光明)'이라 쓰인 편액의 뒤에 보관된다. 이 두 개의 두루마리는 황제가 죽은 뒤에 두루마리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록된 이름이 같을 경우, 그 사람을 다음 황제로 옹립한다.

역사가 없으면 미래도 없어

그밖에도 자금성 안에는 수많은 볼거리들이 많았다. 인공적으로 바위를 붙여 만든 정자와 연못을 파고 남은 흙으로 쌓아 올린 인공 산까지. 중국인의 저력을 제대로 상징하는 건물로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자금성은 우리들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자금성을 끝으로 우리들은 6일 동안 떨어져 있던 그리운 고국, 한국으로 돌아왔다.

6일간의 일정 동안 무려 3,000km를 이동하며 단재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동한 이번 답사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와 시골의 현저히 다른 모습을 통해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친구들, 교수님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동북공정이 지금의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동북공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 다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밌고, 다른 한편으로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답사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친구들과 동생들, 나보다 앞서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형들, 그리고 함께 답사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과의 인연 또한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추억이었다. 특히 고구려 유적은 역사를 공부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였다. 오래전 말을 타고 삼족오 깃발을 휘날리며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용맹스러운 고구려 전사들의 터전에 여전히 그들의 함성소리를 간직한 수많은 유적들을 보면서 나는 단재계서 연구하시고 지키며, 후세에

까지 계승하고자 하셨던 선조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국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더욱 일찍 일어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단재의 연구가 해방 직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설령 일어났다 해도,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들에게 철저한 증명을 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역사란 할아버지의 뉘이요, 할머니의 혼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들이 역사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누릴 찬란한 미래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민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들의 말, 역사, 문화가 남아있는 한 그 민족은 역사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번 답사를 통해 그 말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지금의 세대에서 사라지지 않고, 만대에 걸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나를 시작으로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 모두가 역사의 수호자이자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단재가 꿈꾸었던 이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피눈물 선연한 단재의 망명길 발자국 따라

허 원 서원대학교 한국교육자료박물관 관장 ·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우후죽순 세워진 동상들, 신채호 정신 담고 있는가
국적회복 그치지 말고 ‘사적정비, 선양사업’ 힘써야

한해가 저물어가던 지난해 12월 19일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중국답사단은 차가운 새벽공기를 가르며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제15회 단재문화예술제전의 일환으로 치러진 역사퀴즈대회와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과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10명을 포함한 20명이 답사단 멤버였다.

코스는 중국 내 단재 선생의 행적을 따라 다롄의 뤼순감옥, 지안의 광개토태왕릉과 비·장수왕릉·환도산성·국내성 등 고구려유적, 백두산, 통화 동북항일연군기념관, 선양, 베이징의 단재 선생 거주지 등으로 이어지는 약 3,000km에 걸친 5박 6일간의 여정이었다. 추진위는 2009년 1월 4일부터 9일에 걸쳐 이 지역을 1차 답사한 후 『칭파오 입은 조선 선비 베이징의 단재·청소년을 위한 단재총서1』을 펴낸 바 있다.

단재 선생이 100여 년 전 이 땅의 청년들이 영웅과 위인들의 행적을 학습하여 무수한 새 영웅이 되어 국권회복투쟁을 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여 많은 전기를 펴냈듯이 오늘날 분단된 이 민족, 이 국가의 장래를 짚어지고 나갈 대상도 청년 뿐임에야 달리 무슨 이론이 있을까.

답사에 함께했던 한 학생은 고백했다. “단재 선생의 발자취를 답사하는 동안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구려와 발해 중심의 새로운 역사관을 내놓은 그 뜻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소아가 아니라 대아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많은 고구려유적들을 보면서 어떤 학생은 “단재가 연구하고 지켜 후세에까지 계승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재의 연구가 해방후 체계적으로 이어졌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추론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학생은 “민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말과 역사 문화가



▲ 수많은 단재 동상들.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담아 어떻게 세우는가가 더 중요하다. ① 청주예술의전당 앞 동상. ② 낭성 귀래리 단재사당 옆 단재동상. ③ 휘순감옥 국제항일열사기념관 단재 동상.

남아 있는 한 그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누릴 찬란한 미래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책임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뿌리를 알고 나아가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가지라고 외친 단재 선생. 자신의 모든 것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바친 단재 선생이야말로 그냥 타버릴 초목이 아니라 후세에 넘겨줄 강렬한 햇불입니다. 이번 답사에서 눈으로 마주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민족의 활로인 갱도를 뚫는데 절대 불가결한 다이내마이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학생도 있었다. 100여 년 전 단재의 피눈물 자국이 선연한 그의 망명길을 걸으면서 학생들 심장은 이미 단재의 붉은 피가 들끓는 젊은 단재가 되어 있었다.

고구려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지안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2009년에만 해도 사진촬영이 가능했던 광개토태왕비는 이제는 유리문 밖에서만 사진촬영이 허용되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 뒤엔 감시원이 따라다녔고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플래카드를 펼치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경찰이 달려올 지경이었다.

학생들은 고구려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적 이 뿌듯해 하면서도 우리 역사의 자취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학생들은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향방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펼치곤 하였다. 중국에서

그들은 단재의 가르침 뿐 아니라 세상을 크고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짓눌린 감정을 그나마 달래준 것은 역사유적이 없는 백두산 정상이었다. 평소 같으면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면서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으로 잠시도 머무르기 어려운 백두산 꼭대기가 답사단이 도착했을 때는 영하 17~18도에 불과했고 바람도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쾌청하게 맑은 날씨에 하얗게 얼어붙은 천지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 덮인 설산은 그곳이 왜 머리가 흰 백두산인가를 실감나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학생들을 비롯한 답사단원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왜 백두산을 영산이라 하는지.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분출된 용암이 만든 까마득한 금강대협곡 아래로는 계곡물이 아스라이 흐르고 있었다.

베이징의 단재와 교류한 인사들

1913년 예관 신규식의 요청으로 상하이로 간 단재 선생은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청년들을 교육하는 박달학원의 역사교사로 있다가, 대종교 간부 윤세복의 초청으로 서간도의 동창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고구려와 발해유적을 답사하였다. 단재 선생이 백두산을 답사할 당시는 산짐승들

이 많아 여러 사람이 모여야 비로소 등정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위험하고 험난한 코스였지만 단재 선생은 민족의 영산이자 한·중 국경지대인 백두산 답사를 기피하지 않았다. 1915년 이회영의 권고로 베이징에 온 단재 선생은 3·1운동 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서자 참여하지만 얼마 안 가 임정을 떠나 베이징으로 돌아와 주로 이곳을 근거로 활동했다.

베이징에서 단재 선생은 이회영의 거처에서 심산 김창숙, 박은식 등과 자주 회합하여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신대한>신문이나 <천고> 잡지를 발간했다. 이회영의 집을 거점으로 빈번하게 모인 자리에서 단재와 심산 김창숙은 서로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는 때가 많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서로 막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얼마 안 가 다시 우당 선생 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우당 선생이 놀리면 덜 끝낸 토론은 끝장을 내야할 것 아닌가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그러기에 훗날 심산 김창숙이 단재를 ‘청구강산의 정기(正氣)’였다고 술회한 것은 그 어느 누구의 평가보다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할 만하다.



▲ 단재가 역사자료를 보던 베이징대 도서관.

당시 단재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이외에 루쉰(周樹人), 쩌우쥘런(周作人) 형제, 베이징대학 교수로 무정부주의자인 리스쥙(李石曾)과 공산주의자인 리따차오(李大釗), 군벌장군인 펑위샹(馮玉祥), 만주군벌 장쥘린(張作霖)의 아들 장쉐량(張學良) 등과 폭넓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당 이회영이 다리가 된 듯하다.

단재 선생은 이미 1917~18년 사이 중국의 유명신문인 <북경중화신보>에 많은 논설·시평을 써서 신문의 지가를 올릴 정도였으니 그의 명성은 중국 지식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재 선생은 리스쥙 등과 교류하며 무정부주의사상에 더 경도된 듯한데 ‘민중은 혁명의 대본영이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라고 선포한 조선혁명선언은 제국주의 강도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기를 공개적으로 깨뜨린 선언이자 소극적인 독립운동 방안인 외교론이나 준비론에 일격을 가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천둥 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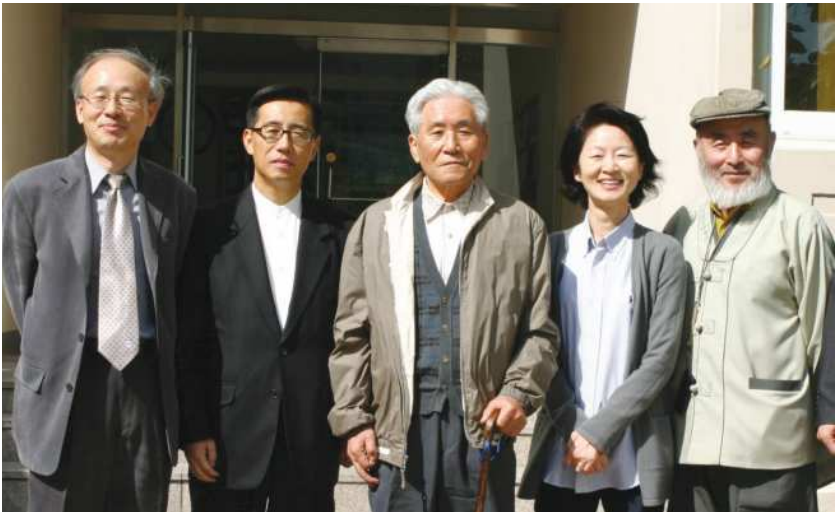
단재 선생이 좌우를 막론하고 중국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한 동기와 배경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은 미개척분야로 남아있지만 단재사상의 전모를 이해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최근 경북대 김주현 교수는 <북경중화신보>에 실린 단재 선생의 글로 추정되는 120편 가량의 논설·시평을 발굴하였는데 이는 단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연구되어야 단재 선생이 사망한 후 중국의 우수한 지식인들까지 합세하여 선생의 사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단재학사 결성을 시도한 배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단재, 루쉰 그리고 이영희 선생

2007년 9월 새로 구성된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임원들은 10월 14일 군포 수리산 자락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고 리영희 선생을 방문했다. 2006년 단재제전에서 제정한 단재언론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된 리영희 선생이 예상치 못했던 이유로 수상을 거부한데 따른 수습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 2007년 10월, 故 리영희 선생 자택 앞에서 기념촬영. 왼쪽에서 세 번째가 리영희 선생.

류초하, 정진경 교수가 주선한 자리에서 선생은 뇌졸중으로 어눌해진 말투와 불편한 거동에도 불구하고 방문자들의 해명을 경청하고 나서 조용히 이르시기를 단재 선생은 언론의 틀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아 단재상을 제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 단재제전 행사에서 대중강연 같은 것은 못하지만 몸이 회복돼 청주까지 갈 수 있게 되면 단재제전에 관계된 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선생은 단재 선생과 중국의 루쉰을 크게 존경하고 있었고 루쉰이 영향을 받은 옌푸(嚴復)에게도 영향을 받았다고 언젠가 술회한 적이 있었다.

루쉰은 청말 사상가인 옌푸가 토마스허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발췌하여 번역한 「천연론(天演論)」을 통해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론이 국제사회에 적용되면 중국은 혁명하여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망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중국의 쇠퇴를 상징하는 전근대적 의식구조의 타파에 진력했던 것이다.

리영희 선생이 사회를 미몽에 잠들게 하는 우상을 파괴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이 인간답게 자립 자존할 수 있는 전제라 여겨, 열려있는 이성으로 전통과 권력과 지식인의 허위에 끊임없이 도전한 것은 바로 지식인으로서 자기 사회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의 발로로, 혼탁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리영희 선생의 스승이었던 단재 선생과 루쉰은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해(1936년)에 세상을 떠난 동아시아의 큰 스승들이었다.

단재라는 햇불을 다시 올리자면

국적을 잃은 지 거의 100년만에 국적을 되찾은 단재 선생. 2009년 3월 국적이 회복된 선생은 며느님 이덕남 여사의 꿈에 나타나 죄수복을 벗으시면서 '나 이제 집으로 돌아 갈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했다. 오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단재 선생의 국적회복으로 시작된 단재사상의 진정한 회복을 통해 민족의 앞길을 비추는 햇불을 이어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선생을 어떤 분으로 여겨왔는가.



▲ 단재 선생의 베이징대 첫 거주지였던 진스팡지에 맞은 편의 루쉰박물관 앞에서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함께.

선생을 기리는 대표적인 조형물로 여기저기 세워진 동상을 쳐다보노라면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나마 가장 신경 써서 만들어진 동상이 1996년 국민성금에 기초해 조성된 청주예술의전당 앞 동상이지만, 두 책을 왼손에 끼고 촛불의 중심에서 서 있는 모습은, 열 해를 갈아 칼날은 푸르다마는 쓸 데가 없어 '칼아 나는 너를 위하여 우노라'고 기염을 토하던,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전투적 사상가로 혁명의 전위에 서고자 했던 선생의 모습으로 보기에 너무 단아한 선비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

다. 한 고등학생이 지적했듯이 선생은 이 민족의 촛불이라기보다 횃불 같은 분이셨다.

1988년 과천 서울대공원에 왼손에 책을 든 단재 선생의 동상이 세워진 후 대전 어남동의 생가 동상(2000년), 청원 문의문화재단지의 단재 동상(2004년), 낭성 귀래리 단재사당 옆 동상(2010년) 모두 책을 들거나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다. 그 책이 선생이 망명할 때 가져간 유일한 집인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이 극복, 비판한 책이니 그렇게 끼고 있는 것은 선생의 사상에도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선생의 역사연구는 단순한 학자적 연구가 아니다. 2,000만의 핏방울, 땀방울 마저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흘리게 할 그런 역사연구였다. 1910년 선생이 망명할 때 들른 평북 오산학교에서의 일화다. 교사였던 이광수의 환영사에 답하기 위해 꼬질꼬질한 물골로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비범한 눈빛으로 학생과 교사들을 한번 둘러볼 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이지 그 속에서 타올랐을 그 칼날 같은 결기(決氣), 열혈을 되살릴 동상 제작과 연구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당당한 충북, 그 진정한 당당함은 단재사상의 총화에서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국적 회복에서 그치지 말고 이 지역이 낳은 불세출의 인물에 걸맞은 사적정비와 선양사업, 교육 사업이 뒤따른다면 말이다.

2011 단재
해외유적답사기



우 종 수 청원고2
가슴속에 울리는 그분의 흔적들

조 우 인 오성중3
단심으로 민족을 느끼다

박 휘 영 일신여중 교사
선생의 불꽃같은 열정과
나라사랑 신념을 나의 가슴에

신 용 철 충청리뷰 기자
단재의 발자취 따라
다롄에서 베이징까지

옛 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가슴속에 울리는 그분의 흔적들

우 종 수 (청원고2, 제2회 단재청소년글짓기대회 고등부 단재상 수상)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사실, 아주 뜻 깊은(?) 인연이 있는 듯싶다. 7살 코흘리개 시절, 나는 예술의전당 주변에 놀기를 좋아했었다. 특히, 어느 동상 주변에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그 주변이 둥그렇게 조성되어 뛰어 놀기가 너무 재밌었다. 그 당시 나는 동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불행히도, 나중에 그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었다는 것을 알기에는..., 13년이 걸렸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창피해서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다.) 이렇듯 기막힌 우연인지 천운인지는 몰라도, 신채호 선생님은 13년만의 부끄러운 나를 뵈러 오셨다. 그것도 5박 6일간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말이다. 중국에서의 만남, 그분의 흔적들을 보면서 선생님을

이해하며 민족의 사랑하는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다. 중국에 남기신 그분의 흔적들이 가슴속에 남는 듯하다.

먼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구하려 했던 그분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훌륭하다 한들 만 권의 책을 갖다놓는다 해도 지안현의 유적들과 바꿀 수 있을까. 수만 개의 글이 그것이 설명하는 대상 그 자체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다시말해, 실제로 있는 우리 민족의 유적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수많은 글들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만주의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였던 고구려의 기상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광개토대왕릉과 비석, 장군총 등의 고구려 유적지와 백두산을 직접 보는 것이 가슴을 더욱 울리는 것 같다.

영하 40도의 날카로운 바람은 거뜰히 이겨내는 광개토대왕비의 단단함. 그것의 위풍당당함을 보면 천하를 호령하던 호태왕의 위엄을 보는 듯했다. 여러 돌로 겹겹이 쌓여 견고함을 자랑하는 장군총. 장수왕의 무덤 속에 울리는 웅장함을 과연 만리장성의 얇은 벽이 버틸 수 있을까 싶다. 오회분의 무덤 속에는 조상의 예술혼이 담겨져있는 듯했다. 벽화를 직접 보며 옛날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상상하이 보았다. 단재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안현의 고구려 유적을 한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만 번 읽는 것 보다 나았다.’

백두산의 경치는 어떤가. 하늘과 맞닿아 백설기보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이곳이 구름 속인지 땅인지 구분조차 안 되었던 백두산! 머릿속으로 천지의 물처럼 맑고 고운 하늘의 정기가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했다. 천지의 신성



▲ 백두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답사단원들.

함과 금강 대협곡의 웅장함을 빚어낸 자연의 기상을 이어 받는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속으로 백두산에서 단재 선생과 약속을 맺었다. ‘시대에 현혹되지 않는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자고.’ ‘내가 있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정신과 문화를 언제나 사랑하며 지키자고.’

다음으로, 민족애를 실천하기 위해 바쳤던 그분의 숭고한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제 강점기 이후 베이징(北京)은 신채호 선생님의 주 무대가 된다. 여기서 그는 역사가이자 평론가이자 언론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단재 선생님은 고구려의 화려한 과거를 보았다. 하지만 그에 비해 그분이 살았던 나날은 고되고 초라해 보였다. 그분에게는 가난이 옷처럼 붙어 다녔고 그는 언제나 일제의 위협에서 살아가야 했다.

차우떠우 후통에는 게딱지처럼 납작한 집들이 처마를 서로 맞대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가슴이 울컥하였다. 나는 옷을 두툼하게 입고 중국에 왔지만, 그분은 얇은 옷 몇 벌만을 걸치고 생활하셨고, 우리는 따스한 집에서 생활하지만 그분은 차가운 생활고를 견뎌내야 했다. 가족마저도 한국으로 보내고 싸워야 했던 혼자와의 시간… 피부에 스며드는 차가움으로 그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외롭고 추웠을 ‘그’의 마지막 순간…

뤼순감옥은 목소리도 얼어버릴 듯 추웠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는 선생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옥방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병판같이 차가워 보였다. 쇠창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틈새의 햇빛뿐. 여기서 신채호 선생님은 1936년 2월 21일 민족의 독립을 끝까지 외치며 돌아가셨다. 이렇게 춥고 배고픈 속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의 따듯함과 안락함에 나태하며 살았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



▲ 뤼순감옥에서 단장님의 설명을 듣고있는 모습 (오른쪽 첫번째)

민족의 역사는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 나무는 밑에 뿌리가 있기에 그것이 몸통과 줄기로 이어져 꽃으로 피울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한국 문화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뿌리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뿌리는 지금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광야에까지 퍼져있는 것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그것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21세기 글로벌 한국으로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 새삼 느끼게 되었다. 민족의 사랑을 담은 뜨거운 가슴으로 차가운 현실에 맞섰던 신채호 선생님의 경건한 정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담고 싶다.



▲ 천안문광장에서 취재 차 동행한 KBS 촬영 감독님(가운데)과 함께

오직 민족에 대한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특출한 재능과 강인한 행동력 모두 갖추었던 사람. 시대의 독립투사였던 사람. 그리고 현실의 차가운 칼바람에 맞서 한민족의 정신을 회복하려 했던, 민족의 등불이었던 사람.

다렌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그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갔다오며 조금이나마 그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때로는 차디찬 뒤편감옥을 걸으며, 때로는 1960년대 서울 외곽 같이 낡았던 차우떠우 후통을 걸으며, 때로는 순수하게 눈으로 가득한 백두산 천지에 오르며, 타국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의 의지와 아픔을 느껴 보았다. 얼마나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견뎌야 했고, 다른 민족에게 수모와 고난을 견뎌야 했을까... 그렇기에 그가 보여준 민족애가 더욱 빛난다고 생각한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채호 선생님. 나도 그분처럼 당당히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설 수 있을까...? 나라에 대한 사랑이 바래지는 요즘, 그의 들끓는 애국심이 태초의 울렸던 하늘북처럼 나의 가슴속에 울린다.

단심으로 민족을 느끼다

조 우 인 (오성중3, 제2회 단재청소년글짓기대회 중등부 단재상 수상)

1. 단재 선생의 길 -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익히면서 더듬어 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E.H.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 라 하였고 『역사철학강의』의 헤겔은 '역사란 시대정신의 구현' 이라 명명하였다. 전자는 역사를 통해 오늘날의 의미를 밝히고 또한 오늘날의 시대 가치를 통해 역사를 찾아나갈 수 있기에 역사가 현(現)시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고, 후자는 역사를 통해 진보해나가는 인간을 알고 시대가치를 구현할 수 있기에 역사가, 정확히는 역사철학이 인류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라 주

장했다.

비단 위의 두 사람뿐 아니라도 토인비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가들과 역사철학자들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올바른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에 역사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결국 역사란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의미를 주는 과거의 일’ 이고,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현재를 보다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인 셈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의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날 한국의 시대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시대상황에 놓여있으며 이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현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치 시루떡과 같다. 사방팔방이 강대국들과 위험국가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양의 한 지질학자는 대한민국이야 말로 지질학적으로 가장 최악의 위치에 놓여있는 국가라 우려하기까지 했을 정도다. 생각해보라. 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 서로는 중국과 인도, 남으로는 일본, 서로는 미국까지. 내로라하는 강대국들의 집합소이자 교차로가 바로 한반도요 대한민국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한민족이 처한 시대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주체정신·자주국방·균형외교가 바로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있었으나 끝끝내 민족과 국가를 유지한 태국이나 스위스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아서도 위 3가지 항목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위와 같은 정신들을 찾아내고 체득하여 민족과 국민에게 일깨울 수 있는가? 답은 단심(丹心)에 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가장 큰 거목 중 하나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무장투쟁론자요 언론인이었으며 저술가이자 문예가였고 유생이자 아나키스트요 동시에 민족주의 사가였다. 이렇듯 다양한 면면을 지닌 단재 선생이지만, 이러한 면면을 모두 꿰뚫고 있는 단 하나의 사상이 있으니, 바로 애국애족의 정신이다. 그는 일생을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조국을 건설하는 대(大)에 바쳤고 죽는 순간까지 이 끈을 놓지 아니하였다. 그랬기에 그런 단재의 삶이야말로, 단재의 역사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게 있어 너무나 큰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옳은 것도 사실이다. 단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한 것은 그 때문이다. 비록 그가 살던 시대는 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시대적 본질(本質)은 놀라우리만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찌감치 단재정신을 재조명해 과거와 같은 비극 없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강한 대한민국이 생겨나기를 꿈꾸며, 단재 선생의 길을 따라 나섰다.

2. 1日 - 붉은 마음의 소실지

시인 도종환 씨가 단재 선생에게 바친 헌정시에서 '살아서 뜨거웠고 죽어서 더욱 깨끗했던 당신' 이라 칭했듯 단재 선생은 살아서는 물론이요 죽어서까지도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진짜 사람' 이다. 무정부주의 활동 도중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뤼순감옥에 수감된 단재 선생은 친일파 보증인을 내세우면 풀어준다는 일제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열악한 수감 환경과 질병 속에서 끝까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다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던 것이다. 단재 선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들고 민족을 위해 투쟁하셨던 곳, 일제의 회유와 삶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도 뿌리치셨던 곳, 그리고 단심(丹心)을 훔달리며 결국 민족의 눈물에 쓰러져 가셨던 곳. 중국으로 향한 답사 첫날 향한 곳은 바로 그러한 애환이 담긴 뤼순감옥이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잠깐의 비행기 지체가 있는 후 날아올라 처음 밟 달은 중국 땅은 다롄시, 즉 대련이었다.

랴우둥 반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황해, 서로는 보하이 만에 접해 있는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약 10도로서 다른 만주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예전부터 항구로 사용되어오다 1880년대 청조 후기부터 도시로 형성되어가기 시작했고 1898년 삼국 간섭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의해 조차된 뒤 동청철도의 종착역이 되기도 하였다. 그 뒤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오다 러·일 전쟁 이후 일제의 손에 넘어가 일본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중국풍 건

물은 물론이요 러시아와 일본의 건물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 단재 선생의 마지막 행선지 뤼순감옥 역시 러시아풍 건물과 일제식 건물이 혼합되어 있는 형국이었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560만 인구가 근방에 살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도시 중 하나라 한다.

간단한 식사 이후 향한 뤼순형무소, 즉 뤼순감옥은 1902년 러시아에 의해 중국인 수감을 위해서 건설되었다. 그러나 훗날 일제가 점령하게 된 이후로는 중국인, 러시아인, 조선인,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일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수감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1907년부터 일제의 손에 들어갔고 그 뒤 수차례에 걸쳐 크게 확장되었다. 700여 명이 처형당하고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감 당했던 역사의 현장으로서 한국의 저명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이회영, 신채호 선생들 역시 이곳에서 순국하셨다.

1945년 8월 소련 군대가 진군하며 사용이 중단되었고, 1971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 1988년 부로 중국 정부는 이곳을 국가중점역사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다.

감옥의 첫 인상은 ‘매우 웅장하다’는 것이었다. 혹독한 고문과 폭력이 자행되었던 형무소라고는 쉽사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고 건물 역시 고급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도착할 당시의 추운 날씨는 겨울 당시 옷 한 두 벌 쉽게 얻을 수 없이 살았던 수많은 수감자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 뤼순감옥의 서쪽 감방 삼각구역. 이곳은 수감자들의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다.

형무소에 입장할 당시에는 다른 한국인들도 꽤나 있었지만 그 보다는 중국인들이 상당했고 일부 일본인들도 있었다. 이들을 보며 역사에 대한 만감이 교차함과 동시에 저들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해졌다. 지난 역사를 보며 각기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인가…. 특히나 안중근 의사, 신채호 선생, 이회영 선생의 흔적을 지나며 그런 생각은 더욱 강해졌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웅인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한 일종의 두근거림과 조바심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당연스럽게도 감옥 내부의 환경은 상당히 열악했다. 방의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작았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들을 지나며 스쳐간 고문실이나 처형소 등은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슬픔을 내게 안겨다 주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고문 받으며 고통스러워했을 역사의 흔적을 보며 어찌 그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감옥을 걸어 들어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한국인들 뿐 아니라 중국인들에서 러시아인들, 독일인들, 그리고 일본인들까지. 죄목은 모두 다양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부터 무장투쟁을 한 사람에서 공산주의 운동가들까지. 어떤 죄목으로 들어왔던 그들은 모두 일제에 저항하여 투쟁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한 그들을 보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제 내부에서도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투쟁하던 인사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개 공산주의 이념에 심취해있던 이들로 인민의 평화와 진정한 의미의 세계 공동체를 원하며 일본의 폭력적 제국주의를 타도코자 했던 인사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고 결국 일제의 손에 의해 출두 추운 뒤편형무소까지 끌려와 수감되고 말았던 것이다.



▲ 정치범 수감동 내부 모습.



▲ 어두컴컴한 독방의 모습.

감옥을 둘러보며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점은 바로 그러한 외국 수감자들을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리기 위해 표시해 두었다는 점이다. 과거 모두가 일제에 의해 싸웠기에 그러한 일은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민족들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을 잊지 않아준 중국 정부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

형무소 밖은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꽤나 관리가 잘 된 모습이었다. 형무소와 이곳에서의 여러 사건들, 그리고 이곳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을 기리는 비석이 여러 개 보였고 그 중 몇몇은 매우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두기도 했다.

뤼순형무소 내부의 주요 건물에서 나와 조금만 돌아 나오면 한국정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국제항일열사기념관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뤼순 감옥에서 희생하고만 한국의 독립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서 수많은 사진과 자료들이 한국 독립투사의 동상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한국정부의 조치가 매우 기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평상시에는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이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했다. 자유개방을 통해 보다 많은 중국인들, 일본인들, 조선족들 등에게 과거 한국 독립운동사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허나 어찌겠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뤼순형무소를 다 돌아보고 나와서는 바로 숙소로 향했다. 장장 4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빨리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동하는 길에 거대한 강 지류, 즉 압록강변을 달리게 되어 강 너머 북한의 모습을 어두운 밤을 넘

어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희열이었다.

단재 선생의 마지막 흔적을 보고 나온 뒤의 느낌은 안타까움이었다. 민족의 거목이신 분이 이러한 곳에서 외롭고도 춥게 돌아가셨겠구나, 하는 마음은 자연스레 마음속에 슬픔과 동시에 죄책감마저 들게 하였다. 그토록 힘들게 사시다 민족에 대한 아픔으로 돌아가신 선생이신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선생의 국적



▲ 위순감옥 내 국제항일열사기념관에는 독립투사들의 동상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과 흔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웠기 때문이다.

붉은 마음이 마지막으로 스러져 간 지 어언 1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후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던가. 서로 땅을 나눠 싸우기만 할 뿐 선생이 꿈꾸셨던 주체적이고 강한 민족국가를 세우는데 일말의 관심이나 가졌던가? 그저 먹고 사는 일, 이를 넘어서는 권력을 잡고 빼앗는 일에만 골몰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그저 방관하고 관조했을 뿐 이를 앞서 말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하지 않았다. 비록 시대와 상황이 그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한국통사>, <독립운동지혈사>의 저자이자 이른바 태백광노, 무치생이라 자칭하시는 박은식 선생은 한 민족에게 있어 육체는 일시적으로 빼앗길 망정 정신을 지킨다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 역설하신 바 있다. 신채호 선생 역시 이와 같이 믿었기에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붉은 마음의 소실지를 밟으며 더욱더 애달프고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이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될 것인가 - 그렇지 않으면 되려 갈수록 악화일로에 서 있게 될 것인가. 이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될 미래의 이야기 일 것이다.

3. 2日 - 민족의 힘의 역사

대표적인 한국의 진보논객인 박노자 교수는 그의 저서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인의 동북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의 유일한 한국인들의 힘의 역사를 중국이 건드린 것이기 때문'이라 진단내렸다. 단순하게 그것이 전부라 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 일정 부분 옳다. 고구려와 발해라는 북방의 역사는 한민족이 북으로 뺏어나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한 축으로 까지 성장했던 '유쾌하고도 그리운, 희열적 추억'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국이 이를 건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단체 선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셨기에 그의 민족주의적 사관의 핵심은 고구려사에 다름 아니다. 그는 고구려에 끝없는 애정을 쏟았고 실제 중국에 오셨을 당시 지안현으로 가 고구려의 유물들을 보고서는 '고구려 지안현에 한 번 와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만 번 읽는 것 보다 낫다' 고 단언했을 정도로 그는 고구려 중심주의적 자긍심과 민족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랬기에 둘째 날 향한 곳은 신채호 선생의 사관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고구려의 유물이 가장 잘 남아있는 지안현이었다.

물론 지안현을 가기에 앞서 전날 흐릿하게나마 보았던 압록강을 보다 잘 보기 위해 유람선을 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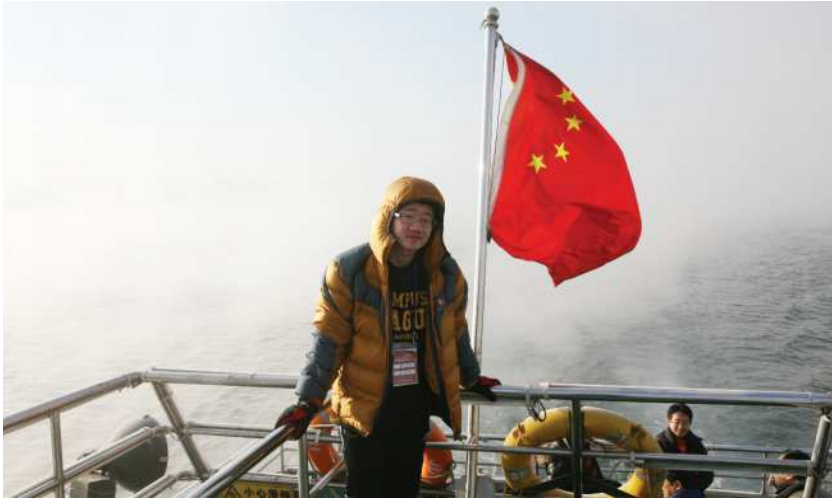
이제 막 동이 뜨기 시작한 아침 압록강의 모습은 신비감 그 자체였다. 특히나

바닷가로 나간 상황에서 돌아본 도시와 구름, 안개 속에 싸여있는 단둥시의 높은 고층 건물들은 천상도시라는 신비로운 세계를 보는 듯한 몽환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쪽으로 보이는 앙상한 나무들뿐인 북한 땅의 모습은 중국과 너무나 큰 대조감을 안겨주어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함께 동행한 기자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선 착잡한 표정으로 ‘안타깝네’를 연발하셨는데, 그 마음에 절실히 동감할 수 있었다.

압록강 위를 유람한 뒤에는 지안성으로 향했다. 대략 4시간 30분가량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가는 도중 고구려의 고대 성 중 하나인 박작성에 들러 잠깐 동안 시간을 보냈다. 다만 성에 대한 가이드분의 설명이 없었고 머무른 시간도 채 몇 분 되지도 못했기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였겠지만, 민족의 유물을 그저 스쳐 보낸다는 것은 역시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 압록강의 아침, 물안개가 신비롭기만 하다.



▲ 압록강 유람선 위에서

지안현, 즉 지안시는 지린성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백두산 남쪽 산기슭과 닿아있는 곳이다.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과 멀리 보고 있으며 북으로는 통화현, 통화시 및 바이산시와, 남서로는 라오닝성 관순현, 환인현과 마주하고 있다.

전체 총 면적의 3분의 2 가량이 삼림이라는 것처럼 다양한 동식물이 자라고 있고 자연환경에 기초해 대형 수력 발전소들 역시 건설되어 있다. 본래 고구려의 터전으로 여겨져 왔으며 한 무제에 의해 중국으로 편입되다 고구려에 의해 다시금 귀속된다. 이후 424년간 고구려의 수도로 사용되어 가장 많은 고구려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 침략군 - 일제 - 현지인들의 연이은 도굴에 의해 남아있

는 유적지중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보석이나 보물은 이미 모두 강탈당한 지 오래고 벽화나 고분과 같은 유물들도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고구려사의 연구는 계속되는 학계의 노력에도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베일에 싸여있는 것이다.

지안에 도착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광개토대왕비였다. 거의 멸망 직전에 놓여있던 고구려를 동아시아 패권 국가로 성장시킨 광개토대왕의 위업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무덤을 보며 한탄한 그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광개토대왕비는 그 목적에 걸맞게 매우 큰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일체에 의한 조작설이나 자연 풍화설 등이 있다) 비문의 글자들 중 140여 자 가량이 알아볼 수 없어 제대로 된 비석 해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다.



▲ 광개토대왕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답사단 일행

뿐만 아니라 중국의 관할하에 있다는 점 역시 비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연구를 힘들게 하는 점이다. 실제 광개토태왕비를 돌아볼 때에 관리원이 계속 옆에서 답사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에 중국 정부가 이의 통제와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안타깝고도 분한 마음이 들었다.

이어 답사단이 향한 곳은 오희묘 5호로 향했는데, 사람들이 흔히 교과서나 역사책에서 보는 벽화들이 새겨져 있는 곳이었다. 다만 벽화들의 손실이 상당했기에 제대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랐다.

가이드 선생께서는 5호 무덤이 그 규모나 구조 등으로 보아 영향력 있던 귀족의 것이며 그 양 옆에 묻힌 이들은 부인과 첩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이어 무덤의 지붕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빨리 나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장군총으로 향했다.



▲ 오희묘 5호 무덤의 모습



▲ 장군총의 모습

장군총의 경우는 본래 주인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그 시기나 규모 등으로 미루어 짐작해 장수왕의 것으로 추정, 장수왕릉이라 칭해지고 있다. 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하고 있으며 거대한 비석들이 지탱하고 있어 오랜 세월이 흐름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석이 유일하게 없는 뒷 부분에서는 돌이 무너져 내리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장수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려는 듯 그 근방에는 여러 개의 작은 묘들이 있었다. 이는 장수왕의 권위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주인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장수나 병사, 혹은 부인들이 아닐까 하고 다양한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장수왕릉이 장수왕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터라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 하겠다. 프랑스인 샤반, 일본인 도리이 등은 장군총이 장수왕의 것이 아니라 광개토대왕의 것이라 주장하였고, 근래에 들어서 역시 이케우치, 나가지마, 다무라 등이 장군총 광개토대왕릉설(設)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장군총에 대한 답사를 끝낸 뒤에는 근방에 있는 크고 작은 고구려 고분들을 둘러보았고, 다음날의 백두산 답사를 위해 일찍 귀가하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숙소로 향했다. 이날 태왕비를 비롯한 고대 고구려의 중요 유적들을 보고나서 느낀 점은 역시나 한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과 기쁨이었다. 고대 그토록 강하고 찬란한 역사를 이룩했던 한민족이 지금은 반도국가가 되어버린 것이 전자

의 이유요, 그럼에도 고대의 찬란한 빛을 이어 받을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긍정적 자긍심이 바로 후자의 이유다.

어찌되었건 고구려 유적에 대한 답사는 민족적 자긍심과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다. 반드시 훗날 세계의 주역이 되어 찬란했던 한민족의 역사를 크게 다시금 일으키겠다는 그러한 의지, 이것을 불태우는 강력한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4. 3日 - 아름답고도 쓰라린 향수

고대 한민족의 발원지는 어디인가? 우리 민족의 젖줄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말이다. 학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나 그 상징적 위치는 다름 아닌 백두산이다. 한민족이 일어나고 이어 고조선의 중심이었던 백두산. 민족의 상징적 고향이자 수도인 백두산이 바로 세 번째 날의 목적지였다.

높이 2,750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은 백색의 부석이 산 위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다 하여 백두산이라 칭해지게 되었다. 백두산은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발원지로서 한반도의 모든 산들이 여기서 뻗어 내렸다. 그랬기에 예로부터 성산(聖山)이라 하여 숭배되어왔고 민족의 정신적 중심지로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중국이 이곳을 차지한 이후에도 많은 조선인들이 근방에서 생활하였고, 중국이 백두산 근방에 대해 공지(空地) 정책을 펼쳤기

에 그다지 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한민족의 생활터전으로 사용되어 왔다.

너무나 안타깝고도 분한 것은 그러한 백두산이 현재 절반 중국의 손에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대 한민족사를 왜곡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측은 백두산을 일컬어 장백산이라 하는데, 이는 이미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장백산이라는 명칭을 백두산에 가져다 붙임으로서 조선의 영토가 장백산까지라는 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백두산까지가 '실제 조선의 영토'라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실상에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다가 북한은 이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 장백산이라고 적혀있는 모습 - 중국은 백두산을 국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자금과 회사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수년 이래로 국제 관광지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백산이라는 명칭이 굳어진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본래 답사단은 백두산 천지, 즉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활동 스케줄로 잡고 있었다. 그런데 날씨에 따라 눈이 예상보다 적게 온 데다가 마침 그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가 있었기에 결국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까지 오르는 데에 그쳤다.

사실 백두산을 오르는 데에 있어서 체력과 같은 것들은 크게 필요 없었다. 자동차를 타고 50분가량을 달린 뒤 스노우모빌을 타고 4~5분간 질주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운 날씨와 가파른 지형, 미끄러운 도로 등은 산을 오르는 이로 하여금 때때로 긴장하게 만들었다.

최첨단의 시설을 이용해 안락하게 올랐음에도 그러했건만 일전에 자동차, 케이블카, 스노우모빌 등과 같은 장비들 없이 그저 맨몸으로 산을 올랐던 이들은 어떠하였겠는가? 실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을 방문하여 만주 일대에서 교편을 잡으실 적 근방에 있던 백두산을 등반한 바 있는데 맨몸으로 이토록 높고 추운 백두산을 올라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빠르게 백두산 중턱까지 간 후 내려오는 길에는 금강대협곡을 들었다. 백두산의 장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절경이 펼쳐진 곳으로서, 보는 내내 감탄과 놀라움을 저절로 자아내게 만들었던 곳이다.

아름답게 눈으로 둘러싸여 추위조차 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만드는 절경 중의 절경을 지나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과연 수많은 약초들



▲ 눈으로 뒤덮인 금강대협곡

이 있다 할 만큼 절경 속 눈들 사이사이 보이던 약초들도 그 아름다운 색채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다. 이러한 눈들을 헤치며 30분가량 협곡을 둘러 본 뒤 답사단은 가볍게 식사를 하고 숙소로 향했다. 백두산을 대강 둘러보는 데에만 무려 5~6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단재 선생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생각하셨을 것인가. 민족의 의지와 강한 국가, 그리고 빛나는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시지 아니하셨을까. 백두산의 깊고 하얀 정기를 받으며 미래를 느끼는 순간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큰 행복이요 기쁨이었으며 동시에 크나큰 축복이었다.

백두산은 결국 아름답고도 쓰라린 향수다. 우리 민족의 발원지이기도 하며 아름다운, 아니 쉽게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절경을 지니고 자랑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외세에 의해 수탈당하고 주권을 침범당해온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역사

를 반영하는 곳이기도 하기에. 그럴수록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굳게 다짐할 수 밖에 없었다. 반드시 백두산의 형상처럼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5. 4日 - 북방의 찬바람을 헤친 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한창 항일 무장투쟁 독립운동이 절정기이던 30년대 초중반,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만주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대개의 그들은 단독 행동의 위험을 불식시키고 보다 효과적이고 전투적인 운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군과의 연대를 실시했다. 동북항일연군은 그러한 연합 군대의 대표격이었다. 답사 4일째 선양으로 향하기 전에 방문한 곳이 바로 동북항일연군의 기념관이었다.

동북항일연군은 중국군과 한국독립군이 힘을 모아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에서 효과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중국의 무장투쟁론자 양정우에 의해 중심된 단체이다.

양정우 장군은 1905년 허난성(河南城) 확산 운동에 가담한 인물로서, 1933년 동북부 지역에서의 항일 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일제는 양정우 장군의 목숨에 은전 5만 냥을 걸었을 정도로 제국주의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인물이었다.

이러한 양정우 장군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1917년 간도로 이주한 이래 1919년의 삼일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그는 천마산대라는 유격부대에 가담하여 항일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대한통의부, 참의부, 정의부 등에서 혁혁한 공들을 세웠고, 얼마 안 가 조선혁명군의 지휘자를 맡게 된다. 1931년 혁명군과 조선혁명당 간부들의 신빈현 회의 당시 일어난 일제의 급습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뒤에서는 와해 위기의 조직을 재정비, 총사령관으로서 중국의용군과 연합하여 전선을 다시 가다듬는다.

그 뒤 름장(臨江), 환린(桓仁), 류허(柳河), 통화(通化) 등에서 연달아 활동해오던 그는 1933년 무렵 연달아 일본 제국군에 패퇴하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1934년 일본군에 매수된 밀정 박창해가 보낸 중국 자객에서 사살당하며



▲ 양정우능원에 있는 장군의 기념상

비운의 삶을 마감하고 만다.

예상했던 대로 기념관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기념관이 단 한 사람, 양정우 장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중국과 공산당에 의해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었다.

내부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양정우 장군의 기념상이었다. 상당한 규모로 제작된 기념상을 사방으로 입구, 관리실, 사당, 그리고 전시관이 위치해 있었다. 그 규모나 내부 모습들에서 상당한 공을 들여 만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 동북항일연군기념관 광장 조각상

하지만 아무래도 한 인물에 국한된 것이고 그 인물이 무장투쟁에 몸 바치던 인물이다 보니 전쟁 물품이나 관련 사진 및 지도들을 제외하고서는 남아 있는 물건들이 크게 없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적었다. 금방 바로 근처에 있는 동북항일연군기념관으로 향했다.

기념관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고, 그 내부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상태였다. 입구에서부터 엄숙한 느낌을 주는 배경은 들어가는 이로 하여금 상당한 긴장을 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내부 구조 및 전시물들을 보는 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게 만들었다.

입장해서 처음 볼 수 있는 공산당기를 지나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 두 개골들이 보인다. 이를 통해 이 기념관이 기리고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역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내부를 관람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고 일관된 태도로서 임할 수 있었다. 진중한 분위기는 들어가는 이들을 압도하는 듯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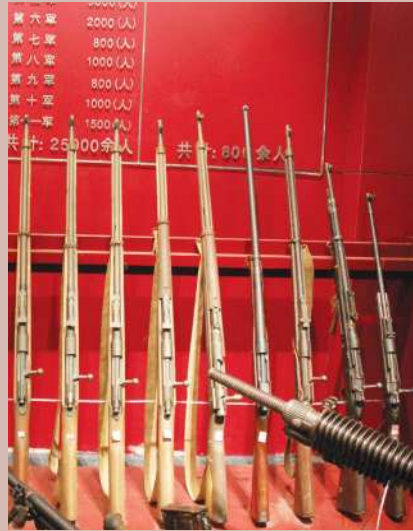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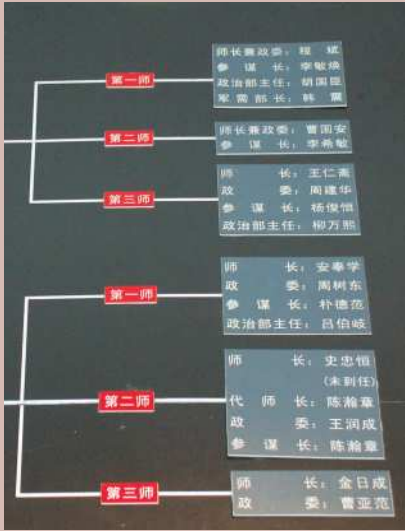
이어 보여지는 양한 밀랍인형들은 일제가 행한 수많은 만행들을 질실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만주지방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의 단면들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전쟁 무기들 역시 관심을 끄는 전시 대상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보다는 전시관 전체에 걸쳐 걸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이목을 끌었다. 일반 중국 남성들 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과 어린 청년들, 그리고 일부 한국 출신

무장 독립운동가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이어 나타난 동북항일연군 계보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김일성 전 북한주석의 이름이 당당하게 주요 인사들 중 한 명으로서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정희와 유사한 북한의 독재자요 한때의 독립운동가로서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의 이름이 이런 중요한 곳에서 발견되니, 순간적으로 만감이 교차했다. 결국 남는 것은 '오묘한 느낌' 이었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 색다른, 새로운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역시 선악이란 것은 이분법적으로 바라 볼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인간이 바뀌는 것 - 즉 신념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어째서일까 하는 물음까지 다양한 의문점들이 머릿속을 헤매었다.

전시관을 둘러보고 나와서는 늦기 전에 선양으로 출발해야했다. 밤이 되어서야 도착한 선양은 상당히 화려한 모습이었는데, 고대 청나라 황제의 석상들이 모여 있는 곳을 잠깐 들렀다가 바로 열차로 향했다. 9시 40분가량에 도착한 열차는 매우 좁은 칸이었고, 그 때문에 쉽사리 잠에 들지는 못했다. 신채호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일제에 크나큰 두려움으로서 타격을 주었던 양 장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기에 너무나도 값진 날이었음에 틀림없다.



▲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이름이 올라 있는 동북 항일연군의 계보도

▲ 동북항일연군기념관 내에 전시된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



▲ 무장투쟁 당시 앞장서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여장부들의 모습

6. 5日 - 길고 긴 영원의 시간

매 순간순간을 열정적으로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임에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란 존재에게 있어서는. 그렇기에 신채호 선생의 붉은 삶이 더욱더 값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 선양 - 베이징 간 야간 침대 열차



▲ 4인실 침대 열차 내부



▲ 베이징역의 모습

귀국하기 바로 전날인 5일째, 답사를 위해 도착한 곳은 북경, 즉 베이징이었다. 신채호 선생이 거주하였던 곳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문화를, 그 유구한 시간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기에 너무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했다.

베이징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화려했다. 더 이상 가난한 중국이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듯, 사방 곳곳에 크고 긴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거리에 늘어선 자동차들 역시 대개가 값비싼 외제 자동차들이었으며, 심지어는 택시 마저도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정도였다. 아무리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라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당한 규모의 혁신적 변화였다.

이러한 놀라움을 들고 간단한 식사 이후에는 빠듯한 하루 일정이 시작되었다. 밀리는 교통과 넓은 규모라는 난제 속에서 베이징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답사를 위한 발걸음은 하루빨리 만리장성을 향해 나아갔다.

길고 긴 영원의 시간. 만리장성을 보며 번뜩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다. 만리장성은 그 규모면에서 보나 문화적 측면에서 보나 너무나도 웅장하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레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인류의 힘에 대한 강력한 존경심마저 느끼게 한다.

일찍이 단재 선생은 이러한 만리장성에 대해 한민족 개입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실제 만리장성의 일부는 고대 이 부근에 진출했던 고구려가 건설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채호 선생의 민족주의적 사관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가설이 옳은 옳

지 않은 어쨌든 만리장성이 한민족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은 사실이다. 만리장성 축조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동북방의 침입, 즉 우리 민족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날씨 문제로 케이블카 운행은 불가했기에 결국 만리장성을 체험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오르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매우 가파른 경사를 자랑하는 만리장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등글등글한 곡선형태가 아닌 가파르고 날렵한 형국이었다. 이를 통해 고대 수많은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을 고초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벽돌 1장당 1명 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죽어갔다는 것이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님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만리장성은 단순히 진나라의 것이 아닌, 전한·북위·당·명 등 수많은 중국 왕조와 기타 이민왕조들의 합작품이다. 그러했기에 그 규모는 12,700리에 달할 정도로 길고 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재 선생은 일찍이 한 국가에 힘이 있어서 민중의 영향력을 크게 강조한 바 있다. 선생은 본디 영웅사관에 심취하셨던 바 있으나, 시간이 흐르며 한두 사람의 영웅보다는 대다수의 민중이 역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에 더욱 큰 영향력과 필요성을 지님을 절감하셨던 것이다.

만리장성을 보면서 단재 선생의 그러한 견해가 자연스레 떠올랐는데, 소수의 지배층을 위해 죽어갔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민중의 눈물이 떠올라 그랬던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민중의 고통과 아픔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 만리장성의 입구 모습 - 길고도 긴 만리장성은 그 경사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파르다

날에는 지배 계층을 향한 강한 힘으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고려할 때 드는 감개 무량의 감정 때문이었다.

여러모로 다양한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만리장성을 오르는 일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고역이었다.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뿐 아니라 변변한 편의 시설들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이곳을 세우느라, 혹은 지나가느라 똑같은 고초를 겪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굳은 마음으로 계속 장성을 올랐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뒤에는 무난하게 하산, 휴식을 취했다.



▲ 베이징대 도서관 앞에서 답사단원들과 함께

만리장성에서의 시간을 끝낸 뒤에는 베이징대로 향했다. 세계 대학 순위에서 약 90위를 기록하고 있는 베이징대는 칭화대와 함께 중국의 2대 대학으로서, 칭화대가 이과 중심인 반면 베이징대는 문과 중심 성향을 띤다. 베이징대로 이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채호 선생이 한때 근방에 머물면서 집필 및 출판 일을 하였고, 그 결과 선생이 중국 망명 당시 발행한 바 있던 순환문 잡지 <천고>의 1, 2, 3호 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도서관인 베이징대 도서관에 학술적 유산으로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베이징대 내에서 두 명 정도의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어 내부의 경비는 매우 삼엄했고, 비자를 동반해야만 안전하게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그런데 베이징대에 들어가기 전 매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70년대부터 단재 선생님과 관련된 유물, 유적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신체호 선생님의 자부이신 이덕남 여사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단재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신수범 선생과 함께 살며 단재 선생을 알게 된 여사는 그 뒤 한국과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학계와 함께 단재 선생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오신 대단하신 분이였다. 그 분이 직접 전해주는 응원의 말을 들으니 자연히 장차 민족과 국가를 향해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

전체적인 구조는 한국의 대학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특별한 두 가지 특색을 고르라면 자전거의 일반적 사용과 건물의 형태이다. 중국 학생들은 일찍이 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전거를 너무나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중

국 대학들의 건물들은 현대식이라기보다는 과거 중국 문화의 전통을 살린듯한 기와 형식의 지붕이 많았기 때문이다.



▲ 인상 깊었던 베이징대 내에 위치한 탑

베이징대 도서관의 경우는 직접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어차피 관람을 허가 받는다 하여도 <천고> 잡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으로서 접근할 수 없기에 안타깝긴 하였으나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베이징대 내부에 있는 탑으로 향



▲ 답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일부러 나오신 단재 며느리 이덕남여사와 함께

했다. 상당히 고전적 느낌이 나는, 어찌 보면 원구단과 유사하게 보여질 수 있는 탑이었는데 대학 내에 그런 것이 있으니 느낌이 새로웠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 대학 내에도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들이 종종 있으니, 다만 다른 것은 ‘차이’의 문제일 뿐임을 얼마 안 가 깨달았다. 어찌 되었건 매우 참신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베이징대를 관람하고 난 뒤에는 단재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진스팡지에를 비롯한 후퉁으로 향했다. 후퉁은 중국 베이징 내의 사이길들을 의미하는데, 과거의 전통이 현대 베이징의 그림자와 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귀한 곳이다. 베이징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고 그 길이도 상당히기에 일부에서는 후퉁 거리를 다 이을 경우 만리장성보다 길 것이다, 라는 말이 오갈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후통 거리까지 진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베이징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급격한 대변혁이 시작되었던 터라 도심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했다. 일례로 베이징의 교통 체계는 350만 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데 500만대의 자동차가 베이징에서 굴러다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강제통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7시에 출발하면 12시에 회사에 도착한다는 현실에 기초한 만담이 존재할 정도로 중국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 수준이다. 그랬기에 본격적인 퇴근 시간에 접어들면 5~6시 무렵 움직이기 시작한 답사버스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결국 2시간가량 정체한 뒤 후통 거리 근방까지는 걸어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 중국 정부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후통이 사라지고 현대식 건물로 대체되고 말았다. 실제 따헤이후후통의 경우 거대한 중국은행 건물이 그 자리에 있어 오랜 시간을 거쳐 힘들게 그곳에 발걸음한 것에 대해 실망감만을 크게 안겨주었고, 동시에 단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의 흔적이 경제논리에 의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강하게 남았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서 차오떠우후통의 경우에는 그 자리가 온전히 보전되어 있다가에 늦기 전 빠르게 그곳으로 향했다. 단재 선생에게도 범부의 행복이 있었다면 바로 차오떠우후통에서의 2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곳은 단재 선생이 이회영 선생의 부인 이은숙 여사의 중매를 통해 만난 박자혜 여사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했던 곳이다. 단재 선생의 아들 신수범 씨 역시 이곳에서 출생한 바 있으니, 단재 선생의 이곳에 대한 애착과 기쁨이 어떠했겠는가? 또한 이곳은 선생

이 다양한 논설, 소식지, 시국선언문 등을 작성하고 발표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더욱더 돌아보기에 값진 곳이다.

실제 <천고> 역시 이곳에서 발행되어 출판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통에 도착한 시간이 밤인지라 내부를 확실하게 볼 수는 없었다. 다만 후통 거리에 위치한 집들이 모두 오랜 시간 전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형상을 취하고 있었기에 과거 중국의 집들에 대해 잘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일례로, 후통 거리에 위치한 집들에는 귀족이나 왕족의 집들이 상당하다. 그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문 아래에 놓여있는 것들을 통해서인데, 책이 놓여있으면 문관, 돌로 된 북이 놓여있으면 무관이라 칭해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족의 경우에는 일반 집들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컸으며, 문 위에 둥근 기둥 4개가 박혀 있어 눈에 잘 띄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헌데 비록 과거에는 많은 귀족들과 왕족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을망정 근현대에 들어선 이후로 이 지역은 분명 크게 낙후된 지역임에 틀림없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집들이 과거 모습 그대로여서 제대로 된 온랭 조절이 불가하다. 그렇기에 여름에는 매우 더울 뿐 아니라 겨울이 되면 엄청난 추위가 닥친다. 실제 신채호 선생이 이곳에서 신혼을 하면서 주요 활동을 하셨음을 상기할 때 절로 존경심이 우러러 나왔음에도 동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토록 대단한 일을 행하시며 결코 민족과 조국을 잊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뜻을 펼치셨음을 생각할 때, 역시 인간이란 존재는 그의 지가 굳건할 때에는 무언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에 충분함을 절감할 수 있었다.

중국식 먹자 골목에 들러 중국 특유의 '이색 음식' 들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설탕조림 과일에서부터 전갈, 메추리구이, 그리고 썩은 두부까지.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맛있었고, 반면 다른 것들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욱 끔찍한 맛이였다. 색다른 음식을 취해보는 재미는 역시 남달랐다.

그런데 중국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것을 목격하고야 말았는데, 바로 거대 스크린이다. 정확히는 스크린 속의 한국 배우, 문근영이다. 시내 한복판에 설치된 거대 스크린 속에 비추어지는 그녀의 인터뷰는 21세기 한류의 힘과 동시에 그 브랜드가치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기에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동시에 자긍심이 절로 샘솟는 일이었다.

이전까지의 일정에 비해 비교적 빡빡한 일정을 보낸 하루였기에 이날 만큼은 속도로 향한 뒤 바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마지막이 될 단재 선생 유적 답사를 생각하며.



▲ 베이징 왕푸징 거리. 다양하고 독특한 먹거리들이 즐비하다. (오른쪽은 전갈 구이)

7. 6日 - 거대한 시계추

인류는 거대한 시계추를 움직이며 살아왔다. 그 시계추는 결코 스스로 움직이는 법 없이 인류라는 주체가 스스로를 행동케 할 때에만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민중과 그들의 벗의 힘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오늘날 그 시계추의 역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그러한 역사의 길, 민중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많은 배움을 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마지막 날의 행선지를 천안문광장으로 향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역사를 공유하는 곳이자 시계추를 움직이기 위한 사람들의 전진이 있었던 곳,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랜 역사



▲ 자금성에는 만세를 외치는 구호, 그리고 모 주석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다.

를 지닌 중국의 문, 자금성으로 향하는 길. 그곳이 바로 천안문광장이었기 때문이다. 모순적이지 않은가? 만시의 교차로로서 ‘대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광장’이 오늘날에는 그저 관광의 용도이자 대화 없는 통제구역으로 사용될 뿐이니, 마치 최인훈의 <광장>을 읽는 것만 같다.

천안문광장에는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 온 듯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중국의 위상을 실감케 하였다. 거대한 천안문에는 양쪽으로 세계인민과 공산당의 만세를 외치는 구호가 적혀 있었고, 무려 1t에 달한다고 하는 마오 전 주석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신채호 선생이 외친 것은 무엇이었던가? 역사의 주체는 언제나 결코 민중이라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중국은 인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공장 부속품, 경제발전을 위한 재료, 그 이상으로 대하고 있는가? 거대한 규모의 천안문 광장과 그곳을 따뜻하게 차려입고 관광중인 수많은 외국인들과, 동시에 그 추운 곳에서 힘들게 물건을 팔고 사진 찍기를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대조되며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과연 중국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천안문광장의 웅장한 모습을 뒷받침해 주는 듯 사방으로는 인민혁명기념탑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장, 그리고 혁명기념관이 위치해 있었다. 모두 엄청난 규모의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실제 내부 답사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아 이를 수 없었다.

결국 자연스럽게 향하게 된 곳은 자금성이었다. 명나라 때부터 청 왕조를 거

쳐 지금까지 그 거대한 규모를 지키고 있음을 생각하며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자금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헌데 역시 기본적인 이동 시간만 수 시간이 걸리는 중국답게 ‘근처’ 라는 자금성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 걷는데 진이 빠질 정도였다. 다행히 30분이 조금 넘는 도보 끝에 도착하여 본 자금성의 모습은 이러한 피로감을 모두 날려버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중국의 위세와 황실의 위엄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화려한 모습과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던 자금성은 역시 중국이 오랜 세월 세계 유일 최강 국가의 지위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스레 일깨워 줌과 동시에 미래 중국이 부상하게 될 시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이 주변 국가들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자금성은 여러 겹의 벽들과 궁들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그 위세가 더욱 대단했는데, 문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중심 궁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정도로 위세면에서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중국의 국가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기도 하였는데, 그 거대한 궁궐과 겹겹의 보호막은 마치 인민으로부터 엘리트 계층의 완벽한 단절을 상징하는 듯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정치권에서 일반 시민과의 소통이 큰 화두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현 정치상황과 자금성의 모습을 고려하면 중국 인민의 앞길이 꽤 염려스러

웠던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예술가 및 학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중국에도 서서히 민주 정신이 떠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기우일지도 모르겠다. 오로지 중국 인민에 의해서만 결정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며 향한 자금성 내부는 역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9,999마리의 용 장식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항아리와 거대한 규모의 건물까지. 모든 것들에 눈을 뗄 수 없었고, 그러한 모습은 질릴 정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식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보는 내내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중국과 같은 문명권으로서 유사한 유물을 지닌 한국은 어떻게 해외 관광객을 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끌어 올 수 있을까, 하는. 결국 답은 차별화 마케팅이었지만, 차별화 할 포인트가 문제였다. 깊게 생각해 볼 틈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중국의 궁궐들은 그 규모나 예술성 면에서는 대단하다 할 만하나 다양성이나 기개 면에서는 한국의 것들이 더 우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중국의 수많은 궁궐들 대개가 비슷비슷한 모습이었을 뿐 아니라, 그 모습도 기상을 선보이기보다는 사치와 과시를 드러내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한국의 관광위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나에게 자금성의 유물 및 궁궐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내부의 아름다운 자연 공원이었다. 과거 왕실에서 애용되었을 법한 아름다운 궁원은, 수많은 독특한 나무들과 그들과 아름답게 조화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궁원의 모습은 자금성과는 전혀 다른, 그



▲ 시간을 알려주는 북을 치던 고루, 1900년 일본군에 의해 꾸러우의 북이 찢겨졌다.

러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보는 이들에게 선사해 주었고, 이것이 바로 자금성의 미(美)적 극치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금성 관광을 마치고는 간단한 식사후 '고루' 로 향하였다. 고루란 이른바 시계탑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북을 치던 곳이다. 이곳에 가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천고> 때문이다. 신체호 선생이 베이징에서 거주하실 당시 이곳에서 울리던 북소리에 기초하여 천고를 떠올리셨다는 일화 때문이다. 실제 고루의 모습은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었으나, 다만 탑 내부에 한국의 자격루와 같이 물과 구슬을 이용해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있어 매우 놀라웠다.

흔히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길이 있음에도 알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헤맨다고 한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신채호 선생은 역시 현인이라 할 만하다. 가까운 곳의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에서 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해 내실 <천고>를 생각하여 민족을 위한, 또 다른 문을 만드셨으니. 흔히 우리가 지나치는 사물들 중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고루를 한 번 둘러본 뒤에는 짧은시간 때문에 안타깝지만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다. 역시 7시 무렵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11시가 조금 지나 귀가하게 되었다.

단심을 느끼고자 떠났던 신채호 선생을 향한 답사를 마무리 짓게 된 것이다.

8. 我와 非我的 투쟁

<존재와 시간>의 저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의 대명사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오늘날의 현대인을 일컬어 아무런 특색 없이 무색무취하게 대중주의만을 따라다니는 ‘그들’이라고 칭하였다. 동시에 그는 “그들은 나도, 당신도, 우리도 그 누구도 아니다. 그들은 그들일 뿐이다.”라 하였다. 대중주의의 파도에 휩쓸려 존재가치가 상실된 채 그저 세상을 구성하는 파편으로 전락해 버린 인격체들, 그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은 나와 너는 없이 모두 그러한 '그들' 로만 가득 차 버린 것 같다. 자신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어쩌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와 같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실존적 물음은 한편으로 몰아넣어둔 채 단순히 공부와 게임, TV와 같은 '쾌락'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너무나도 바쁜 사회생활과 학업생활,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잠깐이나마 즐거움을 취하고 싶은 인간의 내재적인 본연적 욕구,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러한 것들에 매몰되고 만 것이다. 자본지상주의 사회에서 사회-학업 생활에서는 오로지 '돈 많이 버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일에 대한 소명 의식은 조금도 없이 기계적 작업을 반복하고, 집에서는 매스미디어에 포위된 현대인의 표상을 보여주듯 TV와 인터넷에 모든 여가를 위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전혀 개성이나 삶의 이유 따위는 찾아 볼 수 없는 비극인 것이다.

흔히들 하는 말로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사나' 하는 말이 있다. 그렇다, 인간은 길어봐야 100살까지 살 수 있을 뿐이다. 언뜻 보면 긴 듯하지만 지구와 우주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찰나 밖에 되지 않는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간다. 그렇기에 그저 현실에 안주한 채 '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덧 죽음에 다다른 시간표를 보며 한탄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후회로, 그리고 연민으로. 그리고는 생각한다,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

다면 정말 열심히 살텐데, 하고.

늦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흘러버린 시간은 불가역적이다. 결국 한탄으로 말년을 채운 사람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쉬움에 복받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안타까움은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에 매 순간 순간을 열정적으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한 번 뿐인 짧은 ‘삶’이라는 여정을 후회 없이 끝내기 위해. 오늘날 ‘그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혹은 너무 먼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실존적 삶’의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명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흔히 ‘책을 통해서 길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책은 많은 것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재작년 중학교 1학년 무렵, 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은 적이 있다. 그 때의 짜릿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나에게 선사해 주었다. 그리고 이듬해 읽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전자의 책과 함께 나에게 있어 삶의 이정표를 그려주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했듯.

본래 어릴 적부터 나의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다. 반기문 총장님을 알게 되고 그 분이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꿈은 점차 시들해졌다. 대신 돈 많이 버는 직업들, 소위 말하는 ‘사 자 달린’ 직업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한 번 뿐인 삶, 중요한 것

은 놓고 즐기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위의 두 책, 그리고 니체와 하이데거가 나를 건져내 준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쁜 현실' 과 '내재적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실존주의라는 명제를 말하기를 꺼린다. 그들은 보다 편한 길이 있음에도 실존이라는 단어를 말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 '그들' 이 되는 길을 택한다. 그것이 80%가 넘는 '일반적 그들' 의 삶이다.

하지만 니체와 하이데거는 내게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무할지, 얼마나 후회스러울지를 열변을 토하며 가르쳐 주었다. 한 번 뿐인 삶이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현실적 굴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삶인 즉, 더욱 더 노력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는 삶을 사는 것 -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자명한 '사실' 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그 뒤 나는 다시금 나의 본연의 꿈인 '외교관' 을 꿈꾸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걸음씩 노력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들을 살펴 보며 삶을 다잡는 일부터,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며 지평을 넓혀가는 일까지. 이러한 일들은 일상생활과 욕구로 점철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나갈 때의 실존감과 성취감 때문에, 결코 멈출 수 없는 '행복의 마약' 과 같은 것이었다.

단체 신체호 글짓기 대회에 응모하고, 당선되고, 중국 답사를 향한 발걸음을

내던져 된 것도 이러한 일의 일환이었다. 외교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무렵부터 관심 있던 신채호 선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던 도중 관련 재단이 있고 그 재단에서 글짓기 대회를 주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체 없이 신청했고, 주제 역시 평소부터 관심이 많던 독도 - 역사 정신 문제와 친일 청산 논제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본선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이번 단재재단과의 경험은 나의 삶에 있어 또 다른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실존' 과 '꿈의 성취' 라는 두 바퀴를 굴러나가기 위한. 실제 중국을 돌아보고 신채호 선생을 느끼며 우리 민족을 향한 애국심과 단심(丹心)을 크게 고양시킬 수 있었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외교관이라는 '나만의 길' 을 더욱 더 굳게 확정짓도록 이끌리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흔히 단재 신채호라 하면 我와 非我的 투쟁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친숙한 말이기엔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현대 단재 선생은 이 말을 본인의 민족주의적 사관을 말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나는 좀 더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 我是 바로 본연의 나, 실존적 나, 꿈꾸는 나이고 非我是 이러한 我를 방해하는 또 다른 我 - 즉 '그들' 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我 라고.

단재 선생은 역사란 것이 我와 非我が 끊임없이 투쟁하며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보았다. 내가 말하는 我와 非我的 투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꿈을 이루고자, 나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 편하게 살자는, 본능에 충실하는 욕망이 대립하며 '총체적 자아' 의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는 것이다.



▲ 베이징 공항을 떠나며 답사단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我가 승리할지 非我가 승리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단재 선생이 我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 민족과 국가가 승리하며 앞으로 진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듯, 내가 말하는 투쟁에서도 我의 승리가 총체적 자아를 더욱 빛나고 크게 발전시켜 나가는 길임에 분명하다.

세상에 결코 쉬운 일은 없다. 친구에게 과자 한 조각 얻어먹을 때도 아부를 떨어야 하는 판에, 非我로부터 행복을 받아내는 것에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투쟁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모두가 비관하고 낙담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일제에 무장투쟁으로 맞선 단재 선생이 훗날 그 정신을 길이 남기며 추앙받듯,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진정한 나’

를 찾고자 하는 여정을 방해하는 非我에 대한 선전포고와 대립이 힘들지언정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분명 달콤한 과실로서 그 결과에 대해 보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가 말하는 교훈이며 철학이 말하는 진리이고 인간의 직관이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번 단재 신채호 유적 답사는 나에게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그렇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를 다시금 확실히 느끼고 계속 실존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촉매제를 놓아준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선생의 불꽃같은 열정과 나라사랑 신념을 나의 가슴에

박 휘 영 일신여중 교사



▲ 국제항일열사기념관 단재동상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직이며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조국광복에 대한 신념을 아름답고 단호하게 예언한 시인이자 직접 실천에 옮기고 산 민족지사 이육사의 생애를 공부하는 중학교 3학년 국어시간, 그의 삶에서 본받을 점을 토의하며 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육사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정작 나는 어떠했나? 답사를 준비하며 단재 선생과 한국사를 다시금 훑어 공부하면서도 백두산 천지를 보는 일과, 베이징을 관광한다는 것에 가장 큰 기대와 설렘을 느끼며, 단재

선생의 삶을 배운다는 일은 뒷전이었던 나. 이육사와 같은 독립운동가의 신념을 본받으라고 말로만 가르쳤던 나. 이것이 나의 부끄러운 현재였다. 그러나 단심으로 고구려의 기상을 배운다는 구호 아래 진행된 5박 6일의 일정 동안 단재 선생의 빛나는 눈빛과 결단력 있는 목소리를 보고 듣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슴을 울려왔다. 지안현의 유적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려사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더 낫다는 단재 선생의 말씀을 생생하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단재 선생의 마지막 자취가 남겨진 휘순감옥에서 우리의 답사가 시작되었다. 단재 선생이 입었을 죄수복과 거했을 감옥 내부의 차가운 바닥, 형구들을 바라보며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간 용기 있는 결단과 실천 앞에 고개를 숙였다. 다렌에서 단둥으로 이동하여, 한일합방이 강행되고 망명길에 오른 단재 선생이 건넜을 압록강변에 서자,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단재 선생이 느꼈을 슬픈 마음이 날카로운 겨울의 강바람이 되어 나의 가슴에 아프게 와 닿았다. 지안에서 광개토대왕릉과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국내성 터를 답사하며 광활한 대륙에 펼쳐진 고구려의 기상에 추위에 움츠렸던 어깨마저 곧게 펴졌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에 기념할만한 장관을 보았다며 감격한 단재 선생을 생각하며 사대주의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민족사관을 세우고자 노력했던 단재 선생의 민족적 자긍심을 배웠다.

북으로 만주 땅을, 남으로는 한반도를 거느린 백두산. 우리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못했지만 백두산에 서서 만주 땅과 한반도의 안타까운 역사와 현실을 생각했을 신채호의 마음을 떠올렸다. 그곳에선 태극기도, 어떤 현수막도 펼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 중국 땅을 밟아야만 백두산에 오를 수 있는 현실에 가슴

을 쳤다. 선양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이동했다. 베이징에서 단재 선생이 마음껏 책을 보며 역사책을 썼을 베이징대와 단재 선생이 거주했던 진스팡지에 차오떠우 후통, 그 외 만리장성, 천안문광장, 자금성 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진스팡지에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역사를 통해 민족혼을 지키고자 조선상고사까지 썼던 단재 선생의 흔적이 한 세기도 흐르지 않았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단재 선생이 가난한 신혼살림을 꾸리며 월간지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을 차오떠우 후통을 걸으며 그가 가난한 다세대 주택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곁에 두고 밤늦도록 등불을 밝힌 채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고, 글을 쓰고,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단재 선생의 인간적 고뇌와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5박 6일의 중국 답사에서 민족을 위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단재 선생을 만났다.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도 개인적 출세를 지향하지 않고, 가난과 병고와 싸우며 언론활동, 역사연구, 독립운동 등을 통해 오직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았던 단재 선생을 바라보며 나와 우리의 지금을 돌아본다. 답사 내내 제제를 가하던 중국 공안의 모습. 중국의 역사적 왜곡과 단재 선생의 유적조차 지켜내기 쉽지 않은 상황. 사대주의 및 일본의 역사왜곡



▲ 천안문 광장에서 윤석위 대표님과 함께

앞에서 날카로운 펜을 들어 우리의 민족사관을 세운 단재 선생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러한 것들에 무관심했다는 부끄러움이 내 어깨를 짓누른다.

그의 올곧은 정신, 민족애, 열정을 다시금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그리고 걸어가야 할 삶을 생각한다. 단재 선생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 앞에서는 교사로서 어떤 빛깔로 나의 삶을 그려낼 것인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아 단재 선생의 불꽃같은 열정과 나라 사랑의 신념을 나의 가슴에,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가슴에 새겨 현재의 것으로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단재유적답사가 내게 가르쳐준 무겁지만 기꺼운 과제이자 나의 미래였다.

단재의 발자취 따라 다롄에서 베이징까지

신 용 철 충청리뷰 기자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위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단재 신채호 선생 (1880~1936). 그는 한일병탄으로 나라가 기울 때, 지식인으로서 친일에 야합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망명, 그곳에서 언론인이자 역사학자, 독립운동가로 커다란 족적을 남기며 깨끗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요, 자랑스런 선각자다.

이런 그를 기억하고자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는 ‘5회 단재역사퀴즈대회’, ‘2회 단재청소년글짓기대회’ 입상자들과 희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제2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단재해외유적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국가보훈처,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시, 청원군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학생 13명 성인 10명 총 23명이 답사단을 꾸렸다.



▲ 다렌공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단재해외유적답사단 일행

가슴에는 단재라는 공통분모를 안고

17일 토요일 새벽 5시 청주체육관 앞. 답사단 일행들이 하나둘씩 가슴에 설렘을 안고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원종문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집행위원

장의 짧은 인사말이 끝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답사단 일행은 마침 당일 아침 공항 시스템 장애로 비행이 지연돼 다롄에 한 시간 연착했다.

한 시간을 더 기다리면서도 답사단 일행은 연방 싱글벙글이었다.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어색한 사이였지만, 오직 단재에 대한 관심으로 만난 공통분모 때문인지 벌써부터 하나 둘씩 친근해지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단재해외유적답사를 하며 보고 느끼고 배워오겠다는 각오마저 비쳐졌다.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한 시간여 만에 11시 30분(한국 시간 12시 30분)께 다롄공항에 도착했다. 답사단 일행은 곧바로 뤼순감옥(뤼순감옥)으로 향했다. 이곳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처형된 곳이며, 그로부터 26년 후인 1936년 2월 21일 단재 선생이 옥사한 곳이다.

단재 선생이 감옥살이를 했던 감방 앞에서 이번 답사단 단장을 맡은 단재연구가 박정규 전 청주대 교수의 인도로 답사단 일행은 단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묵념을 했다. 박 단장은 “이곳에서 단재 선생은 민족주의자에서 무정부주의자로 바뀌었다”면서 “단재 선생은 매일 책을 읽고 ‘민족전선을 위하여’, ‘혁명 동포에게’ 등을 이곳에서 썼다”고 설명했다.

좁은 감옥 안, 차가운 바닥에서 8~10명이 함께 지냈다는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답사단 일행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고초를 겪은 단재 선생을 생각하며 이내 숙연해졌다. 안중근 의사가 교수형에 처해진 곳을 둘러보면서도 모두가 말문을 닫은 채,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일행은 뤼순감옥에서 2시간여의 관람을 마치고 단재 선생 화장터로 추정되는 곳을 둘러본 뒤, 전용버스로 약 4시간에 걸쳐 단둥으로 이동했다. 이날 저녁, 단둥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은 백두산에서 발원해 장백, 지안, 단둥을 경유해 황해로 들어가는 총길이 795km인, 민족의 강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과 북녘의 양쪽 국경인 압록강을 목도할 수 있었다.



▲ 단재 신채호 선생이 옥사한 뤼순감옥 앞에서 답사단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족주의자에서 무정부주의자로

이튿날 아침 식사 후, 일행은 압록강 유람선에 탑승했다. 바로 눈앞에 북녘 건물들과 북녘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저 그들이 보건 그렇지 않건 손을 흔드는 것밖

에 할 수 없었다. 압록강을 바라보며 마천루 건물들이 가득 들어선 단둥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하기까지 보였던 북녘을 보며 일행들 몇몇은 표현하기 힘든 깊은 상념에 젖어 있는 듯 보였다.

이어 일행은 5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고구려 2번째 수도였던 지안현으로 이동했다. 광개토대왕릉 및 광개토대왕비, 장수왕릉(장군총), 오희분 오희묘 등을 보기 위해서였다. 단재 선생은 1914년 대중교 종사 윤세복의 초청으로 지린성 환인현에서 1년 동안 역사를 가르치며 고구려 유적지를 돌아 본 적이 있다.

이 때 그는 “지안현 고구려 유적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려사를 만 번 읽은 것보다 더 낫다”고 표현했다 한다. 과연 백문이불여일견이었다. 일행은 유적들을 둘러보며 웅혼한 우리 민족 고구려의 기상을 보며 단재 선생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일행은 백두산 천지를 가기 위해 통화로 이동해 그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19일 아침 식사를 끝내고, 일행은 다시 4시간 30분 정도를 달려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백두산 전체 면적 중 3분의 2가 북녘 영토이건만 일행은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쪽에서 백두산 천지를 오를 예정이었다.

마침 이날 일행은 백두산 천지를 오르기에 앞서 점심 식사를 하며 김정일 사망 소식을 듣기도 했다. 모두들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눈이 적어서 스노우모빌을 천지까지 이동할 수 없다는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아쉬

움을 남긴 채 포기해야 했다. 그저 맛보기(?)로 백두산에서 스노우모빌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스노우모빌 타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만족해야 했다.

대신 일행은 천지가 용암을 분출할 때 만들어진 V 모양의 협곡으로 기묘한 형태로 이루어진 금강대협곡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여유를 즐겼다. 기묘한 형태의 송곳바위와 천길 낭떠러지 사이로 흐르는 계곡수를 보며 모두들 그 절경에 감탄하기도 했다. 이후 일행은 작은 시골 동네인 송강하에서 하루를 묵었다.

‘조선족’은 조선인 폄하하는 말

답사 4일 제인 20일 아침, 일행은 3시간 30분에 걸쳐 다시 통화로 향했다. 항일 전쟁 영웅 양정우능원과 동북항일기념관(현재 정우능원)을 답사하기 위해서였다. 통화시 중심부에 위치한 양정우능원은 동북항일연군 1군 양정우군단장의 묘다.

임금이나 황제의 묘에 쓰이는 능(陵)이 붙은 이곳에는 양정우가 이끌던 1군 1사단장인 이홍광을 비롯해 이춘열, 이동광, 김정길, 김순희 등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동북항일운동에서 그 위상을 증명하고 있었다. 또 조직도에서 2군 3사단장으로 김일성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이 되기도 했다.

이후 일행은 다시 또 4시간에 걸쳐 후금의 수도였던 선양에 도착했다. 선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답사단 일행은 이번에는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



▲ 단둥에서 답사단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가면 바로 북녘에 닿을 수 있다.

다. 선양에서 멀리 베이징까지 가는 거리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야간열차를 택한 것이다.

열차 내 4인 1실로 20일 21시 25분에 선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10시간 가량 걸쳐 21일 오전 7시 30분께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었다. 베이징까지 가는 동안 답사단 학생들은 그동안 사이가 가까워져 새벽 3시까지 웃음꽃을 피워가며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베이징에서 만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현지 가이드는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일본인들이 중국 내에 있는 조선인들을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칭”이라며 “재미교포, 제일교포는 있지만 재중동포는 없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답사단

일행들에게 깊은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일행들은 이날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진시황제가 북방의 흉노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만든 건축물로 중국인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는 만리장성을 관람했다. 이후 일행은 단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진스팡지에, 차오편우 후통, 따헤이후 후통과, 베이징대, 고루 등을 답사했다.

진스팡지로 가는 길에 잠시 만난 단재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는 “시아버님이 어쩔 때는 공산주의자로 몰려 부당치 않은 대우도 많이 받았다”면서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여러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시아버님을 제대로 바르게 평가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사는 혹시 단재 선생의 유품이 있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당시 식민지 속국 상태라 유품 맡기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아버님께서 천진에 사는 박용만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작품을 맡겼는데, 그 뒤 그 사람이 죽고 북조선 대사관이 한 뭉치 다 가져갔다고 한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겼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단재 선생이 처음 베이징에 도착해 이회영 가족이 살고 있던 곳에 정착했던 진스팡지에, 그가 이회영 선생 부인 이은숙 여사의 증매로 박자혜 여사와 결혼해 2년간 짧지만 행복했던 신혼생활을 보낸 차오편우 후통, 극심한 생활고로 아내와 장남 수범 씨를 한국시키고 홀로 남아 역사 연구와 중국 월간지 ‘천고’를 집필했던 따헤이후 후통.

이곳들은 이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고 이후에 여러 개발들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답사단 일행은 그저 계딱지처럼 납작한 집들이 처마를 서로 맞대고 오밀조밀하게 살아갔던 그 옛날을 생각하며, 빈한한 삶 속에서도 절개를 잃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단재 선생을 그릴 뿐이다.

“역사 교훈 외면한 민족은 소멸”

‘2회 단재청소년글짓기대회’에서 중학생 부문 1등으로 이번 답사에 합류한 조우인 학생(대구 오성중 3)은 “평소 역사와 글짓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단재청소년글짓기 대회를 알게 됐다”며 “이번 답사가 잊지 못할



▲ 장수왕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답사단

일로 남을 것 같다. 단재 선생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한 학생(상당고 1)은 “친구 아버지가 단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에 관계된 분이라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그동안 단재 선생님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면서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과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친구를 설득해서 함께 자발적으로 이번 답사에 합류한 유진영 학생(산남고 2)도 “비록 퀴즈대회에서 떨어졌지만 단재 선생님의 유적지를 꼭 보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며 “그 분이 보고 느낀 것을 나도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은 의미로 다가온다. 단재 선생님의 얼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재해외유적답사’를 통해 답사단은 단재 선생의 흔적들을 추적하며 깊은 울림을 안고 돌아왔다. 구한말, 나라를 잃은 설움에 해외에서 직접 행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자 수십 년을 살며 비분강개했던 한 지식인이자 선각자를 만날 수 있었다.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도 좋지 못했던 그 당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무던히도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했던 한 독립운동을 만날 수 있었다. 일제의 통치가 조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는 소멸할 것이다”라고 말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지적은 여전히 많은 생각들을 던져주고 있다.

옛고구려 영토에서 단재를 만나다

단재 선생이 100여 년 전 이 땅의 청년들이 영웅과 위인들의 행적을 학습하여 무수한 새 영웅이 되어 국권회복투쟁을 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여 많은 진기를 퍼냈듯이 오늘날 분단된 이 민족, 이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상도 청년뿐임에야 달리 무슨 이론이 있을까.

답사에 함께했던 한 학생은 고백했다. “단재 선생의 발자취를 답사하는 동안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구려와 발해 중심의 새로운 역사관을 내놓은 그 뜻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소아가 아니라 대아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확고 해졌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뿌리를 알고 나아가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가지라고 외친 단재 선생님. 자신의 모든 것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바친 단재 선생이야말로 그냥 타버릴 촛불이 아니라 후세에 넘겨줄 강렬한 횃불입니다. 이번 답사에서 눈으로 마주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민족의 활로인 갯도를 뚫는데 절대 불가결한 다이내마이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학생도 있었다.

100여 년 전 단재의 피눈물 자국이 선연한 그의 땅명길을 걸으면서 학생들 심장은 이미 단재의 붉은 피가 들끓는 젊은 단재가 되어 있었다.

비매품



ISBN 978-89-964346-2-7

ISBN 978-89-964346-3-4 (세트)